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

이경희 · 이지은 · 신선옥 · 정현상 · 권익성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경희)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제26차 조사의 개요	(이지은) 5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5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7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1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11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18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20
1. 응답가구의 특성	20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22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24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24
2. 비성공가구의 특성	27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30
제6절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 개요	34
1.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의 개요	34
2. 09통합표본 특성	36
3. 18통합표본 특성	41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권익성)	45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45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1
1. 가구주의 특성		51
2. 가구원의 특성		53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55
제4장 가계경제	(권익성)	59
제1절 가구소득		60
1. 가구의 총소득		61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62
제2절 가구지출		65
1. 생활비		66
2. 저 축		68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70
제3절 주거 형태 및 비용		71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72
2. 주택의 종류		75
3. 주거지의 선택		76
제4절 자산 및 부채		78
1. 부동산자산		78
2. 금융자산		80
3. 가구의 부채		83
제5절 자녀 교육비		84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정현상)	87
제1절 경제활동 상태		87

제2절 취업자의 특성	92
제3절 미취업자	98
1. 구직활동	98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100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신선옥)	102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102
제2절 근로시간	106
1. 평균근로시간	107
2. 초과근로시간	110
제3절 임 금	111
1.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	111
2. 월평균 임금	113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17
1. 비정규직의 규모	118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20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신선옥)	121
제1절 종사상 지위	122
제2절 근로시간	124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25
2. 주당 근로시간	126
제3절 월평균 소득	129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33
제8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이지은)	135

제9장 26차 건강 부가조사 결과 분석	(이경희)	142
제1절 연구 개요		142
제2절 분석 결과		143
1. 건강 투자(신체 활동)		143
2. 건강 상태		146
3. 피로 및 수면		150
4. 의료 이용과 비용		152
5. 근무 환경		155
6.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160
제3절 소 결		163

표 목 차

〈표 2- 1〉 연도별 조사 결과	6
〈표 2- 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8
〈표 2-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10
〈표 2- 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 조사) 분포	13
〈표 2- 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14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16
〈표 2- 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17
〈표 2- 8〉 지역별 원표본 가구 유지율	19
〈표 2- 9〉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21
〈표 2-10〉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23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25
〈표 2-12〉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	26
〈표 2-13〉 연도별 비성공 사유	28
〈표 2-14〉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29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31
〈표 2-16〉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33
〈표 2-17〉 연도별 조사 결과(09통합표본)	37
〈표 2-18〉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09통합표본)	38
〈표 2-19〉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09통합표본) ...	39
〈표 2-20〉 연도별 분가가구 수(09통합표본)	40
〈표 2-21〉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09통합표본)	40
〈표 2-22〉 연도별 조사 결과(18통합표본)	41
〈표 2-23〉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8통합표본)	42
〈표 2-24〉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18통합표본) ...	42
〈표 2-25〉 연도별 분가가구 수(18통합표본)	43

〈표 2-26〉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18통합표본)	43
〈표 3- 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09통합표본)	47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09통합표본)	48
〈표 3- 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09통합표본)	50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09통합표본)	52
〈표 3- 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09통합표본)	54
〈표 3- 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09통합표본)	55
〈표 3- 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09통합표본)	57
〈표 3- 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09통합표본)	58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09통합표본)	62
〈표 4- 2〉 15차(2023)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09통합표본)	63
〈표 4- 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09통합표본)	66
〈표 4- 4〉 15차(2023)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09통합표본)	67
〈표 4- 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09통합표본)	69
〈표 4- 6〉 15차(202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09통합표본)	70
〈표 4- 7〉 15차(202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09통합표본)	71
〈표 4- 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09통합표본)	73
〈표 4- 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09통합표본)	76
〈표 4-10〉 15차(2023)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 (09통합표본)	77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79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81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09통합표본)	83

〈표 4-14〉 15차(2023)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09통합표본)	85
〈표 4-15〉 15차(2023)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09통합표본)	85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09통합표본)	88
〈표 5- 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09통합표본)	89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92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93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94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95
〈표 5- 7〉 15차(202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09통합표본)	96
〈표 5- 8〉 15차(202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09통합표본)	97
〈표 5- 9〉 15차(2023) 특성별 구직방법(09통합표본)	99
〈표 5-10〉 15차(2023)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09통합표본)	101
〈표 6- 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09통합표본)	103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105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107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3년)	108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3년)	108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3년)	109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09통합표본, 2023년)	110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09통합표본, 2023년)	112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09통합표본, 2023년)	112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09통합표본)	114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3년)	115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3년)	115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 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09통합표본, 2023년)	116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09통합표본, 2023년)	118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09통합표본)	122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09통합표본)	123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124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09통합표본, 2023년)	125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127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09통합표본, 2023년)	128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09통합표본, 2023년)	129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09통합표본)	130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09통합표본, 2023년)	131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09통합표본, 2023년)	132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09통합표본, 2023년)	133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09통합표본, 2023년)	133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09통합표본, 2023년)	134
〈표 8- 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136
〈표 8- 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137
〈표 8- 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138
〈표 8- 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140
〈표 9- 1〉 일 관련 고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a266101-a266106)	145
〈표 9- 2〉 평소 하루 중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a266107)	145
〈표 9- 3〉 평소 10분 이상 고강도 및 중강도 운동·여가 활동 (a266111-a266116)	146
〈표 9- 4〉 과거 및 현재 질병력(a266201-a266209)	147
〈표 9- 5〉 지난 2주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 (a266222-a266223)	148
〈표 9- 6〉 성별 연령대별 평균 키, 몸무게 및 BMI (a266219-a266220)	149
〈표 9- 7〉 평소 피로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및 휴식 필요성 (a266301-a266302)	150
〈표 9- 8〉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수면시간(a266303-a266304)	151
〈표 9- 9〉 지난 1년간 수면 관련 문제(a266305-a266307)	151
〈표 9-10〉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및 기간(4차: a041321, a041326, 26차: a266401-a266402)	152
〈표 9-11〉 지난 1년간 입원 이유(4차: a041327, 26차:	

a266403)	153
〈표 9-12〉 정기 건강검진 여부 및 주기(4차: a041331-a041332, 26차: a266404-a266405)	153
〈표 9-13〉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4차: a041341-a041342, 26차: a266406-a266407)	154
〈표 9-14〉 평소 하루 출퇴근 시간(a266501, a266601, a266701)	156
〈표 9-15〉 평소 출퇴근 교통수단(a266502-a266504, a266602-a266604, a266702-a266704)	156
〈표 9-16〉 월간 야간/주말/장시간근무 유무 및 평균 일수 (a266511-a266521, a266611-a266621, a266711-a266721)	157
〈표 9-17〉 근무시간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a266522-a266525, a266622-a266625, a266722-a266725)	158
〈표 9-18〉 교대근무(a266526-a266527, a266626-a266627, a266726-a266727)	159
〈표 9-19〉 유연근무제도 유무 및 사용(a266529-a266532, a266629-a266632, a266729-a266732)	159
〈표 9-20〉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빠진 시간 (a266901)	160
〈표 9-21〉 지난 7일간 일하는 중 건강 문제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 (a266904)	161
〈표 9-22〉 업무에 지장을 주는 증상(a266906-a266920)	162

그림목차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24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32
[그림 2-3]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의 개요	35
[그림 3-1] 15차(2023)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09통합표본)	49
[그림 4-1] 15차(2023)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09통합표본)	63
[그림 4-2] 15차(2023)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09통합표본)	69
[그림 4-3] 15차(2023)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09통합표본)	74
[그림 4-4] 15차(2023)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09통합표본)	74
[그림 4-5] 15차(2023)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09통합표본)	75
[그림 4-6] 15차(2023)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09통합표본)	80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 (09통합표본)	82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 (2009~2023년)	90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23년)	91
[그림 5-3] 15차(202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09통합표본)	98

[그림 5-4] 15차(2023)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09통합표본)	101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104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104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09통합표본, 2023년)	119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3년)	120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3년)	128

요약

○ 본 보고서의 목적

- 제26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임.
- 1998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3년 제26차 조사가 완료되었음. 제26차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 예산 투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였음.

1. KLIPS 26차 조사의 개요

○ 26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98표본 기준,

- 조사성공가구는 총 5,875가구로 원표본 3,028가구와 분가한 2,847가구(신규 분가 76가구 포함)이고,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976명으로 기존 가구원 11,710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 266명임.
-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 유지율은 60.6%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0.9%포인트 하락,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26차년도 4,463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67.8%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함.

○ 응답 형태를 살펴보면,

-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3.7%임.

- 계속응답가구의 비율은 원가구 대비 37.8%이고,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원표본가구원 대비 계속응답개인의 비율은 16.8%임.
-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이사추적 실패'가 66.8%, '강력거절'이 22.6%로 나타나, 향후 KLIPS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이사가구를 어떻게 추적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09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09년부터 축적된 09통합표본은 1차년도 6,721가구로 시작되어 09통합 15차년도(2023년도)에는 원가구 5,146가구, 분가가구 1,678가구 조사 성공
- 1차년도 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5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76.6%로 표본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개인 응답자는 13,779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13,481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298명임.

○ 18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18년부터 축적된 18통합표본은 1차년도 12,134가구로 시작되어 18통합 6차년도(2023년도)에는 원가구 10,655가구, 분가가구 818가구 조사 성공
- 1차년도 원가구(12,134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6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87.8%이고, 개인 응답자는 22,937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22,433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504명임.

2. 조사가구의 특성

○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 평균 가구원 수는 2.5인이고, 1인 가구의 비중이 29.4%로 가장 높음.
- 세대별로 보면, 2세대 가구가 약 5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29.4%임.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 남성이 73.8%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평균연령은 55.7세이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 여성의 비중이 50.2%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음.
 - 평균연령은 48.6세이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각각 25.7%와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0%로 가장 낮음.
-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 1~15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원은 총 2,502명이며, 15차년도 출생아는 106명으로 남아가 49명(46.2%), 여아가 57명(53.8%)임.
 - 1~15차년도 기간 동안 총 1,161명이 사망하였고, 15차년도 사망자는 81명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3세임.

3. 가계경제

-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
 - 15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6,070만 원(월평균 약 50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14차년도에 비해 21만 원 감소한 5,636만 원임.
- 월평균 생활비 및 저축에 대해 살펴보면,
 -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조사 이후 처음으로 12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13차년도 이후 다시 상승 추

세입.

-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1.1%이고, 월평균 저축액은 76만 8,000원임.

○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를 살펴보면,

-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30.0%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는 경우는 30.3%임.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8.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3.5%, 88.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 형태 및 비용을 살펴보면,

- 입주형태의 분포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60.5%로 가장 높고, 이어서 월세가 17.9%로 전세(16.4%)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도 지역이 서울의 약 2.5배, 광역시의 약 1.9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지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8억 4,237만 원인 데 비해 도 지역은 서울의 42% 정도에 해당하는 3억 5,54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3억 5,521만 원임.

○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7.0%로 전년도(17.5%)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함.
-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 시가총액이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음.

○ 금융자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13차년도까지 증가한 다음,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84.5%임.
-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5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499만 원이 증가하여 5,841만 원임.

○ 부채를 살펴보면,

-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2.0%였다가 2차년도에는 4.0포인트 증가한 56.0%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6차년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60.9%로 조사됨.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살펴보면,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는 30.0%, 만 6세~재수생 이하는 80.0%이며, 대학생 이상은 10.2%임.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자녀 수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0세~만 5세 이하는 76.9%, 만 6세~재수생 이하는 54.0%, 대학생 이상은 81.7%).
-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49만 3,000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39만 6,000원), 만 6세~재수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85만 7,000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57만 5,000원)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연평균 1,192만 3,000원(자녀당 연평균 1,006만 5,000원)임.
-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24.1%, 만 6세~재수생 자녀의 경우에는 71.2%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79.7%임.

4.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 조사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하면,
 - 09통합패널 1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15차년도(2023년)의 경우 58.5%로 조사됨.
 - 실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2.6%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15차년도에는 1.3%를 기록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15차년도에 40.2%를 보임.

5. 임금근로자의 특성

-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999명으로, 취업자의 77.4%임.
 - 특성별로는 학력별로 대졸(35.2%), 연령별로 40대(23.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34.5%), 직종별로는 생산직(30.6%)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임금근로자의 15차(2023)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9.5시간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남성(41.2시간)이 여성(37.4시간)보다 장시간 근로하며, 30대(41.2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음. 또한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41.1, 40.4시간으로 길게 나타남.
 -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11.8%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당 평균초과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대부분(97.0%)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급제의 비중(79.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봉계약제의 비중(12.5%)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15차(2023)년도 월평균 임금은 313만 6,000원임.

- 여성의 월평균 임금(216만 8,000원)이 남성(331만 2,000원)의 65.5%에 불과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월평균 임금(384만 2,000원)이 가장 높았음.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았음.
- 산업별 및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수도업(450만 5,000원)과 전문관리직(368만 6,000원)이 가장 높았음.
- 종업원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468만 3,000원),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424만 2,000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음.
- 15차(2023)년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5.2%임.
 - 유형별 비중은 한시적근로자(27.5%), 시간제근로자(12.8%), 그리고 비전형근로자(9.7%)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42.3%)이 남성(29.7%)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중(21.2%)은 남성(6.3%)의 3배 이상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20만 원)은 정규직의 6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6.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는 1,986명으로 취업자의 22.6%임.
 - 각 종사상 지위의 비중은 자영업자(60.8%), 고용주(24.9%),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14.3%)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의 15차(2023)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5일로 평균근로시간은 44.0시간으로 조사됨.
 - 1차(2009)년도 52.0시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임.
- 비임금근로자의 15차(2023)년도 월평균 소득은 376만 1,000원임.
 - 1차(2009)년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창업자의 85.9%가 창업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85.5%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7.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 18통합 4차부터 6차(조사년도 2021~2023년)까지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하여,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이동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함.
 - 2022년 취업자 중 2023년에 계속 취업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은 93.9%, 실업이 될 확률은 0.8%,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할 확률은 5.2%임.
 -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남성: 95.9%, 여성: 91.2%),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음(남성: 3.4%, 여성: 7.7%).
 - 연령별로는 취업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40대(96.6%), 50대(95.8%), 30대(94.2%) 순으로 높고, 20대가 90.8%로 가장 낮아, 20~30대는 한 직장에 머물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분주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취업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중졸 이하(91.6%), 고졸(93.4%), 전문대졸(94.0%), 대졸 이상(95.5%) 순으로 나타남.

8. 26차 건강 부가조사 결과 분석

- 건강 투자와 관련하여, 일 관련 신체활동과 운동 및 여가 관련 신체활동을 비교해 보면, 일 하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강도인 비율은 낮고 활동 시간은 많음.

- 일 하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중강도 활동(20.3%)이 고강도 활동(4.3%)보다 5배 정도 많았지만 활동 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 (주당 평균 시간 기준, 중강도 8.7시간, 고강도 8.6시간).
-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의 고강도 비율은 6.1%, 중강도는 2.5배 수준인 15.4% 정도 되며, 주당 평균 시간은 고강도의 경우 3.9시간, 중강도는 3.7시간으로 유사함.
- 앉거나 누워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6.4시간으로 일이나 운동 및 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시간보다 3~6배 많은 경향을 보임.
- 건강 상태는 성인병의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심리·정신과적 질병의 진단율(2.5% 내외)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일상생활 중의 스트레스나 우울 수준은 낮지 않음.
- 고혈압(저혈압),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을 진단받은 비율은 각각 22%, 13.2%, 10.6%, 9.9%이며, 만성질환적 성격으로 대부분 진단 후 치료받고 있음.
- 지난 2주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수준이 6점 이상으로 높은 편인 비율이 각각 22.2%, 10.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1년간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상담·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2% 수준에 불과함.
- BMI 기준 비만인의 비중은 남성 28.2%, 여성 23%이며, 신체발달상황, BMI 및 비만도 등은 남녀 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평소 피로 및 휴식 필요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으며,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지난 1년간 수면 관련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경우는 50% 내외임.
- 한편,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수준으로 수면 관련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도 20% 내외로 적지 않음.
- 의료서비스 이용 면에서는, 정기 건강검진 비율과 주기,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20여 년 전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26차 기준 71.7%로 4차(20.7%) 대비 3.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평균 검진 주기 또

한 약 20개월로 4차(13.4개월)보다 6개월 이상 길어짐.

- 진료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4차에서는 50% 미만 (45.2%)이었으나 26차에서는 약 67%까지 높아짐.
- 지난 1년 동안 병의원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과 시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평소 하루 출퇴근 시간은 첫 번째 일자리의 경우 평균 47분으로 두 번째(32분)와 세 번째(39분) 일자리에 비해 더 긴 경향을 보였으며, 시간 외 근무시간 형태는 주말 근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모든 일자리에서 자가용(승용차)인 경우가 45% 내외로 가장 많았으며,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자가용에 이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2순위임.
-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모든 일자리에서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서 '일요일 근무', '저녁 근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근무는 한 달 평균 3번 정도로 나타남.
-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약 10%) 월평균 14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장의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이 8% 미만으로 낮은 가운데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비율 또한 첫 번째 일자리 기준 40% 수준임.
- 유연근무제 형태 중 재택근무제(19.3%) 사용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시차출퇴근제(9.6%), 탄력적 근무제(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의 건강 문제가 일에 미친 영향은 생산성 면에서 크지 않아 보임.
-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빠진 적이 있는 비율은 2% 미만 (1.8%), 일하는 중 건강 문제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10점 만점에 2점 미만(1.9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업무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목·어깨 통증(15.4%), 상지, 하지 관절의 통증·장애편(12.7%), 피로감(10.9%), 고혈압(8.7%), 고지혈증(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및 혈관 관련 질환이 주요한 증상임.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제26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3년에 제26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KLIPS는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생산·점검·관리·공개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 수행하고 있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19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이번 제26차 조사에서 원표본 5,000가구 중 3,028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원표본유지율 60.6%를 기록하였다(표 2-1 참조).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조사는 시대적 상황 및 KLIPS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

2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KLIPS는 패널자료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사원들의 KLIPS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 현장을 조사원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기법의 대중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KLIPS는 학술대회 특별세션 또는 데이터 워크숍을 통해 패널자료 분석방법론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방법론 강연은 난해하던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을 쉽게 설명하여 패널자료 연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 자료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품질 개선과 패널자료 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KLIPS의 노력은 한국 노동시장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촉진하고 학제 간 연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LIPS 유저가이드 및 홈페이지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FAQ는 KLIPS의 사용·분석 등 활용 전반에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27개 질문 위주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KLIPS 자료 정제 및 분석에 사용되는 코드는 통계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SAS와 SPSS, STATA로 삼원화하여 제공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R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반영하여 R 버전의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노동패널 홈페이지에 ‘데이

터활용'이라는 폴더를 신설하여, 통계 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노동패널팀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들로부터의 제언을 바탕으로 FAQ 내용 및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FAQ의 개선 및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KLIPS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의 연장선에서 한국노동패널팀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개인 및 가구 데이터의 변수를 선택하고, 변수들의 연도별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STATA 버전의 SMART_KLIPS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였다. 2021년부터는 STATA 통계 프로그램이 없어도, 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직접 연도별·변수별 결합이 가능한 자료추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KLIPS 설문구조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제26차 조사 전반에 대해 개관하고,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KLIPS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 경제에 대해 다룬다.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제6장과 제7장은 개별 근로자의 노동 상태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근로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동학(dynamics) 분석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제9장은 26차 부가조사 '건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26차년도(1998~2023년) 자료이다. 세부적으로 조사 개요 부분인 제2장은 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98표본, 09통합표본, 18통합표본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제7장은 전국 단위의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 2009년에 추가된 표본을 포함한 09통합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8장은 최근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표본 수가 가

4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장 많은 18통합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9장 부가조사 분석 시에는 모든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제26차 조사의 개요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¹⁾

1998년에 표집된 가구를 기준으로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1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 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 당시 아직 한국에서는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1)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33601).

6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표 2-1〉 연도별 조사 결과

(단위 : 가구, %, 명)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수 ⁵⁾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19	6~10월
2차('99)	5,000	4,507	4,378	87.6	87.6	129	12,034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4	4~10월
4차('01)	5,000	4,247	3,866	77.3	77.3	381	11,046	4~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1	4~10월
6차('03)	4,991	4,592	3,862	77.2	77.4	730	11,535	5~10월
7차('04)	4,947	4,761	3,862	77.2	78.1	899	11,656	5~10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79	4~10월
9차('06)	4,914	5,001	3,820	76.4	77.7	1,181	11,752	4~11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1	4~9월
11차('08)	4,862	5,116	3,710	74.2	76.3	1,406	11,732	4~10월
12차('09)	4,833	5,306	3,658	73.2	75.7	1,648	11,739	3~11월
13차('10)	4,803	5,379	3,607	72.1	75.1	1,772	11,582	7~12월
14차('11)	4,787	5,404	3,528	70.6	73.7	1,876	11,376	7~익년2월
15차('12)	4,771	5,469	3,517	70.3	73.7	1,952	11,442	6~12월
16차('13)	4,742	5,501	3,472	69.4	73.2	2,029	11,329	6~12월
17차('14)	4,742	5,549	3,451	69.0	72.8	2,098	10,752	3~10월
18차('15)	4,702	5,624	3,420	68.4	72.7	2,204	11,434	4~11월
19차('16)	4,687	5,691	3,386	67.7	72.2	2,305	11,618	4~11월
20차('17)	4,670	5,734	3,348	67.0	71.7	2,386	11,839	4~11월
21차('18)	4,634	5,761	3,299	66.0	71.2	2,462	11,835	3~익년1월
22차('19)	4,604	5,777	3,254	65.1	70.7	2,523	11,818	4~11월
23차('20)	4,561	5,771	3,191	63.8	70.0	2,580	11,738	5~익년2월
24차('21)	4,533	5,783	3,139	62.8	69.2	2,644	11,726	4~11월
25차('22)	4,496	5,807	3,076	61.5	68.4	2,731	11,882	4~12월
26차('23)	4,463	5,875	3,028	60.6	67.8	2,847	11,976	4~11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2023년에 실시된 제26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028가구 및 분가한 2,847가구를 합하여 총 5,875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60.6%로 전년도에 비하여 0.9%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총 11,976명이다.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 세트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매해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시의성을 보완하였다.

〈표 2-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내 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장년층, 삶의 인식(18차) 청년층 조사(19차) 의사결정(20차) 고용형태(21차) 비임금근로자(22차) 코로나19(I)(23차) 코로나19(II)(24차) 코로나19(III)(25차) 건강(26차)
직업력 자료	KLIPS_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다음으로 KLIPS 연혁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9차년도까지는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9차 조사(2006년)부터 중요한 조사전략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조사도구를 서면조사(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 PAPI)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로 이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패널조사 전용 소프트웨어인 Blaise에 기반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560가구(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28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도구 변경이 표본의 응답 패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모드 효과(mode effects)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사도구 간에 체계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11차 조사부터 전체 표본에 대해 CAPI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실시하였다.

2009년(12차 조사)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1,415가구의 표본을 추가하였다.²⁾ 1998년에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98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9년 표본 추가에 따라 제주도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21차 조사)에는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발생한 표본 탈락을 보완하기 위해 5,044가구의 표본 추가를 실시하여,³⁾ 18통합표본에서는 12,134가구와 그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23,972명이 조사되었다. 표본을 추가하기에 앞서,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예비조사⁴⁾를 실시하여, 6,034가구를 구축하였다. 이 중 2018년 조사에서 이사 후 추적 실패, 조사 거절 등의 이유로 4,334가구(6,034가구 대비 72%)만 18통합표본에 포함되었고, 추가 표본을 확대하기 위해 710가구를 추가하여, 총 5,044가구의 신규 표본이 구축되었다.

2019년(22차 조사) 면접조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이사추적 실패 및 방문 면접 거절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웹조사인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조사 방법을 시범 도입하였다. 이에 앞서, 노동패널팀에서는 2개년 동안 CAPI와 CAWI의 조사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연구⁵⁾를 진행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CAWI 조사가 CAPI 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 가구원 대비 응답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응답자의 연령이 낮으며, 대리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2) 2009년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 기술하였다.

3) 2018년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 기술하였다.

4) 2017년 예비조사는 추가표본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노동패널 본 설문(가구설문, 개인설문, 유형설문) 문항을 질문하지 않고, 간략한 가구 정보와 가구원 정보만을 수집하였다.

5) CAPI와 CAWI 조사 효과 실험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유빈 외(2017),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VII)』 제7장 「웹을 활용한 조사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노동패널 CAWI 실험 데이터의 분석」(이지은·신선옥·이혜정·김기홍 저술)과 김유빈 외(2018),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VIII)』 제3장 「웹을 활용한 조사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II: 노동패널 CAWI 1차, 2차실험 연구 결과 분석」(이지은·이혜정·신선옥·정현상 저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조사에서 가구조사와 개인조사 모두 현행대로 CAPI 조사방법을 유지하되, CAPI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만 CAWI 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조사를 진행⁶⁾하고 있다.

2021년도(24차)조사 공개 시에는 자료 추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자료 추출 시스템이란 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료의 연도별·자료별·변수별 결합을 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구데이터와 개인데이터, 부가데이터를 결합하여 한 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데이터 셋을 구성할 때, 원하는 차수와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패널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노동패널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조사 연혁
1차	1998년 노동패널 시작, 5,000가구 및 그 가구원
10차	2007년 노동패널 실사 CAPI 부분 도입
11차	2008년 노동패널 실사 CAPI 전면 도입
12차	2009년 노동패널 1,415가구 표본 추가
21차	2018년 노동패널 5,044가구 표본 추가
22차	2019년 노동패널 실사 CAWI 시범 도입
24차	2021년 자료 추출 시스템 도입

6) 웹조사와 기존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이 검증은 김유빈 외(2020),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 제5장 「웹을 활용한 조사 자료 검증: 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이지은·채민희 저술); 장인성 외(2021),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 제5장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증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 비교」(이지은·채민희 저술)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⁷⁾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6차년도 조사는 2023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을 반드시 직접면접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 작성은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전화로 실시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 개인용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7)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li.re.kr/klips>)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 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도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1차 조사에서 전년대비 면접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CAPI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트북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유치나 전화 등의 다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평균적으로 93~94% 내외의 면접조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차조사에서 웹조사가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어 매해 0.2~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3~25차 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접조사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었다. 평균 3~4%이던 전화조사 응답비율이 22.4%까지 증가하면서, 대면조사를 거부하던 패널의 응답을 이끌어냈다.⁸⁾ 25차 조사에서는 코로나의 안정화로 전화조사로 응답하였던 패널들을 다시 면접조사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여, 24차년도 22.4%에 달했던 전화조사의 비율을 26차년도 7.8%로 감소시켰다.

8) 코로나19로 인한 조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의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인성 외(2021),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 제5장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증 연구 : 한국노동패널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 비교」(이지은·채민희 저술)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5〉는 본인 및 대리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KLIPS 조사는 응답자의 병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리 응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본인 응답은 74.0%, 대리 응답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본인 응답 비중이 88.7%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93%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2-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 조사)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유치 +전화	웹조사
1차('98)	13,319	96.5	64.4	21.8	1.5	2.6	3.7	2.6	0.1	-
2차('99)	12,034	100.0	77.8	7.6	7.4	4.7	2.5	0.1	0.0	-
3차('00)	11,204	99.8	83.0	5.1	5.3	3.9	1.5	0.9	0.2	-
4차('01)	11,046	100.0	83.7	3.4	4.6	4.9	1.2	1.8	0.5	-
5차('02)	10,961	100.0	83.8	2.6	3.9	6.4	1.0	1.0	1.3	-
6차('03)	11,535	100.0	86.3	1.7	3.8	5.7	0.9	1.3	0.4	-
7차('04)	11,656	100.0	88.0	1.7	4.1	3.7	0.4	1.6	0.5	-
8차('05)	11,579	100.0	85.4	1.6	2.8	6.1	1.4	1.7	1.0	-
9차('06)	11,752	100.0	89.7	1.5	2.9	2.8	0.7	2.3	0.3	-
10차('07)	11,851	100.0	91.3	1.1	3.2	3.1	0.6	0.6	0.1	-
11차('08)	11,732	100.0	95.7	0.6	1.8	1.3	0.3	0.2	0.1	-
12차('09)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
13차('10)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
14차('11)	11,376	100.0	93.0	0.8	3.2	2.2	0.4	0.3	0.1	-
15차('12)	11,442	100.0	93.6	0.4	4.5	1.3	0.1	0.0	0.0	-
16차('13)	11,329	100.0	95.2	0.5	3.0	1.1	0.1	0.1	0.0	-
17차('14)	10,752	100.0	96.6	0.3	2.3	0.7	0.1	0.1	0.0	-
18차('15)	11,434	100.0	95.2	0.5	3.2	0.9	0.2	0.1	0.1	-
19차('16)	11,618	100.0	96.4	0.4	2.0	0.7	0.4	0.0	0.0	-
20차('17)	11,839	100.0	96.7	0.3	2.2	0.4	0.4	0.0	0.0	-
21차('18)	11,835	100.0	93.8	0.3	4.8	0.6	0.4	0.0	0.1	-
22차('19)	11,818	99.9	96.2	0.3	2.7	0.5	0.1	0.0	0.0	0.2
23차('20)	11,738	99.6	78.6	0.5	19.6	0.6	0.2	0.0	0.0	0.4
24차('21)	11,726	99.5	75.9	0.3	22.4	0.7	0.1	0.0	-	0.5
25차('22)	11,882	99.7	85.4	0.7	12.4	0.7	0.5	0.0	0.0	0.3
26차('23)	11,976	99.5	90.0	0.5	7.8	0.6	0.5	0.1	0.0	0.5

주: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14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표 2-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단위 :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98)	13,319	94.1	74.0	19.7	0.4
2차('99)	12,034	100.0	88.7	11.3	-
3차('00)	11,204	100.0	88.3	8.1	3.6
4차('01)	11,046	99.8	83.3	11.0	5.5
5차('02)	10,961	100.0	83.8	9.8	6.4
6차('03)	11,535	100.0	83.1	11.2	5.8
7차('04)	11,656	100.0	85.7	9.7	4.7
8차('05)	11,579	100.0	87.3	5.0	7.7
9차('06)	11,752	100.0	90.0	3.0	7.1
10차('07)	11,851	100.0	90.7	5.6	3.7
11차('08)	11,732	100.0	91.7	5.8	2.6
12차('09)	11,739	100.0	91.4	4.0	4.6
13차('10)	11,582	100.0	93.3	3.9	2.8
14차('11)	11,376	100.0	92.9	4.7	2.4
15차('12)	11,442	100.0	94.5	3.5	2.0
16차('13)	11,329	100.0	94.4	3.6	2.0
17차('14)	10,752	100.0	95.2	3.5	1.4
18차('15)	11,434	100.0	94.9	2.9	2.3
19차('16)	11,618	100.0	96.3	2.2	1.5
20차('17)	11,839	100.0	96.4	2.5	1.1
21차('18)	11,835	100.0	95.7	2.4	2.0
22차('19)	11,818	100.0	96.2	2.3	1.6
23차('20)	11,738	100.0	95.0	2.9	2.1
24차('21)	11,726	100.0	94.6	2.8	2.6
25차('22)	11,882	100.0	93.9	2.6	3.5
26차('23)	11,976	100.0	93.7	2.2	4.1

주 :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반대로 대리 응답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8회로 측정되었다(표 2-6 참조). 범주별로는 1회 방문이 63.7%, 2~3회 방문이 2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함에 따라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1~2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다만 25차, 26차에 2회 이상 방문 비율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24차에 전화로 응답하였던 패널들을 방문조사로 설득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KLIPS 각 연도별로 조사에 진입하기 1~2주 전 5개 권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진입하게 된다. CAPI 도입 첫해에는 별도의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다음해부터 대부분의 면접원이 이미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게 되어 별도의 CAPI 교육기간을 두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매주 조사업체로부터 실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1~2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12차 조사까지 통상 4·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및 개인 일자리 특성 변화와 관련된 회고 설문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 체계가 패널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 조사가 늦어졌으나, 이후부터 4·5월 조사로 안정화되었다.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KLIPS는 전년도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고 오차(recall erro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말경부터는 응답가구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이후 통상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다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회, %)

	사례수	평균값	표준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체
1차('98)	5,000	2.4	1.6	38.1	42.1	14.9	5.0	100.0
2차('99)	4,507	2.3	1.6	41.7	40.5	11.7	6.2	100.0
3차('00)	4,266	2.6	2.0	34.2	43.2	15.4	7.3	100.0
4차('01)	4,247	3.0	2.2	27.3	42.2	19.8	10.7	100.0
5차('02)	4,298	2.6	1.7	31.2	43.7	19.3	5.9	100.0
6차('03)	4,592	2.9	1.9	28.1	39.9	22.3	9.7	100.0
7차('04)	4,761	3.0	2.0	26.3	40.9	21.0	11.8	100.0
8차('05)	4,849	3.3	2.1	22.6	38.4	23.9	15.2	100.0
9차('06)	5,001	3.0	1.9	23.8	42.4	24.1	9.6	100.0
10차('07)	5,064	2.6	1.8	34.4	39.6	18.9	7.2	100.0
11차('08)	5,116	2.3	1.4	39.4	43.5	14.2	3.0	100.0
12차('09)	5,306	1.3	0.8	79.7	17.4	2.5	0.4	100.0
13차('10)	5,379	1.3	0.8	79.1	18.3	2.4	0.3	100.0
14차('11)	5,404	1.3	0.8	78.8	18.1	2.4	0.7	100.0
15차('12)	5,469	1.4	0.9	75.1	21.7	2.3	0.9	100.0
16차('13)	5,501	1.2	0.6	86.8	12.1	0.9	0.2	100.0
17차('14)	5,549	1.5	1.0	71.1	24.6	3.6	0.7	100.0
18차('15)	5,624	1.3	0.8	78.7	19.3	1.5	0.5	100.0
19차('16)	5,691	1.3	0.7	76.8	21.1	1.9	0.1	100.0
20차('17)	5,734	1.2	0.6	88.0	10.7	1.0	0.2	100.0
21차('18)	5,759	1.4	0.8	70.6	26.9	2.1	0.4	100.0
22차('19)	5,777	1.2	0.6	84.4	13.9	1.5	0.2	100.0
23차('20)	5,762	1.2	0.6	87.9	10.7	0.9	0.5	100.0
24차('21)	5,783	1.2	0.6	87.0	11.8	1.0	0.2	100.0
25차('22)	5,807	1.7	1.1	61.6	31.8	5.1	1.6	100.0
26차('23)	5,875	1.8	1.4	63.7	26.8	5.5	4.0	100.0

〈표 2-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 수
1차('98)	0.0	0.0	0.0	0.0	0.0	27.9	30.3	27.9	13.2	0.7	0.0	0.0	5,000
2차('99)	0.0	0.0	0.0	0.0	0.0	0.0	5.0	22.8	22.6	27.3	20.2	2.1	4,507
3차('00)	0.0	0.0	0.0	0.2	15.1	28.1	26.1	23.6	5.2	1.7	0.0	0.0	4,266
4차('01)	0.0	0.0	0.0	1.6	16.1	27.2	15.7	23.3	13.0	3.2	0.0	0.0	4,247
5차('02)	0.0	0.0	0.0	4.7	31.3	25.9	26.4	7.2	4.4	0.1	0.0	0.0	4,298
6차('03)	0.0	0.0	0.0	0.0	12.7	25.6	30.1	21.3	10.2	0.0	0.0	0.0	4,592
7차('04)	0.0	0.0	0.0	0.0	16.7	26.4	24.8	21.1	10.8	0.2	0.0	0.0	4,761
8차('05)	0.0	0.0	0.0	13.9	23.8	24.0	20.1	12.1	5.9	0.3	0.0	0.0	4,849
9차('06)	0.0	0.0	0.0	8.1	25.4	20.5	20.9	14.6	8.6	1.8	0.0	0.0	5,001
10차('07)	0.0	0.0	0.0	14.4	27.0	26.9	20.7	8.3	2.8	0.0	0.0	0.0	5,069
11차('08)	0.0	0.0	0.0	8.7	27.9	23.8	21.0	9.7	4.3	4.6	0.0	0.0	5,116
12차('09)	0.0	0.0	0.5	35.7	31.7	12.4	9.3	5.2	3.8	1.4	0.0	0.0	5,306
13차('10)	0.0	0.0	0.0	0.0	0.0	0.0	7.7	33.9	19.1	28.6	8.8	2.0	5,379
14차('11)	0.3	0.2	0.0	0.0	0.0	0.0	2.2	39.8	19.8	20.4	16.1	1.3	5,404
15차('12)	0.0	0.0	0.0	0.0	0.0	0.9	32.7	28.5	19.1	10.5	6.4	2.0	5,469
16차('13)	0.0	0.0	0.0	0.0	0.0	7.5	29.4	21.3	16.4	15.7	6.5	3.2	5,501
17차('14)	0.0	0.0	19.1	31.9	24.9	17.1	3.9	1.6	1.5	0.1	0.0	0.0	5,549
18차('15)	0.0	0.0	0.0	6.9	29.2	18.7	21.8	13.2	3.7	4.0	2.6	0.0	5,624
19차('16)	0.0	0.0	0.0	16.5	31.2	20.6	16.6	8.1	2.6	2.9	1.6	0.0	5,691
20차('17)	0.0	0.0	0.0	32.6	24.6	18.3	14.2	6.1	1.8	1.3	1.2	0.0	5,734
21차('18)	0.0	0.0	0.5	0.0	7.3	22.4	20.4	17.5	9.3	8.0	14.7	0.0	5,761
22차('19)	0.0	0.0	0.0	18.5	24.2	18.4	10.6	7.8	6.7	7.2	6.6	0.0	5,777
23차('20)	2.6	0.1	0.0	0.0	16.7	26.4	20.3	11.4	8.2	5.7	3.4	5.4	5,771
24차('21)	0.0	0.0	0.0	5.7	26.1	22.9	18.0	10.4	5.2	6.9	4.8	0.0	5,783
25차('22)	0.0	0.0	0.0	4.7	26.0	23.3	15.0	12.4	6.9	5.5	5.8	0.4	5,807
26차('23)	0.0	0.0	0.0	14.7	25.8	16.0	15.9	12.5	7.0	6.2	2.0	0.0	5,875

주: 1) 1차년도는 조사월의 모름/무응답 482건을 제외하였음.

2) 14차년도에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익년 1월에 16건, 익년 2월에 8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만 패널조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조사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높은 숙련도를 가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1~2개월 동안 설득과정을 거쳐 한계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13~15차년도 조사는 조사 주체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시작 시점이 6·7월로 변경되었다.

16차년도에는 조사 주체가 다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17차년도부터는 조사 시작 시점이 다시 3·4월로 앞당겨졌다. 23차 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응답자가 대면조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조사가 매우 어려웠으나, 일정 정도의 조사 성공률을 담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를 넘겨 조사가 진행되었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차년도 KLIPS의 총응답가구는 5,807가구이며, 응답자 수는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1,883명이다(표 2-1 참조).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 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26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60.6%, 유효표본유지율은 67.8%였다(표 2-1 참조). 흔히 패널조사의 신뢰성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

〈표 2-8〉 지역별 원표본 가구 유지율

(단위: 가구, %)

	원표본 수	2차 (‘99)	3차 (‘00)	4차 (‘01)	5차 (‘02)	6차 (‘03)	7차 (‘04)	8차 (‘05)	9차 (‘06)	10차 (‘07)	11차 (‘08)	12차 (‘09)	13차 (‘10)	14차 (‘11)	15차 (‘12)	16차 (‘13)	17차 (‘14)	18차 (‘15)	19차 (‘16)	20차 (‘17)	21차 (‘18)	22차 (‘19)	23차 (‘20)	24차 (‘21)	25차 (‘22)	26차 (‘23)
전체	5,000	87.6	80.9	77.3	76.0	77.2	77.2	76.4	76.4	75.5	74.2	73.2	72.1	70.6	70.3	69.4	69.0	68.4	67.7	67.0	66.0	65.1	63.8	62.8	61.5	60.6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0	72.9	72.4	72.0	71.8	71.4	69.6	69.0	66.7	66.5	65.9	65.7	65.4	65.1	65.0	63.6	63.0	62.0	61.4	60.8	59.6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3	78.4	77.8	77.2	77.8	76.1	74.7	72.6	71.6	72.2	71.2	71.4	70.6	70.8	69.6	68.5	68.7	65.8	64.6	63.2	63.0
대구	314	84.1	72.0	67.5	71.0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65.3	66.9	65.9	65.9	65.3	63.7	63.4	62.7	60.5	60.2	59.2	58.6	56.4
대전	153	83.7	81.1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66.0	64.7	66.0	64.1	66.0	66.7	67.3	66.7	66.7	64.7	63.4	63.4	62.1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5.2	75.5	77.5	75.5	74.5	73.5	73.8	72.8	72.2	70.5	69.8	69.8	69.8	69.1	67.1	65.4
광주	158	78.5	69.0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68.4	67.7	67.1	66.5	65.8	65.8	63.9	63.9	61.4	60.1	60.1	60.1	58.2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0	72.4	72.4	70.7	70.7	71.6	70.7	71.6	70.7	69.8	68.1	67.2	67.2	66.4
경기	856	90.2	80.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4.0	71.6	71.9	70.7	69.7	68.5	67.3	65.7	65.0	65.1	64.0	63.3	61.0	59.1	58.4
강원	130	87.7	86.2	73.9	65.4	63.9	67.7	71.5	73.9	75.4	75.4	72.3	70.0	71.5	70.0	65.4	66.9	65.4	63.1	64.6	63.1	60.0	62.3	61.5	57.7	56.9
충북	113	87.6	75.2	77.0	75.2	70.8	69.9	67.3	70.8	68.1	69.0	68.1	70.8	68.1	70.8	71.7	70.8	69.0	70.8	70.8	69.0	69.0	68.1	68.1	68.1	68.1
충남	131	91.6	87.8	84.0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1	76.3	75.6	77.1	75.6	74.8	74.8	74.8	72.5	71.8	68.7	67.2	65.7	67.2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4	80.4	81.9	82.4	81.9	79.4	77.4	74.4	74.4	72.4	71.9	69.4	69.4	67.3	66.8	65.8	63.8	64.3	61.8	60.8
전남	127	92.1	89.8	89.8	89.0	84.3	89.0	86.6	87.4	88.2	86.6	85.8	84.3	83.5	81.9	80.3	80.3	80.3	79.5	78.7	78.7	78.7	78.0	78.0	75.6	75.6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4.8	72.3	72.3	71.2	69.3	70.1	70.4	67.5	65.7	63.5	61.3	61.3	61.0	60.2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0	75.7	74.3	75.0	73.3	74.0	73.3	72.3	70.2	68.5	68.2	66.8	66.1	64.4	64.4

주: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당해 연도 조사가구 수/원표본가구 수)×100.

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26차년도를 기준으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PSID(45.2%, 개인 기준⁹⁾)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 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¹⁰⁾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2-8 참조).

지역적으로 대구, 경기, 강원 지역의 표본유지율이 26차년도 기준 60% 이하이고, 전남 한 곳만 7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 추적이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9>는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8,878가구이고, 이 중 원가구는 56.0%(4,97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44.0%

9) 자료 : Beaulé, April, Flannery Campbell, Mary Dascola, Noura Insolera, David Johnson, Paul Juska, Katherine McGonagle, Beth Simmert, and Jerry Warra(2019), *PSID Main Interview User Manual: Release 2019*,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1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에 성공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표 2-9〉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550	6.2	183	3.7	367	9.4
2회	420	4.7	157	3.2	263	6.7
3회	384	4.3	153	3.1	231	5.9
4회	346	3.9	135	2.7	211	5.4
5회	285	3.2	120	2.4	165	4.2
6회	240	2.7	79	1.6	161	4.1
7회	231	2.6	79	1.6	152	3.9
8회	226	2.5	81	1.6	145	3.7
9회	237	2.7	86	1.7	151	3.9
10회	215	2.4	87	1.8	128	3.3
11회	255	2.9	86	1.7	169	4.3
12회	219	2.5	88	1.8	131	3.4
13회	213	2.4	64	1.3	149	3.8
14회	255	2.9	71	1.4	184	4.7
15회	289	3.3	68	1.4	221	5.7
16회	194	2.2	64	1.3	130	3.3
17회	205	2.3	72	1.4	133	3.4
18회	225	2.5	78	1.6	147	3.8
19회	205	2.3	75	1.5	130	3.3
20회	247	2.8	116	2.3	131	3.4
21회	251	2.8	115	2.3	136	3.5
22회	234	2.6	149	3.0	85	2.2
23회	291	3.3	197	4.0	94	2.4
24회	300	3.4	249	5.0	51	1.3
25회	480	5.4	437	8.8	43	1.1
26회	1,881	21.2	1,881	37.8	-	0.0
전체	8,878	100.0	4,970	100.0	3,908	100.0

(3,908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26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

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26회 모두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추적이 어렵고 이탈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분가가구의 응답 횟수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26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22,267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3,069명으로,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 13.8%이며,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998명으로 5.5%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26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가구원인 17,505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19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26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1,705명 중 72.1%인 8,468명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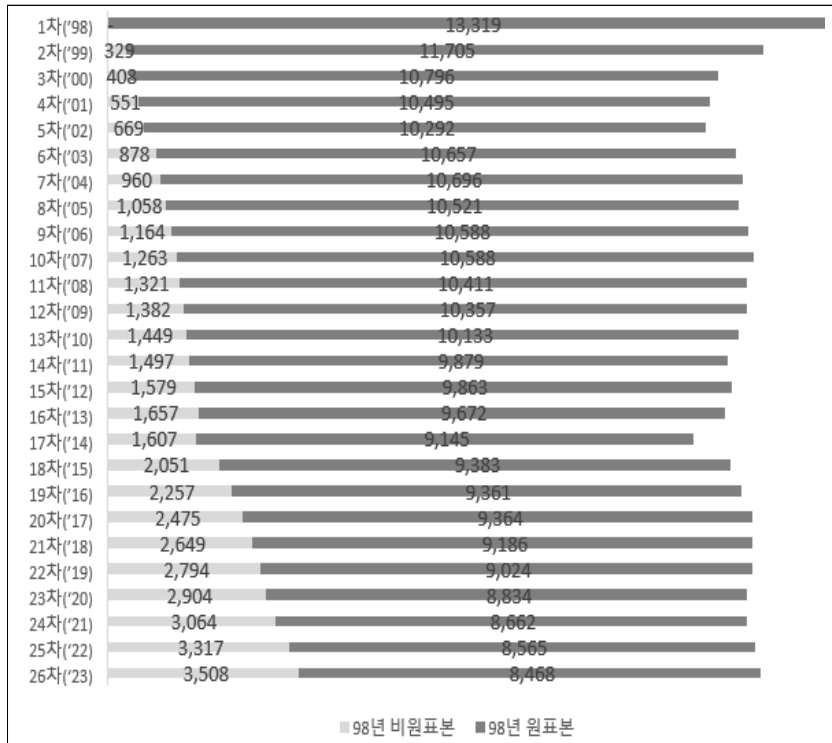
〈표 2-10〉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단위: 명, %)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1회	1,413	6.3	998	5.5	415	10.3
2회	1,255	5.6	849	4.7	406	10.1
3회	1,129	5.1	859	4.7	270	6.7
4회	1,053	4.7	780	4.3	273	6.8
5회	1,024	4.6	736	4.0	288	7.2
6회	852	3.8	632	3.5	220	5.5
7회	832	3.7	619	3.4	213	5.3
8회	836	3.8	648	3.6	188	4.7
9회	767	3.4	593	3.2	174	4.3
10회	642	2.9	525	2.9	117	2.9
11회	623	2.8	499	2.7	124	3.1
12회	617	2.8	495	2.7	122	3.0
13회	605	2.7	471	2.6	134	3.3
14회	565	2.5	430	2.4	135	3.4
15회	549	2.5	421	2.3	128	3.2
16회	456	2.0	345	1.9	111	2.8
17회	475	2.1	376	2.1	99	2.5
18회	516	2.3	432	2.4	84	2.1
19회	474	2.1	368	2.0	106	2.6
20회	562	2.5	461	2.5	101	2.5
21회	576	2.6	479	2.6	97	2.4
22회	662	3.0	595	3.3	67	1.7
23회	748	3.4	679	3.7	69	1.7
24회	839	3.8	790	4.3	49	1.2
25회	1,128	5.1	1,099	6.0	29	0.7
26회	3,069	13.8	3,069	16.8	0	0.0
전체	22,267	100.0	18,248	100.0	4,019	100.0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단위: 명)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26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당해연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799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6차년도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단위 : 가구, %)

	전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수 ¹⁾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원 수	이사가구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1차('98)	5,000	-	-	5,000	0	-	-	-	-
2차('99)	4,378	709	16.2	4,378	709	16.2	-	0	-
3차('00)	4,142	456	11.0	4,044	439	10.9	98	17	17.3
4차('01)	4,111	688	16.7	3,864	589	15.2	247	99	40.1
5차('02)	4,189	718	17.1	3,798	599	15.8	391	119	30.4
6차('03)	4,437	990	22.3	3,862	738	19.1	575	252	43.8
7차('04)	4,619	884	19.1	3,862	610	15.8	757	274	36.2
8차('05)	4,723	724	15.3	3,822	452	11.8	901	272	30.2
9차('06)	4,862	803	16.5	3,820	474	12.4	1,042	329	31.6
10차('07)	4,953	765	15.4	3,775	445	11.8	1,178	320	27.2
11차('08)	5,027	744	14.8	3,710	421	11.3	1,317	323	24.5
12차('09)	5,174	621	12.0	3,658	273	7.5	1,516	348	23.0
13차('10)	5,235	962	18.4	3,607	478	13.3	1,628	484	29.7
14차('11)	5,292	701	13.2	3,528	299	8.5	1,764	402	22.8
15차('12)	5,380	533	9.9	3,517	226	6.4	1,863	307	16.5
16차('13)	5,405	735	13.6	3,472	296	8.5	1,933	439	22.7
17차('14)	5,481	463	8.4	3,451	185	5.4	2,030	278	13.7
18차('15)	5,529	752	13.6	3,420	306	8.9	2,109	446	21.1
19차('16)	5,609	730	13.0	3,386	295	8.7	2,223	435	19.6
20차('17)	5,668	757	13.4	3,348	288	8.6	2,320	469	20.2
21차('18)	5,674	816	14.4	3,299	305	9.2	2,375	511	21.5
22차('19)	5,713	704	12.3	3,254	274	8.4	2,459	430	17.5
23차('20)	5,694	602	10.6	3,191	212	6.6	2,503	390	15.6
24차('21)	5,709	587	10.3	3,139	225	7.2	2,570	362	14.1
25차('22)	5,713	648	11.3	3,076	248	8.1	2,637	400	15.2
26차('23)	5,799	466	8.0	3,028	161	5.3	2,771	305	11.0

주 : 1) 전체 가구 수는 조사성공가구 수에서 당해 연도에 새로이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표 2-12〉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99)	4,507	-	129	129	2.9
3차('00)	4,266	98	124	222	5.2
4차('01)	4,247	247	134	381	9.0
5차('02)	4,298	391	109	500	11.6
6차('03)	4,592	575	155	730	15.9
7차('04)	4,761	757	142	899	18.9
8차('05)	4,849	901	126	1,027	21.2
9차('06)	5,001	1,042	139	1,181	23.6
10차('07)	5,069	1,178	116	1,294	25.5
11차('08)	5,116	1,319	87	1,406	27.5
12차('09)	5,306	1,516	132	1,648	31.1
13차('10)	5,379	1,629	143	1,772	32.9
14차('11)	5,404	1,764	112	1,876	34.7
15차('12)	5,469	1,863	89	1,952	35.7
16차('13)	5,501	1,933	96	2,029	36.9
17차('14)	5,549	2,030	68	2,098	37.8
18차('15)	5,624	2,109	95	2,204	39.2
19차('16)	5,691	2,223	82	2,305	40.5
20차('17)	5,734	2,320	66	2,386	41.6
21차('18)	5,761	2,375	87	2,462	42.7
22차('19)	5,777	2,459	64	2,523	43.7
23차('20)	5,771	2,503	77	2,580	44.7
24차('21)	5,783	2,570	74	2,644	45.7
25차('22)	5,807	2,637	94	2,731	47.0
26차('23)	5,875	2,771	76	2,847	48.5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466가구로 분가가구를 포함한 전체 성공가구 5,807가구의 8.0%이다.

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26차년도 조사에서

는 5.3%에 그쳤으나,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26차년도 조사에서는 1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표 2-12〉에서 KLIPS 분가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성공 5,875가구 중 48.5%인 2,847가구가 분가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 차수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2,771가구이며 26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7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쳤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26차년도에는 48.5%에 이르고 있다.

2. 비성공가구의 특성

KLIPS에서 조사 실패의 경우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로 신규 주소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사에 실패하게 된다. 횡단면 조사와 달리 패널조사에서는 이사추적 실패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방법론상의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치 파악(locating) 혹은 추적(tracking) 문제로 규정한다.

둘째, 응답자가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이사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응답자 접촉 자체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귀가가 늦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식별되더라도 응답자 접촉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셋째, 이상의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응답가구가 패널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조사의 경우 방대한 설문 문항과 민감한 조사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패널응답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 차수가 지날수록 강력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표본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 자체가 소멸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 2-13〉에서 연도별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초기에는 강력거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이사추적 실패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차년도부터 이사추적 실패가 급증하여 강력거절을 제치고 최다

〈표 2-13〉 연도별 비성공 사유

(단위 : 가구,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99)	621	59.1	20.9	15.9	4.0	100.0
3차('00)	938	66.0	17.4	15.1	1.5	100.0
4차('01)	809	53.3	25.7	13.0	8.0	100.0
5차('02)	1,315	46.7	23.4	12.7	17.3	100.0
6차('03)	1,399	46.8	28.7	13.2	11.4	100.0
7차('04)	1,531	44.2	32.9	17.4	5.5	100.0
8차('05)	1,661	46.8	25.2	14.2	13.9	100.0
9차('06)	1,610	51.1	29.8	7.0	12.2	100.0
10차('07)	1,774	49.9	36.0	8.8	5.3	100.0
11차('08)	1,901	56.8	31.8	7.3	4.1	100.0
12차('09)	2,009	50.5	35.7	10.9	3.0	100.0
13차('10)	2,106	42.1	37.2	18.9	1.8	100.0
14차('11)	2,299	37.8	44.2	16.0	2.0	100.0
15차('12)	2,367	41.5	44.3	12.3	1.9	100.0
16차('13)	2,490	36.8	46.5	14.1	2.6	100.0
17차('14)	2,589	38.2	46.9	12.2	2.7	100.0
18차('15)	2,613	32.4	54.0	12.3	1.3	100.0
19차('16)	2,756	34.6	51.0	12.7	1.7	100.0
20차('17)	2,840	30.9	56.5	11.1	1.5	100.0
21차('18)	2,946	28.7	56.9	12.2	2.2	100.0
22차('19)	3,010	29.8	60.9	8.3	1.0	100.0
23차('20)	3,002	27.4	65.9	6.2	0.5	100.0
24차('21)	3,008	22.6	62.5	14.6	0.8	100.5
25차('22)	3,020	25.8	68.7	4.9	0.6	100.0
26차('23)	2,980	22.6	66.8	10.1	0.5	100.0

주 : 각 연도 거절 사례 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비성공 사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6차년도의 경우 이사추적 실패가 6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강력거절 22.6%로 나타났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2.9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1.8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2-6, 표 2-14 참조).

〈표 2-14〉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단위: 가구, 횟수)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99)	621	4.1	2.3	4.0	2.6	3.6
3차('00)	938	5.4	3.5	5.8	2.3	5.1
4차('01)	809	4.1	1.7	4.3	2.0	3.3
5차('02)	1,315	3.9	2.8	3.8	3.4	3.5
6차('03)	1,399	3.4	2.8	3.9	2.3	3.2
7차('04)	1,531	3.6	2.3	3.7	1.6	3.1
8차('05)	1,661	3.9	1.9	5.1	1.5	3.2
9차('06)	1,610	4.1	2.7	4.5	2.6	3.6
10차('07)	1,774	2.9	1.2	3.4	1.2	2.2
11차('08)	1,901	2.8	2.4	3.6	1.6	2.7
12차('09)	2,009	2.4	2.2	2.5	2.2	2.4
13차('10)	2,105	3.6	3.3	3.2	3.4	3.4
14차('11)	2,299	3.4	3.1	3.9	1.9	3.3
15차('12)	2,367	3.3	3.2	3.4	3.0	3.3
16차('13)	2,490	3.1	2.8	1.9	1.4	2.8
17차('14)	2,589	3.4	3.3	3.6	3.0	3.4
18차('15)	2,618	1.8	1.3	1.9	1.6	1.5
19차('16)	2,756	1.4	1.0	1.2	1.2	1.2
20차('17)	2,826	1.3	1.1	1.4	1.1	1.2
21차('18)	2,945	2.9	1.1	3.0	1.6	1.9
22차('19)	3,010	3.0	1.2	3.0	1.2	1.9
23차('20)	3,002	3.0	1.1	3.1	1.3	1.7
24차('21)	3,008	3.0	3.0	1.2	1.4	2.7
25차('22)	3,020	3.0	3.0	1.2	1.2	2.9
26차('23)	2,980	3.1	2.8	3.0	1.4	2.9

주: 당해 연도 분가 비성공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성공가구의 경우 사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조사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 횟수가 1~2회에 그친다. 반면 강력거절 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 이사가구의 경우에도 방문 횟수가 적지 않은데 사전적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구를 방문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사가구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표 2-15〉는 전체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가구원은 가구 조사 시 파악된 가구 구성원으로, 개인조사에 성공한 개인 응답자보다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26차년도 전체 가구원은 14,956명이고, 이 중 신규 가구원은 212명으로 전체 가구원(14,956명)에서 1.4%를 차지한다.

〔그림 2-2〕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신규 추가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생’으로 26차년도의 경우 46.2%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인’으로 37.7%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분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구로 합친 ‘합가’의 비중은 16.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2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2,944명이었으며 이 중 92.5%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6.1%가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성공률이 조금씩 감소하여 17차년도에 83.6%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18차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26차년도 92.5%이다. 26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2%(366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80.5%(214명)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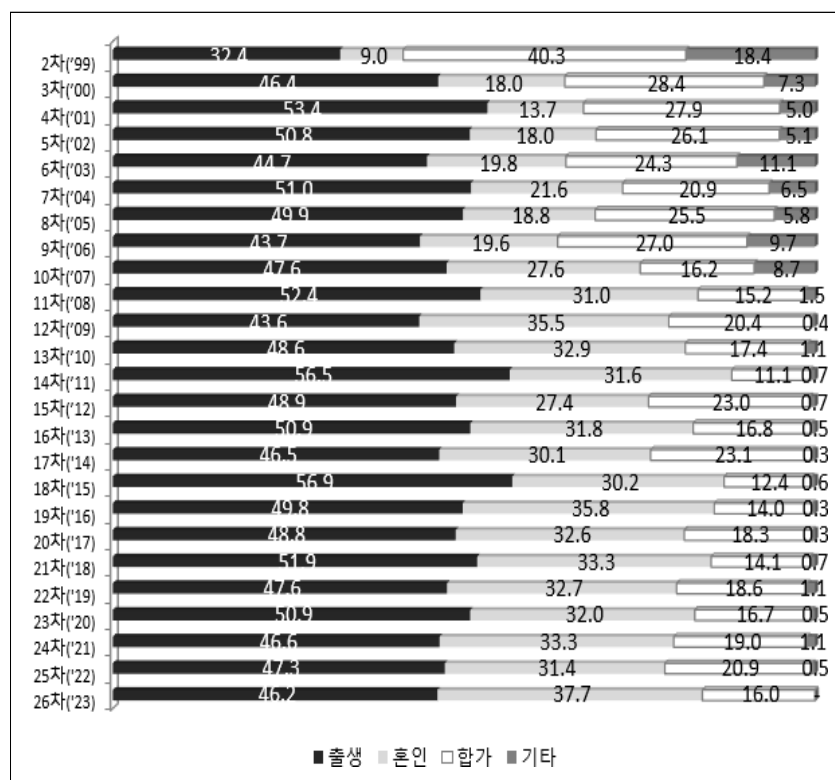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단위: 명, %)

	전체 가구원수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15세 이상		15세 미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7,504	17,504	100.0	-	-	13,853	79.1	3,651	20.9
2차(99)	15,753	15,191	96.4	562	3.6	12,608	80.0	3,145	20.0
3차(00)	14,662	14,338	97.8	324	2.2	11,839	80.7	2,823	19.3
4차(01)	14,411	13,942	96.7	469	3.3	11,657	80.9	2,754	19.1
5차(02)	14,308	13,929	97.4	379	2.6	11,635	81.3	2,673	18.7
6차(03)	14,955	14,355	96.0	600	4.0	12,185	81.5	2,770	18.5
7차(04)	15,250	14,745	96.7	505	3.3	12,439	81.6	2,811	18.4
8차(05)	15,210	14,768	97.1	442	2.9	12,458	81.9	2,752	18.1
9차(06)	15,416	14,899	96.6	517	3.4	12,690	82.3	2,726	17.7
10차(07)	15,413	14,963	97.1	450	2.9	12,709	82.5	2,704	17.5
11차(08)	15,213	14,745	96.9	468	3.1	12,560	82.6	2,653	17.4
12차(09)	15,460	14,917	96.5	543	3.5	12,828	83.0	2,632	17.0
13차(10)	15,433	14,886	96.5	547	3.5	12,826	83.1	2,607	16.9
14차(11)	15,312	14,898	97.3	414	2.7	12,701	82.9	2,611	17.1
15차(12)	15,388	14,983	97.4	405	2.6	12,794	83.1	2,594	16.9
16차(13)	15,371	14,990	97.5	381	2.5	12,785	83.2	2,586	16.8
17차(14)	15,414	15,115	98.1	299	1.9	12,859	83.4	2,555	16.6
18차(15)	15,489	15,140	97.7	349	2.3	12,900	83.3	2,589	16.7
19차(16)	15,489	15,196	98.1	293	1.9	12,959	83.7	2,530	16.3
20차(17)	15,577	15,275	98.1	302	1.9	13,065	83.9	2,512	16.1
21차(18)	15,534	15,243	98.1	291	1.9	13,082	84.2	2,452	15.8
22차(19)	15,508	15,239	98.3	269	1.7	13,109	84.5	2,399	15.5
23차(20)	15,333	15,111	98.6	222	1.4	13,006	84.8	2,327	15.2
24차(21)	15,165	14,991	98.9	174	1.1	12,973	85.5	2,192	14.5
25차(22)	14,992	14,772	98.5	220	1.5	12,904	86.1	2,088	13.9
26차(23)	14,956	14,744	98.6	212	1.4	12,944	86.5	2,012	13.5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단위 : %)



〈표 2-16〉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3,853	13,319	96.1	13,853	100.0	0	-	0	-	0	-
2차('99)	12,608	12,034	95.4	11,234	93.4	800	6.6	477	59.6	323	40.4
3차('00)	11,839	11,204	94.6	10,746	95.9	458	4.1	314	68.6	144	31.4
4차('01)	11,657	11,046	94.8	10,610	96.1	436	3.9	241	55.3	195	44.7
5차('02)	11,635	10,961	94.2	10,564	96.4	397	3.6	230	57.9	167	42.1
6차('03)	12,185	11,535	94.7	10,983	95.2	552	4.8	282	51.1	270	48.9
7차('04)	12,439	11,656	93.7	11,213	96.2	443	3.8	255	57.6	188	42.4
8차('05)	12,458	11,579	92.9	11,195	96.7	384	3.3	230	59.9	154	40.1
9차('06)	12,690	11,752	92.6	11,358	96.6	394	3.4	237	60.2	157	39.8
10차('07)	12,709	11,851	93.2	11,455	96.7	396	3.3	263	66.4	133	33.6
11차('08)	12,560	11,732	93.4	11,340	96.7	392	3.3	258	65.8	134	34.2
12차('09)	12,828	11,739	91.5	11,377	96.9	362	3.1	219	60.5	143	39.5
13차('10)	12,826	11,582	90.3	11,218	96.9	364	3.1	223	61.3	141	38.7
14차('11)	12,701	11,376	89.6	11,067	97.3	309	2.7	218	70.6	91	29.4
15차('12)	12,794	11,442	89.4	11,127	97.2	315	2.8	209	66.3	106	33.7
16차('13)	12,785	11,329	88.6	11,079	97.8	250	2.2	180	72.0	70	28.0
17차('14)	12,859	10,752	83.6	10,673	99.3	79	0.7	33	41.8	46	58.2
18차('15)	12,900	11,434	88.6	11,018	96.3	416	3.6	345	82.9	71	17.1
19차('16)	12,959	11,618	89.7	11,319	97.4	299	2.6	222	74.2	77	25.8
20차('17)	13,065	11,839	90.6	11,571	97.7	268	2.3	203	75.7	65	24.3
21차('18)	13,082	11,835	90.5	11,553	97.6	282	2.4	217	77.0	65	23.0
22차('19)	13,109	11,818	90.2	11,548	97.7	270	2.3	213	78.9	57	21.1
23차('20)	13,006	11,738	90.3	11,499	98.0	239	2.0	196	82.0	43	18.0
24차('21)	12,973	11,726	90.4	11,464	98.0	262	2.2	220	84.0	42	16.0
25차('22)	12,904	11,882	92.1	11,573	99.0	309	2.6	249	80.6	60	19.4
26차('23)	12,944	11,976	92.5	11,710	100.0	266	2.2	214	80.5	52	19.5

제6절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 개요

1.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의 개요

KLIPS는 도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26차년도 현재 원가구 3,028가구와 분가가구 2,84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표본유지율은 60.6%, 원가구 중 소멸가구를 제외한 4,46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표본유지율은 67.8%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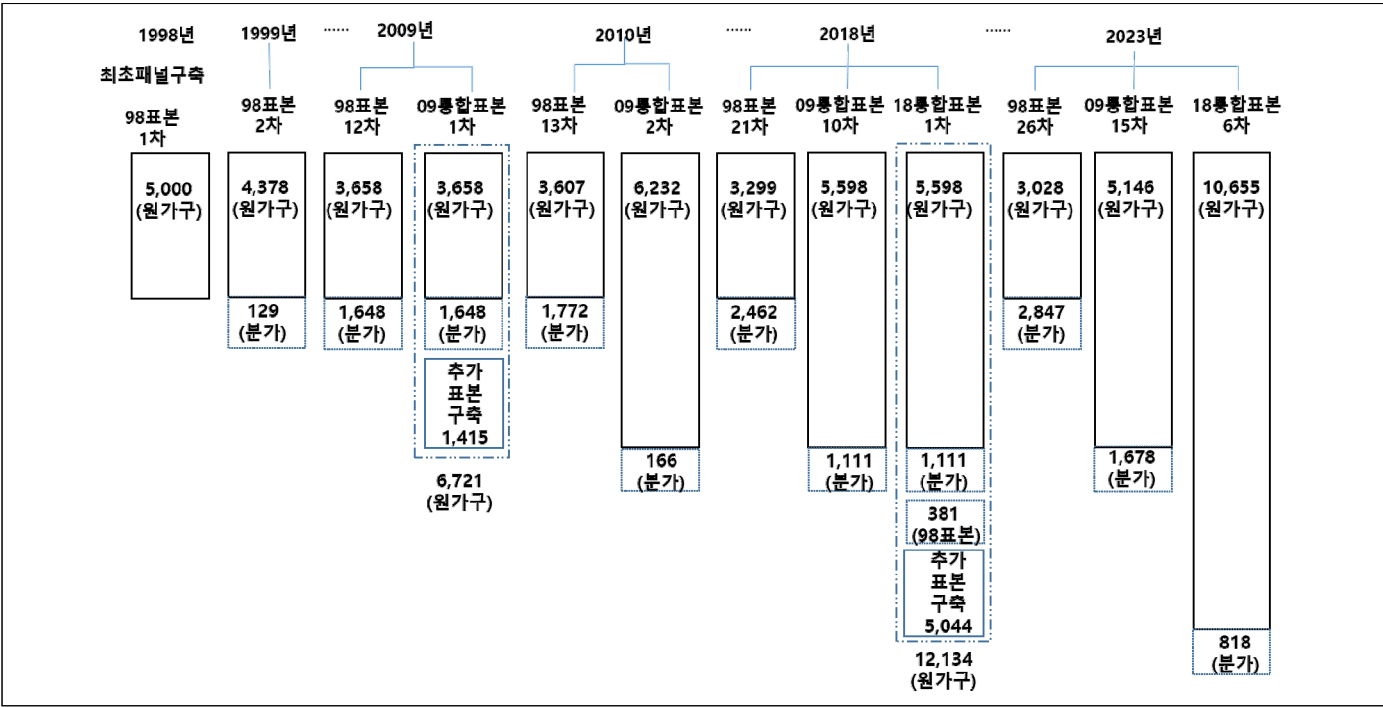
KLIPS는 2009년과 2018년 두 번의 표본추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를 실시하였다.¹¹⁾ 표본 추가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총 1,415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둘째, 2018년 20년 넘게 패널조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표본 이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5,044가구의 대규모 표본 추가를 진행하였다.¹²⁾ 이에 KLIPS는 1차년도부터 이어온 98표본과 2009년 표본 추가를 통한 09통합표본, 2018년도 표본 추가를 통한 18통합표본으로 세 개의 패널을 한 데이터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09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2-3]을 살펴보면, 98표본은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6년 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패널이다. 09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3,658가구와 분가가구 1,648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09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23년까지 15년

11) 2009년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3)를 참조.

12) 2018년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유빈 외(2019),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IX)』, 『한국노동패널조사 신규패널 특성 분석』(변종석·이혜정 저술)을 참조.

[그림 2-3]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의 개요



주 :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가 다음 해인 2010년에 조사되었을 경우, 98표본에 포함되지만 09통합표본의 원가에는 속하지 않았으므로 09통합표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09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18통합표본도 마찬가지임.

동안 조사 대상이 되었다.

18통합표본은 2018년 조사 당시 추가 표집된 5,044가구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응답가구 전체(12,134가구)를 원가구로 하는 표본을 의미한다. 즉 09통합표본 원가구 5,598가구, 09통합표본 분가가구 1,111가구, 09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98표본 381가구, 18년도 추가표본 5,044가구를 모두 더한 12,134가구를 원가구로 한다. 2023년 현재 5년 동안 12,134가구를 원가구로 정의하여 조사되었다.

2. 09통합표본 특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된 2009년의 추가 표본을 포함한 KLIPS 09통합표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09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가구는 6,721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4,48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2.7%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차년도의 원표본유지율은 76.6%로 매우 안정적인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25년 이상 축적되었고,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과 조사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 실시된 제26차 KLIPS 조사에서 09통합표본은 원표본 5,146가구 및 분가한 1,678가구를 합하여 총 6,824가구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76.6%로 전년도에 비해 0.8%포인트 감소하였다.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18>은 09통합표본 1~15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8,670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77.4%(6,707가구), 분가가구는 22.6%(1,963가구)이다. 1~15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는 원가구 대비 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

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9%(260가구)로 나타났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15회를 모두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12.5%인데, 여기에는 해당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2-17〉 연도별 조사 결과(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명)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 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수 ⁵⁾	실사 기간
1차(09)	6,721	6,721	6,721	100.0	100.0	-	14,489	3~11
2차(10)	6,691	6,398	6,232	92.7	93.1	166	13,639	7~12
3차(11)	6,673	6,388	6,082	90.5	91.1	306	13,409	7~익년2
4차(12)	6,640	6,433	6,016	89.5	90.6	417	13,422	6~12
5차(13)	6,596	6,455	5,904	87.8	89.5	551	13,298	6~12
6차(14)	6,588	6,490	5,840	86.9	88.6	650	12,591	3~10
7차(15)	6,530	6,575	5,793	86.2	88.7	782	13,368	4~11
8차(16)	6,505	6,632	5,728	85.2	88.1	904	13,517	4~11
9차(17)	6,475	6,683	5,674	84.4	87.6	1,009	13,768	4~11
10차(18)	6,430	6,709	5,598	83.3	87.1	1,111	13,737	3~11
11차(19)	6,386	6,729	5,517	82.1	86.4	1,212	13,704	4~11
12차(20)	6,324	6,708	5,405	80.4	85.5	1,303	13,573	5~익년2
13차(21)	6,265	6,725	5,317	79.1	84.9	1,408	13,525	4~11
14차(22)	6,204	6,744	5,204	77.4	83.9	1,540	13,693	4~12
15차(23)	6,151	6,824	5,146	76.6	83.7	1,678	13,779	4~11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하는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표 2-18〉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505	5.8	260	3.9	245	12.5
2회	347	4.0	154	2.3	193	9.8
3회	310	3.6	138	2.1	172	8.8
4회	251	2.9	109	1.6	142	7.2
5회	224	2.6	92	1.4	132	6.7
6회	219	2.5	98	1.5	121	6.2
7회	202	2.3	76	1.1	126	6.4
8회	216	2.5	93	1.4	123	6.3
9회	250	2.9	108	1.6	142	7.2
10회	214	2.5	106	1.6	108	5.5
11회	262	3.0	129	1.9	133	6.8
12회	249	2.9	143	2.1	106	5.4
13회	341	3.9	229	3.4	112	5.7
14회	568	6.6	460	6.9	108	5.5
15회	4,512	52.0	4,512	67.3	-	0.0
전체	8,670	100.0	6,707	100.0	1,963	100.0

〈표 2-19〉는 연도별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개인 설문 응답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통합 1~15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19,807명이었고, 조사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7,127명으로 원표본가구원이 전체의 39.4%를 차지한다.¹³⁾

13)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9〉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09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1회	1,304	6.6	1,083	6.0	221	12.7
2회	1,025	5.2	806	4.5	219	12.6
3회	885	4.5	756	4.2	129	7.4
4회	791	4.0	639	3.5	152	8.7
5회	774	3.9	609	3.4	165	9.5
6회	744	3.8	602	3.3	142	8.2
7회	723	3.7	600	3.3	123	7.1
8회	755	3.8	625	3.5	130	7.5
9회	771	3.9	660	3.7	111	6.4
10회	639	3.2	572	3.2	67	3.8
11회	781	3.9	706	3.9	75	4.3
12회	817	4.1	737	4.1	80	4.6
13회	1,119	5.6	1,042	5.8	77	4.4
14회	1,552	7.8	1,502	8.3	50	2.9
15회	7,127	36.0	7,127	39.4	0	0.0
전체	19,807	100.0	18,066	100.0	1,741	100.0

〈표 2-20〉은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5차년도 신규 분가가구는 99가구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분가가구는 1,678가구로 전체 가구(6,824가구)의 24.6%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1〉이다. 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조사 대상자인 15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14,859명이었고, 이 중 92.7%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1.6%에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15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2%(298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78.5%,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21.5%(64명)로 조사되었다.

〈표 2-20〉 연도별 분가가구 수(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10)	6,398	0	166	166	2.6
3차('11)	6,388	184	122	306	4.8
4차('12)	6,433	315	102	417	6.5
5차('13)	6,455	443	108	551	8.5
6차('14)	6,490	564	86	650	10.0
7차('15)	6,575	668	114	782	11.9
8차('16)	6,632	809	95	904	13.6
9차('17)	6,683	923	86	1009	15.1
10차('18)	6,709	1,006	105	1,111	16.6
11차('19)	6,729	1,131	81	1,212	18.0
12차('20)	6,708	1,218	85	1,303	19.4
13차('21)	6,725	1,310	98	1,408	20.9
14차('22)	6,744	1,426	114	1,540	22.8
15차('23)	6,824	1,579	99	1,678	24.6

〈표 2-21〉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09통합표본)

(단위 :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조사자		신규조사자		만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09)	15,819	14,489	91.6	14,489	100.0	-	-	-	-	-	-
2차('10)	15,013	13,639	90.8	13,175	96.6	464	3.4	322	69.4	142	30.6
3차('11)	14,864	13,409	90.2	12,988	96.9	421	3.1	318	75.5	103	24.5
4차('12)	14,914	13,422	90.0	13,046	97.2	376	2.8	260	69.1	116	30.9
5차('13)	14,913	13,298	89.2	12,980	97.6	318	2.4	240	75.5	78	24.5
6차('14)	14,923	12,591	84.4	12,487	99.2	104	0.8	47	45.2	57	54.8
7차('15)	14,993	13,368	89.2	12,894	96.5	474	3.5	400	84.4	74	15.6
8차('16)	15,001	13,517	90.1	13,175	97.5	342	2.5	257	75.1	85	24.9
9차('17)	15,115	13,768	91.1	13,444	97.6	324	2.4	238	73.5	86	26.5
10차('18)	15,114	13,737	90.9	13,416	97.7	321	2.3	242	75.4	79	24.6
11차('19)	15,141	13,704	90.5	13,394	97.7	310	2.3	246	79.4	64	20.6
12차('20)	14,998	13,573	90.5	13,307	98.0	266	2.0	217	81.6	49	18.4
13차('21)	14,923	13,525	90.6	13,241	97.9	284	2.1	232	81.7	52	18.3
14차('22)	14,825	13,693	92.4	13,342	97.4	351	2.6	271	77.2	80	22.8
15차('23)	14,859	13,779	92.7	13,481	97.8	298	2.2	234	78.5	64	21.5

3. 18통합표본 특성

2018년 추가된 표본을 포함한 18통합표본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 보면 <표 2-22>와 같다. 18통합표본 1차년도(2018년)에 조사된 가구는 12,134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23,971명이었다.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4.5%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에 실시된 제26차 KLIPS 조사(18통합표본 기준 6차 조사)에서 18통합표본은 원표본 10,655가구 및 분가한 818가구를 합하여 총 11,473가구를 성공하였고, 원표본유지율은 87.8%였다.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23>은 조사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

<표 2-22> 연도별 조사 결과(18통합표본)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 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수 ⁵⁾	실사 기간
1차('18)	12,134	12,134	12,134	100.0	100.0	0	23,971	3~익년1
2차('19)	12,083	11,585	11,471	94.5	94.9	114	23,012	4~11
3차('20)	11,992	11,509	11,253	92.7	93.8	256	22,711	5~익년2
4차('21)	11,892	11,462	11,041	91.0	92.8	421	22,676	4~11
5차('22)	11,785	11,466	10,819	89.2	91.8	647	22,930	4~12
6차('23)	11,697	11,473	10,655	87.8	91.1	818	22,937	4~11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하는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12,134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12,134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12,134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13,005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93.3%(12,133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6.7%(872가구)이다.

〈표 2-24〉는 연도별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

〈표 2-23〉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8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657	5.1	428	3.5	229	26.3
2회	531	4.1	293	2.4	238	27.3
3회	454	3.5	284	2.3	170	19.5
4회	472	3.6	338	2.8	134	15.4
5회	689	5.3	588	4.8	101	11.6
6회	10,202	78.4	10,202	84.1	-	-
전체	13,005	100.0	12,133	100.0	872	100.0

〈표 2-24〉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18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1회	1,833	6.6	1,670	6.2	163	26.8
2회	1,736	6.3	1,568	5.8	168	27.6
3회	1,605	5.8	1,487	5.5	118	19.4
4회	1,891	6.9	1,800	6.7	91	14.9
5회	2,675	9.7	2,606	9.7	69	11.3
6회	17,863	64.7	17,863	66.2	0	-
전체	27,603	100.0	26,994	100.0	609	100.0

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조사기간 동안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27,603명이고, 조사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17,863명으로 원표본가구원이 전체의 66.2%를 차지한다.¹⁴⁾

〈표 2-25〉는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8통합표본 6차년도(2023)의 신규 분가가구는 138가구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분가가구는 818가구로 전체 가구(11,473가구)의 7.1%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표 2-25〉 연도별 분가가구 수(18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19)	11,585	1	113	114	1.0
3차(20)	11,509	130	126	256	2.2
4차(21)	11,462	285	136	421	3.7
5차(22)	11,466	466	181	647	5.6
6차(23)	11,473	680	138	818	7.1

〈표 2-26〉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18통합표본)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조사자		신규조사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18)	26,837	23,971	89.3	23,971	100.0	-	-	-	-	-	-
2차(19)	25,601	23,012	89.9	22,309	96.9	703	3.1	606	86.2	97	13.8
3차(20)	25,318	22,711	89.7	22,261	98.0	450	2.0	372	82.7	78	17.3
4차(21)	25,058	22,676	90.5	22,085	97.4	591	2.6	506	85.6	85	14.4
5차(22)	24,874	22,930	92.2	22,269	97.1	661	2.9	540	81.7	121	18.3
6차(23)	24,695	22,937	92.9	22,433	97.8	504	2.2	406	80.6	98	19.4

14)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6>이다. 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조사대상자인 15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24,695명이었고, 이 중 92.9%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6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2%(504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80.6%,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19.4%(98명)로 조사되었다.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 장에서는 09통합표본 15차년도 KLIPS에 성공한 6,824가구와 그 가구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5년간의 KLIPS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09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KLIPS에서 가

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¹⁵⁾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군복무, 학업이나 직장,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숙식을 함께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는 점에서 KLIPS의 가구원 정의와 약간 다르다.

〈표 3-1〉은 연도별로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 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1차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인이었으며 2, 3차년도를 제외(2.9인)하고는 2.8인을 유지하다가 8차년도부터 약간 감소한 2.7인을 유지했다. 이후 13차년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15차년도에는 2.5인으로 나타났다. 15차년도의 가구원 수 분포는 1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29.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인(23.9%), 4인(21.9%)과 3인(20.0%)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인 가구와 1인 가구 분포 차이는 2차년도 11.0%포인트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3차년도에 처음으로 1인 가구 비중이 4인 가구 비중에 비해 높아졌고, 15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7.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¹⁶⁾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 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 표집된 탓으로 보인다.

15)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16)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5%, 2012년 25.2%, 2013년 25.9%, 2014년 26.5%, 2015년 27.0%, 2016년 27.7%, 2017년 28.3%, 2018년 29.0%, 2019년 29.9%, 2020년 31.2%, 2021년 32.8%, 2022년 33.3%, 2023년 33.6%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인)
1차(09)	6,721	21.0	21.0	20.4	29.7	6.4	1.6	2.8
2차(10)	6,398	19.9	20.4	20.4	30.9	7.0	1.5	2.9
3차(11)	6,388	21.0	20.4	19.8	30.8	6.6	1.3	2.9
4차(12)	6,433	21.6	20.5	19.4	30.7	6.6	1.4	2.8
5차(13)	6,455	21.7	21.0	19.6	30.0	6.4	1.4	2.8
6차(14)	6,490	22.2	21.0	19.5	29.7	6.4	1.3	2.8
7차(15)	6,575	22.8	21.0	19.3	29.7	6.0	1.2	2.8
8차(16)	6,632	23.5	21.3	20.3	27.8	5.9	1.1	2.7
9차(17)	6,683	23.7	21.5	20.4	27.7	5.8	1.1	2.7
10차(18)	6,709	24.5	22.1	20.1	27.0	5.2	1.2	2.7
11차(19)	6,729	24.4	22.3	20.6	26.4	5.2	1.1	2.7
12차(20)	6,708	25.3	22.8	19.9	25.9	5.2	0.9	2.7
13차(21)	6,725	27.0	22.4	20.2	24.4	5.0	0.9	2.6
14차(22)	6,744	28.4	22.9	20.0	23.5	4.4	0.7	2.5
15차(23)	6,824	29.4	23.9	20.0	21.9	4.3	0.6	2.5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¹⁷⁾을 15차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

17)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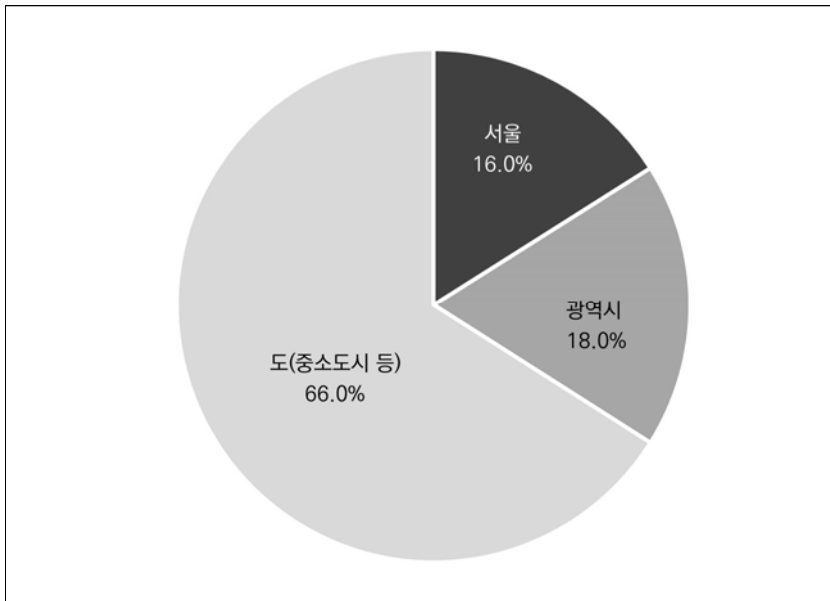
	전체 (가구 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09)	6,721	21.0	16.4	57.7	4.9	0.0
2차(10)	6,398	19.9	15.7	59.6	4.8	0.0
3차(11)	6,388	21.0	15.9	58.6	4.5	0.0
4차(12)	6,433	21.6	15.6	58.7	4.1	0.0
5차(13)	6,455	21.7	16.1	58.4	3.9	0.0
6차(14)	6,490	22.2	16.2	57.8	3.9	0.0
7차(15)	6,575	22.8	16.1	57.7	3.5	0.0
8차(16)	6,632	23.5	16.5	56.7	3.4	0.0
9차(17)	6,683	23.7	16.8	56.1	3.3	0.0
10차(18)	6,709	24.5	17.5	54.9	3.1	0.0
11차(19)	6,729	24.4	17.6	55.0	2.9	0.0
12차(20)	6,708	25.3	17.8	54.2	2.7	0.0
13차(21)	6,725	27.0	17.8	52.8	2.4	0.0
14차(22)	6,744	28.4	18.0	51.6	2.0	0.0
15차(23)	6,824	29.4	18.6	50.1	1.9	0.0

가 5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8.6%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29.4%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1.9%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의 비중은 7차년도 16.1%에서 꾸준히 증가해 15차년도 조사에서는 18.6%로 나타났으나, 2세대 가구는 2차년도 59.6%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15차년도 조사에서는 9.5%포인트 감소한 50.1%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은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15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66.0%가 도 지역에 거주

[그림 3-1] 15차(2023)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09통합표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16.0%, 광역시 지역에는 18.0%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 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15차년도 기준으로 보면,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40.9%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7.9%, 편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7.3%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0.1%에서 2차년도 (71.8%)까지는 약간 증가하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5차년도에 66.1%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9년 62.4%, 2010년 61.7%, 2011년 61.1%, 2012년 60.5%, 2013년 59.9%, 2014년 59.2%, 2015년 58.8%, 2016년 58.0%, 2017년 57.5%, 2018년 57.1%, 2019년

56.6%, 2020년 55.9%, 2021년 54.8%, 2022년 54.5%, 2023년 54.2%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11.9%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 수)	핵가족 가구				1인 가구	비핵가구
			부부 단독	부모 + 미혼 자녀	편부모 + 미혼 자녀		
1차(09)	6,721	70.1	15.5	47.6	7.1	21.0	8.9
2차(10)	6,398	71.8	14.8	49.7	7.3	19.9	8.3
3차(11)	6,388	71.0	15.0	49.0	7.1	21.0	8.0
4차(12)	6,433	70.8	14.9	48.8	7.1	21.6	7.6
5차(13)	6,455	70.9	15.3	48.5	7.2	21.7	7.4
6차(14)	6,490	70.7	15.5	48.1	7.1	22.2	7.2
7차(15)	6,575	70.4	15.2	47.8	7.5	22.8	6.8
8차(16)	6,632	69.9	15.7	46.8	7.4	23.5	6.5
9차(17)	6,683	70.0	16.1	46.8	7.1	23.7	6.3
10차(18)	6,709	69.5	16.8	45.9	6.8	24.5	6.0
11차(19)	6,729	69.8	16.9	45.7	7.1	24.4	5.8
12차(20)	6,708	69.0	17.0	44.8	7.2	25.3	5.7
13차(21)	6,725	67.7	17.1	43.8	6.9	27.0	5.2
14차(22)	6,744	66.8	17.3	42.3	7.2	28.4	4.8
15차(23)	6,824	66.1	17.9	40.9	7.3	29.4	4.5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 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⁸⁾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제1절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5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5.7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3.8%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나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높은 40.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2.3%), 40대(19.0%)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늘어 15차년도에는 46.6%까지 증가하였다.

18)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6,513	6,203	6,176	6,240	6,240	6,165	6,331	6,445	6,512	6,519	6,503	6,489	6,510	6,551	6,643
성별	남성	79.1	78.5	78.8	78.2	78.1	77.9	77.8	77.4	76.8	76.7	76.2	75.9	75.2	74.7	73.8
	여성	20.9	21.5	21.2	21.8	21.9	22.1	22.2	22.6	23.2	23.3	23.8	24.1	24.8	25.3	26.2
혼인 상태	미혼	12.7	12.1	13.0	13.6	13.6	14.8	14.0	14.4	14.0	14.2	13.8	14.6	15.7	16.3	17.1
	기혼유배우	68.1	68.1	67.8	66.9	66.6	65.9	65.7	65.4	65.5	65.0	65.0	63.6	62.3	61.3	60.3
	기혼무배우	19.3	19.8	19.2	19.5	19.8	19.4	20.3	20.3	20.5	20.8	21.3	21.8	22.0	22.4	22.6
연령	30세 미만	6.8	6.9	7.0	6.0	5.7	6.6	5.2	5.3	5.1	4.7	4.0	4.5	4.7	4.9	4.8
	30대	20.7	19.8	20.0	19.8	19.0	18.8	17.8	17.1	16.6	16.6	16.4	15.3	14.8	13.5	13.3
	40대	25.9	24.7	24.2	24.2	23.9	23.5	23.3	22.9	22.0	21.5	20.8	20.1	19.6	19.5	19.0
	50대	21.1	21.7	22.4	22.9	23.2	22.8	23.3	23.4	23.6	23.4	23.4	23.3	22.5	22.7	22.3
	60세 이상	25.6	27.0	26.4	27.2	28.3	28.4	30.4	31.3	32.7	33.9	35.4	36.9	38.4	39.5	40.6
	평균(세)	49.8	50.3	50.2	50.7	51.3	51.1	52.1	52.6	53.1	53.6	54.2	54.6	54.9	55.3	55.7
교육 수준	무학	4.7	4.6	4.1	4.0	4.1	3.8	3.7	3.5	3.5	3.5	3.3	3.2	3.2	2.8	2.5
	고졸 미만	25.7	25.3	23.8	23.1	22.7	21.6	21.7	21.3	20.9	20.2	20.2	19.7	19.2	18.8	18.6
	고졸	30.8	30.3	30.5	30.4	30.0	29.5	29.4	29.1	29.2	28.9	28.7	28.6	28.3	28.0	28.0
	대재 및 중퇴	3.9	3.6	4.0	3.8	3.9	4.3	4.3	4.4	4.2	4.2	4.1	4.3	4.3	4.3	4.4
	(전문)대졸 이상	34.9	36.2	37.6	38.6	39.3	40.8	40.9	41.8	42.3	43.1	43.7	44.2	44.9	46.1	46.6

2. 가구원의 특성

〈표 3-5〉에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0.2%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약 50%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5차년도 평균연령은 48.6세로 나타났다.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29.8%로 1차년도(17.8%)에 비해 12.0%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9.6%)에 비해 4.6%포인트가 하락한 5.0%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는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가 30대와 40대이지만 차수가 지날수록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30대가 14.9%이고 50대 이상은 48.5%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각각 25.7%와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0%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3-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09통합표본)

		(단위 :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14,489	13,639	13,409	13,422	13,298	12,591	13,368	13,517	13,768	13,737	13,704	13,573	13,525	13,693	13,779
성별	남성	49.9	49.3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8	49.8	49.8	49.9
	여성	50.2	50.8	50.1	50.1	50.2	50.1	50.1	50.1	50.1	50.1	50.1	50.2	50.2	50.2	50.2
연령	15~19세	9.6	8.6	8.2	8.1	7.8	7.6	7.2	7.1	6.7	6.3	5.9	5.5	5.1	5.0	5.0
	20~24세	6.1	6.8	7.3	7.8	8.0	7.7	7.8	7.9	7.9	7.6	7.7	7.3	7.0	6.4	6.1
	25~29세	9.9	9.6	8.9	8.0	7.6	7.8	7.6	7.5	7.6	8.0	7.8	8.2	8.2	8.3	8.2
	30~39세	20.3	19.4	19.5	19.1	18.7	18.2	17.5	17.3	16.9	16.6	16.2	15.8	15.3	15.0	14.9
	40~49세	20.9	20.4	20.4	20.3	20.1	20.2	19.8	19.6	19.2	18.9	18.4	18.1	17.9	17.7	17.4
	50~59세	15.5	16.3	17.1	17.6	18.2	18.5	18.6	18.7	18.8	18.8	19.0	18.8	18.7	18.8	18.7
	60세 이상	17.8	18.9	18.5	19.1	19.7	20.3	21.4	22.0	22.9	23.9	25.0	26.3	27.7	28.7	29.8
	평균(세)	42.7	43.4	43.5	43.8	44.3	44.7	45.1	45.4	45.9	46.3	46.8	47.3	47.8	48.2	48.6
혼인 상태	미혼	31.0	29.5	29.8	30.3	30.0	29.6	30.0	30.4	30.6	30.5	30.6	30.8	31.1	31.5	31.8
	기혼유배우	58.8	59.6	59.8	59.3	59.3	59.7	59.0	58.8	58.6	58.6	58.3	57.8	57.3	56.6	56.2
	기혼무배우	10.3	10.8	10.4	10.5	10.7	10.7	11.0	10.8	10.8	10.9	11.1	11.5	11.7	12.0	12.1
교육 수준	무학	4.0	3.9	3.5	3.4	3.3	3.1	3.0	2.8	2.7	2.6	2.5	2.4	2.3	2.2	2.0
	고졸 미만	28.8	27.4	26.2	25.1	24.8	23.6	23.1	22.4	21.9	21.3	20.8	19.9	19.4	18.8	18.9
	고졸	27.7	27.8	27.6	27.6	27.2	27.1	26.8	26.8	26.5	26.3	26.1	25.9	26.0	25.9	25.7
	대재 및 중퇴	9.2	9.7	10.2	10.3	10.5	10.6	10.7	10.8	10.4	10.1	10.0	9.9	9.4	9.3	9.1
	전문대졸 대졸 이상	10.3	10.8	11.1	11.1	11.2	11.7	11.8	12.1	12.3	12.6	12.7	13.4	13.7	13.6	13.6
		20.0	20.4	21.4	22.4	23.0	24.0	24.5	25.2	26.2	27.1	28.0	28.5	29.2	30.2	30.8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 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⁹⁾

〈표 3-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09통합표본)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1차('09)	238	130	108	54.6	45.4
2차('10)	248	130	118	52.4	47.6
3차('11)	222	119	103	53.6	46.4
4차('12)	192	107	85	55.7	44.3
5차('13)	192	106	86	55.2	44.8
6차('14)	142	66	76	46.5	53.5
7차('15)	205	113	92	55.1	44.9
8차('16)	149	74	75	49.7	50.3
9차('17)	153	78	75	51.0	49.0
10차('18)	165	81	84	49.1	50.9
11차('19)	141	80	61	56.7	43.3
12차('20)	137	80	57	58.4	41.6
13차('21)	91	46	45	50.5	49.5
14차('22)	121	66	55	54.5	45.5
15차('23)	106	49	57	46.2	53.8
전 체	2,502	1,325	1,177	53.0	47.0

19) 이 절의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8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15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2,502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1차년도 238명, 2차년도 248명, 3차년도 222명, 4차년도 192명, 5차년도 192명, 6차년도 142명, 7차년도 205명, 8차년도 149명, 9차년도 153명, 10차년도 165명, 11차년도 141명, 12차년도 137명, 13차년도 91명, 14차년도 121명, 15차년도 10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15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총사망자는 1,161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97명, 3차년도 87명, 4차년도 82명, 5차년도 90명, 6차년도 51명, 7차년도 82명, 8차년도 73명, 9차년도 67명, 10차년도 96명, 11차년도 68명, 12차년도 91명, 13차년도 82명, 14차년도 114명, 15차년도 81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차수에서 남성 사망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15차년도 기준 남성이 58.0%(47명)로 여성 42.0%(34명)에 비해 16.0%포인트 정도 높다. 15차년도를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9.9%이며, 50~59세는 2.5%, 60~69세는 4.9%, 70~79세는 22.2%, 80세 이상은 60.5%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72.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15차년도에는 77.3세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사망자의 연령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을 통해 15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44.4%로 가장 높았고 노환 43.2%, 사고 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09통합표본)

(단위 : 명, %)

		전체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1,161	97	87	82	90	51	82	73	67	96	68	91	82	114	81
성별	남성	687 (59.2)	62 (63.9)	42 (48.3)	47 (57.3)	58 (64.4)	30 (58.8)	47 (57.3)	39 (53.4)	35 (52.2)	55 (57.3)	47 (69.1)	57 (62.6)	48 (58.5)	73 (64.0)	47 (58.0)
	여성	474 (40.8)	35 (36.1)	45 (51.7)	35 (42.7)	32 (35.6)	21 (41.2)	35 (42.7)	34 (46.6)	32 (47.8)	41 (42.7)	21 (30.9)	34 (37.4)	34 (41.5)	41 (36.0)	34 (42.0)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82 (7.1)	10 (10.3)	7 (8.1)	7 (8.5)	8 (8.9)	6 (11.8)	5 (6.1)	0 (0.0)	5 (7.5)	6 (6.3)	6 (8.8)	5 (5.5)	7 (8.5)	2 (1.8)	8 (9.9)
	50~59세	77 (6.6)	7 (7.2)	7 (8.1)	5 (6.1)	5 (5.6)	1 (2.0)	8 (9.8)	7 (9.6)	4 (6.0)	6 (6.3)	8 (11.8)	8 (8.8)	5 (6.1)	4 (3.5)	2 (2.5)
	60~69세	153 (13.2)	16 (16.5)	10 (11.5)	12 (14.6)	20 (22.2)	9 (17.7)	5 (6.1)	8 (11.0)	8 (11.9)	11 (11.5)	12 (17.7)	12 (13.2)	7 (8.5)	19 (16.7)	4 (4.9)
	70~79세	320 (27.6)	30 (30.9)	28 (32.2)	21 (25.6)	27 (30.0)	18 (35.3)	31 (37.8)	19 (26.0)	18 (26.9)	25 (26.0)	14 (20.6)	22 (24.2)	20 (24.4)	29 (25.4)	18 (22.2)
	80세 이상	529 (45.6)	34 (35.1)	35 (40.2)	37 (45.1)	30 (33.3)	17 (33.3)	33 (40.2)	39 (53.4)	32 (47.8)	48 (50.0)	28 (41.2)	44 (48.4)	43 (52.4)	60 (52.6)	49 (60.5)
평균연령		75.5	72.5	74.5	74.9	72.7	71.5	76.0	78.5	74.9	76.8	72.9	75.4	77.6	78.6	77.3

〈표 3-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09통합표본)

(단위 : %)

	노환	사고	질병	기타
2차(10)	45.4	9.3	44.3	1.0
3차(11)	44.8	13.8	40.2	1.2
4차(12)	47.6	8.5	42.7	1.2
5차(13)	35.6	8.9	53.3	2.2
6차(14)	37.3	9.8	52.9	0.0
7차(15)	40.2	7.3	51.2	1.2
8차(16)	56.2	4.1	38.4	1.4
9차(17)	46.3	4.5	46.3	3.0
10차(18)	41.7	6.3	50.0	2.1
11차(19)	39.7	8.8	50.0	1.5
12차(20)	38.5	5.5	56.0	0.0
13차(21)	50.0	7.3	40.2	2.4
14차(22)	36.8	7.0	55.3	0.9
15차(23)	43.2	9.9	44.4	2.5

제 4 장

가계경제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09통합표본 15차년도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참고로 설문 구조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은 98표본의 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하는 09통합표본의 조사 차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09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혔다. 또한 1~15차년도의 연간 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1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98표본) 조사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의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또한 13차년도(09통합표본 2차년도) 조사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를 묻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19차년도(09통합표본 8차년도) 조사부터는 2015년에 추가된 제도인 자녀장려금의 수급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한편 24차년도(09통합표본 13차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금이 조사되기 시작했으며, 모두 이전소득 총액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

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 소득 또한 9차년도(98표본)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²⁰⁾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 [26차년도(09통합표본 15차년도)의 경우 2022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98표본)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 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 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에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년간의 온전한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¹⁾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6,070만 원(월평균 약 50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²²⁾하면 14차년도에 비해 21만 원 감소한 5,636만 원으로

20) 8차년도에 조사된 기타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으로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 - 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21)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 (통권 14호) 참조.

22) 실질소득 = (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2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명목소득	3,516 (0.015)	3,843 (0.015)	3,919 (0.013)	4,119 (0.012)	4,338 (0.013)	4,525 (0.013)	4,655 (0.013)	4,791 (0.014)
실질소득	4,304	4,580	4,536	4,582	4,725	4,865	4,941	5,048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명목소득	5,036 (0.015)	5,164 (0.014)	5,173 (0.013)	5,633 (0.045)	5,840 (0.048)	5,798 (0.016)	6,070 (0.013)	
실질소득	5,257	5,291	5,220	5,661	5,840	5,657	5,636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1차년도에는 4,304만 원이며, 2차년도에 4,58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4,536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4차년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1차년도에 물가 상승에 비해 명목소득 증가폭이 낮아서 오히려 감소하였다가 12차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13차년도에는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나, 15차년도에는 5,636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2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표 4-2〉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1.4%이며, 연평균 근로소득은 6,207만 원으로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 소득과 부동산소득이

(2008년 81.7, 2009년 83.9, 2010년 86.4, 2011년 89.9, 2012년 91.8, 2013년 93.0, 2014년 94.2, 2015년 94.9, 2016년 95.8, 2017년 97.6, 2018년 99.1, 2019년 99.5, 2020년 100.0, 2021년 102.5, 2022년 1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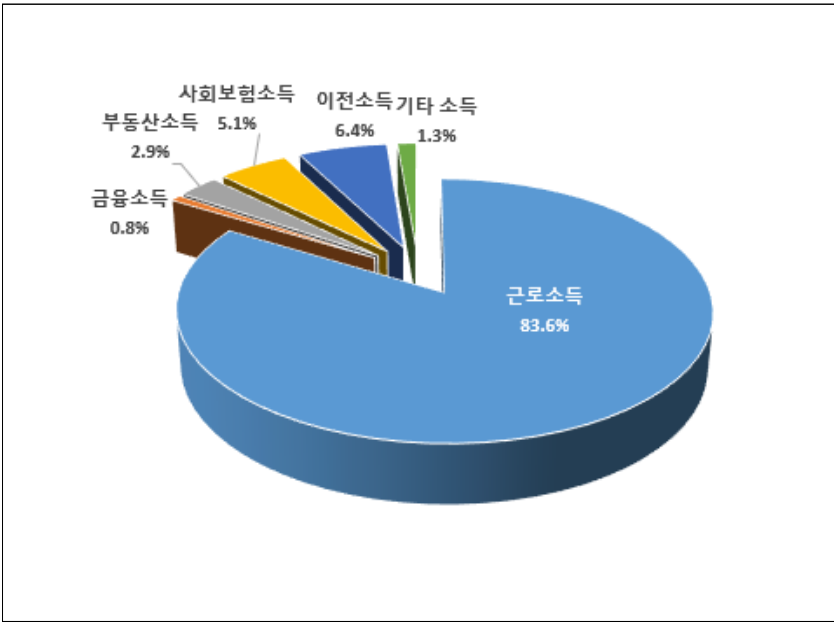
2,470만 원, 2,050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소득은 연평균 304만 원으로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으며, 이전소득도 584만 원으로 높지 않았다. 다만,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전체 가구 중 66.0%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4-2〉 15차(2023)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

	연평균 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6,207	81.4
금융소득	304	15.1
부동산소득	2,050	8.5
사회보험소득	1,227	24.9
이전소득	584	66.0
기타 소득	2,470	3.3

[그림 4-1] 15차(2023)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09통합표본)



한편, [그림 4-1]은 15차년도 가구의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나타내며,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먼저, 전체 가구총소득 및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을 구한다.

전체 가구총소득은 개별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

$$\text{전체 가구총소득} = \sum_{i=1}^N \text{가구총소득}_i$$

여기서, 가구총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의미하고, *i* = 1, ..., *N*(가구의 수)이다.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예로 설명하면, 전체 근로소득은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text{전체 근로소득} = \sum_{i=1}^N \text{근로소득}_i$$

여기서, 근로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근로소득이다.

최종 구하고자 하는 근로소득 비중은 다음 식과 같으며,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전체 근로소득 비중을 계산하면 된다.

$$\text{근로소득 비중} = \frac{\text{전체 근로소득}}{\text{전체 가구총소득}} \times 100$$

나머지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비중도 근로소득 비중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역시 근로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6%로 가장 높다. 이전소득액은 가구총소득액에서 6.4%를 차지하여 둘째로 높았다.

그다음으로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총소득액에서 5.1%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았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총소득 중 0.8%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26차년도(09통합표본 15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26차년도(09통합표본 15차년도)의 경우 2022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주거비·식품비·보건의료비·교통통신비·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 TV·위성 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용돈 항목을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

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09통합표본 1~15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15차년도의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9만 원 정도 상승한 2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조사 이후 처음으로 12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13차년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표 4-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501	6,333	6,304	6,353	6,377	6,471	6,561	6,614
50만 원 미만	9.4	6.5	6.7	5.6	5.8	4.9	4.2	3.7
50만~100만 원 미만	14.3	13.6	13.0	11.8	11.4	11.3	11.2	10.6
100만~150만 원 미만	16.0	16.2	15.0	14.9	14.3	13.3	13.3	14.0
150만~200만 원 미만	15.9	15.9	13.9	14.1	13.7	14.9	14.4	13.4
200만~250만 원 미만	14.9	15.0	15.2	15.0	15.4	15.1	14.5	14.6
250만~300만 원 미만	9.8	10.2	10.3	10.7	10.1	10.1	11.3	11.2
300만 원 이상	19.7	22.7	26.0	28.1	29.4	30.4	31.2	32.6
월평균 생활비(만 원) (변동계수)	194 (0.010)	204 (0.010)	215 (0.010)	224 (0.010)	227 (0.010)	231 (0.010)	234 (0.010)	239 (0.010)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6,664	6,688	6,701	6,687	6,695	6,715	6,796	
50만 원 미만	3.0	3.1	3.0	2.5	2.4	1.6	1.3	
50만~100만 원 미만	10.7	10.3	10.2	9.6	10.2	10.1	8.9	
100만~150만 원 미만	13.5	12.5	11.7	12.8	13.2	12.7	13.2	
150만~200만 원 미만	12.6	13.2	13.2	12.8	12.6	12.7	12.4	
200만~250만 원 미만	14.8	13.6	13.4	13.6	13.3	13.1	13.3	
250만~300만 원 미만	10.4	11.2	10.3	10.7	9.7	9.8	9.5	
300만 원 이상	35.0	36.2	38.3	38.0	38.6	40.0	41.5	
월평균 생활비(만 원) (변동계수)	247 (0.010)	249 (0.010)	257 (0.010)	254 (0.010)	256 (0.010)	265 (0.010)	274 (0.009)	

〈표 4-4〉 15차(2023)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54	19.8
외식비	16	5.9
공교육비	6	2.1
사교육비	17	6.1
차량유지비	22	8.2
주거비	24	8.7
경조사비	7	2.4
보건의료비	8	2.8
문화비	11	4.1
내구재	3	1.1
통신비	13	4.6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0	0.2
자녀 용돈	13	4.7
그 외 가구원의 용돈	29	10.5
피복비	9	3.2
현금 및 기부금	3	1.3
국민연금	12	4.5
의료보험	14	5.3
대중교통비	6	2.3
생필품구입비	6	2.2
기 타	1	0.4
전체 생활비	275	100.0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9.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차년도 조사에서는 1.3%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에는 29.5%였으나 차수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다 13차년도에 소폭 하락했지만 14차년도에 다시 상승해 15차년도는 5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²³⁾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54만 원으로, 식비가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9.8%)을 차지

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가 6만 원, 사교육비는 월평균 17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은 1만 원 미만, 자녀는 13만 원, 그 외 가구원은 2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6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는 13만 원을 지출(전체 생활비의 4.6%)하여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12만 원, 1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 축

15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1.1%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76만 8,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1~15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55.1%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71.7%로 나타났다.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다가 15차년도에는 71.1%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1차년도 44만 4,000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5차년도에는 76만 8,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5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3.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후 생활 대비’와 ‘결혼/상제비’가 각각 17.5%와 1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는 6.1%,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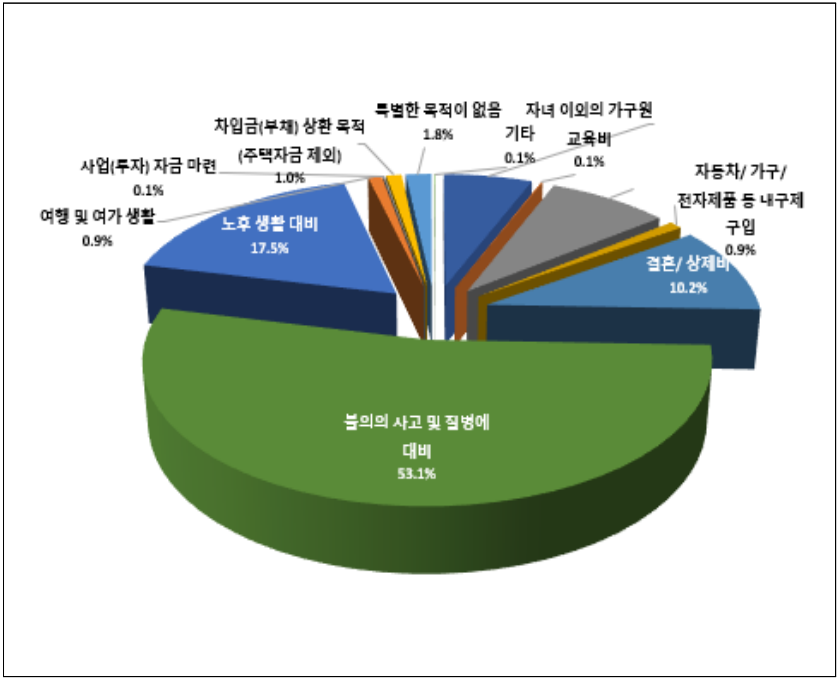
-
- 23)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및 4~25차년도(09통합표본 1~14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 4-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만 원)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90	6,575	6,632
저축 안 함	44.9	39.4	37.3	35.3	32.1	28.3	29.2	27.6
저축함	55.1	60.7	62.7	64.7	67.9	71.7	70.8	72.5
월평균 저축액	44.4	49.2	52.1	56.8	62.9	65.7	66.8	70.5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6,683	6,709	6,729	6,708	6,725	6,744	6,824	
저축 안 함	28.8	28.1	28.6	27.9	29.2	28.3	29.0	
저축함	71.2	71.9	71.4	72.1	70.8	71.7	71.1	
월평균 저축액	70.7	72.1	70.0	69.7	71.6	73.9	76.8	

〔그림 4-2〕 15차(2023)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09통합표본)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항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30.0%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8.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3.5%, 88.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8%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

<표 4-6> 15차(202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3,067		2,395		2,847	
없었음	70.0	16.5	69.7	11.9	21.6	61.2
있었음	30.0	83.5	30.3	88.1	78.5	38.8

〈표 4-7〉 15차(202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 총금액	448.8	189.8	219.1	163.6	369.3	509.0
현금	391.1	153.3	149.0	127.8	295.1	427.3
현물	57.7	36.5	70.2	35.8	74.2	81.7

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448만 8,000원,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19만 1,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은 509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89만 8,000원, 163만 6,000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69만 3,000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이전되는 소득의 경우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교류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주거 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09통합표본 15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 형태 및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해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

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이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5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60.5%로 가장 높고, 월세가 17.9%로 전세(16.4%)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15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7차년도까지는 58% 정도를 유지하다가 8차년도(59.5%) 상승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1차년도 60.4%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36.8%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15차년도에는 34.3%로 나타났다.

〈표 4-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체	6,721	6,397	6,387	6,430	6,454	6,486	6,575	6,629
자가	57.6	57.6	57.8	57.9	57.7	58.0	58.5	59.5
전세	22.9	23.5	20.8	20.0	19.9	19.9	19.2	17.7
월세	13.9	13.1	15.1	15.5	15.7	15.6	16.0	16.9
기타	5.6	5.8	6.3	6.6	6.7	6.6	6.2	6.0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체	6,683	6,708	6,729	6,708	6,725	6,744	6,824	
자가	59.6	59.8	60.4	60.2	60.0	60.3	60.5	
전세	17.4	17.1	17.4	18.2	17.5	16.8	16.4	
월세	17.3	17.6	16.9	16.3	16.9	17.7	17.9	
기타	5.7	5.5	5.3	5.3	5.7	5.2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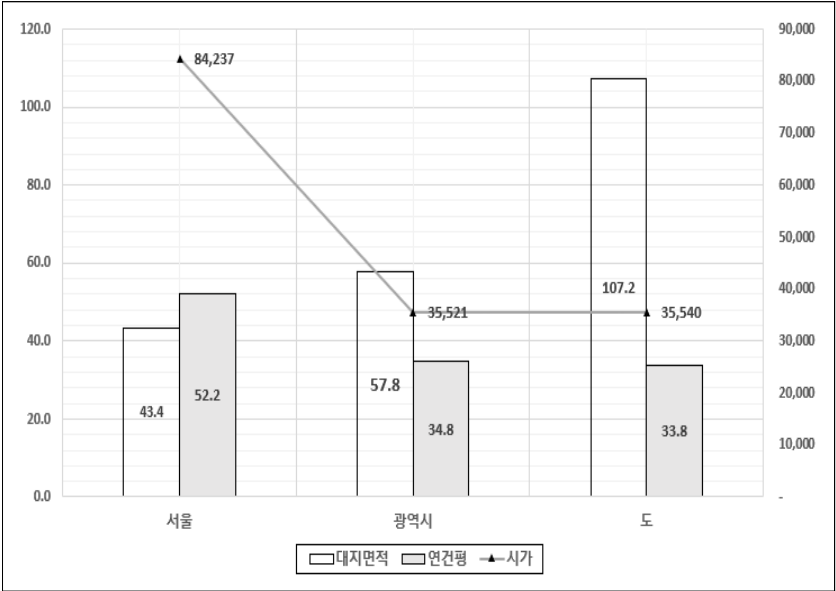
주 : '전세'는 가구의 입주형태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의 약 2.5배, 광역시의 약 1.9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과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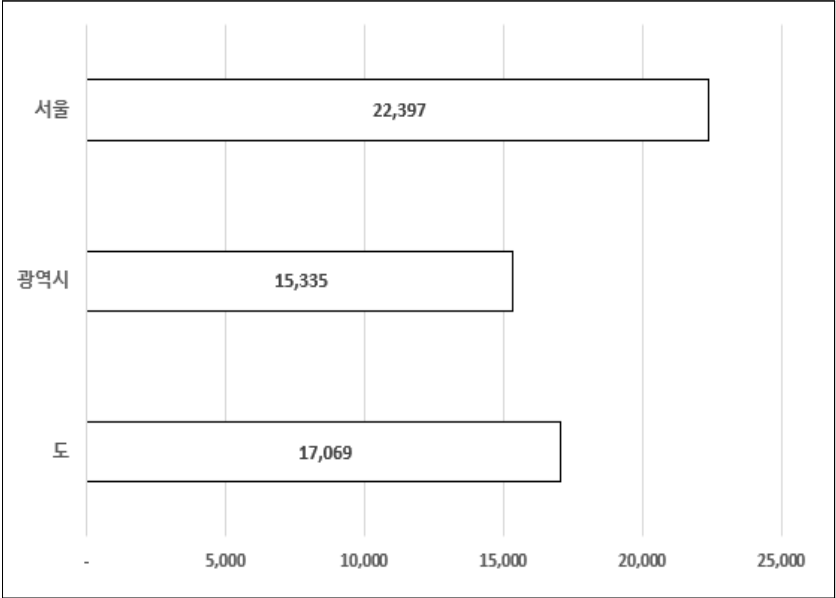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7.2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7.8평, 서울은 43.4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52.2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34.8평, 도 지역은 33.8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8억 4,237만 원인 데 비해 도 지역은 서울의 42% 정도에 해당하는 3억 5,54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3억 5,5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15차(2023)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 · 연건평 및 시가(09통합표본)
(단위 :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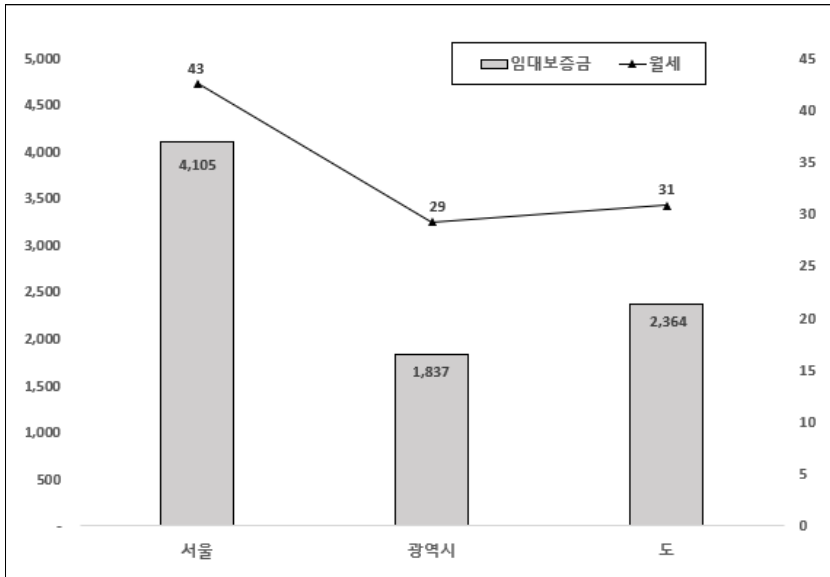


[그림 4-4] 15차(2023)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그림 4-5] 15차(2023)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다음으로 [그림 4-4] 및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 2,397만 원으로 광역시(1억 5,335만 원)보다 7,062만 원 높고, 도 지역(1억 7,069만 원)보다도 5,328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4-4 참조).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4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도와 광역시가 각각 31만 원과 29만 원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세 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4,105만 원으로 광역시의 약 2.2배, 도의 약 1.7배로 높았다(그림 4-5 참조).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5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56.7%)이며,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16.9%를, 다세대주택이

〈표 4-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89	6,572	6,632
단독주택	29.7	27.3	27.0	25.8	24.8	23.6	22.4	21.8
아파트	45.7	48.3	48.7	49.2	49.9	50.6	51.5	51.4
연립주택	10.1	10.2	10.2	10.2	10.0	9.5	9.3	9.7
다세대주택	10.0	9.6	9.6	10.2	10.6	11.1	11.8	12.1
상가주택	3.5	3.2	3.4	3.3	3.2	3.2	3.1	3.3
기타	1.1	1.5	1.2	1.3	1.5	2.1	2.0	1.8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6,683	6,709	6,727	6,708	6,725	6,744	6,824	
단독주택	21.0	19.7	19.0	18.6	18.3	17.7	16.9	
아파트	52.2	53.2	54.2	55.7	55.6	56.2	56.7	
연립주택	9.5	8.9	8.8	8.6	8.5	8.4	8.4	
다세대주택	12.4	12.6	12.6	12.0	12.0	12.3	12.9	
상가주택	3.2	3.3	3.1	2.9	3.0	3.0	3.1	
기타	1.6	2.2	2.3	2.3	2.6	2.6	2.1	

주 : '전체'는 가구의 주택 종류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12.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립주택 비중은 8.4%이며 상가주택은 3.1%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1차년도 4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차년도에 이르러서는 11.0%포인트 증가한 56.7%인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3. 주거지의 선택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주된 동기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를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로 응답을 받는다.

〈표 4-10〉 15차(2023)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09통합표본)

이사 동기	비중(%)
내집 마련	27.5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2.3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9.4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6.5
취업/창업	5.7
환경 및 건강 때문에	5.3
신혼집 마련	5.3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4.8
계약만료/철거, 재개발	4.5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4.4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3.8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2.1
독립하고 싶어서	2.1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2.1
자녀 교육 때문에	1.8
경제적 상황 악화	1.0
별거, 이혼, 가정불화	0.9
기타	0.5
전 체	100.0

〈표 4-10〉은 15차년도 응답가구들이 현재 거주지로 이사 온 동기를 응답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사 동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 집 마련’이 27.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와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가 각각 12.3%, 9.4%로 나타났다.

제4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09통합표본 15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5차년도의 경우 2023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부동산 임차 여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5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7.0%로 전년도(17.5%)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5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6%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차년도에 6.2%였으나 2차년도에 4.4%로 1.8%포인트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5차년도 이후에는 평균 6%대를 유지하였으며 9차년도(8.1%) 상승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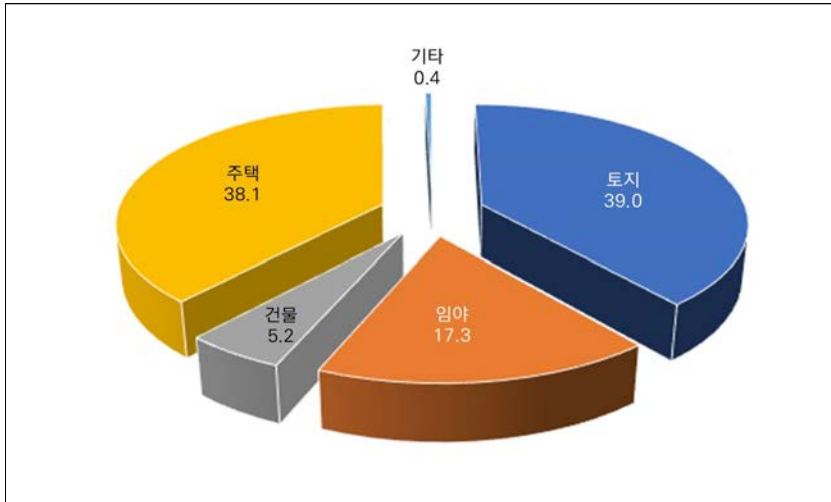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90	6,575	6,632
부동산 소유 여부								
없음	77.0	78.3	78.8	78.0	79.1	78.8	80.1	80.0
있음	23.0	21.7	21.2	22.0	21.0	21.2	19.9	20.0
1,000만 원 미만	3.3	3.3	3.2	1.7	1.8	1.4	1.0	0.5
1,000만~5,000만 원 미만	16.2	15.7	12.5	15.3	12.1	12.1	11.4	11.8
5,000만~1억 원 미만	21.0	18.6	18.4	17.8	17.6	19.5	15.6	15.3
1억~3억 원 미만	33.4	35.4	35.8	34.8	36.8	36.8	37.2	37.5
3억~5억 원 미만	11.6	13.6	13.4	16.0	15.9	14.9	16.6	17.5
5억~10억 원 미만	8.2	8.9	11.3	8.5	9.5	9.7	12.0	10.8
10억 원 이상	6.2	4.4	5.4	5.9	6.3	5.6	6.0	6.6
잘 모르겠음	0.1	0.1	0.0	0.0	0.0	0.0	0.3	0.1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6,683	6,709	6,729	6,708	6,725	6,744	6,824	
부동산 소유 여부								
없음	80.0	79.8	80.8	81.4	82.1	82.5	83.0	
있음	20.1	20.2	19.2	18.6	17.9	17.5	17.0	
1,000만 원 미만	0.5	1.0	0.4	0.2	0.5	0.5	0.3	
1,000만~5,000만 원 미만	9.4	9.8	9.8	8.5	7.6	7.2	7.8	
5,000만~1억 원 미만	15.9	16.5	14.5	15.7	12.4	11.9	13.3	
1억~3억 원 미만	35.9	31.6	34.5	34.1	29.5	30.6	28.6	
3억~5억 원 미만	17.1	18.6	18.0	17.9	18.8	17.1	18.4	
5억~10억 원 미만	13.1	13.4	14.2	14.1	19.1	19.6	18.5	
10억 원 이상	8.1	9.0	8.5	9.4	12.2	13.2	13.2	
잘 모르겠음	0.0	0.1	0.1	0.2	0.1	0.0	0.0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차년도에 19.8%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7차년도에 28.6%였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15차년도에는 36.9%로 나타났다.

[그림 4-6] 15차(2023)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



주 :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15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토지로 전체 응답 중 39.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택이 38.1%, 임야가 17.3%, 건물이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15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13차년도까지 증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8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5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499만 원이 증가하여 5,84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15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7.7%로 가장 높게 나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664	6,375	6,388	6,376	6,369	6,378	6,499	6,555
없음	41.8	37.9	37.4	35.9	34.6	27.2	26.2	23.0
250만 원 미만	6.3	6.3	6.0	5.7	6.6	6.8	5.8	6.0
250만~500만 원 미만	4.1	4.7	4.6	4.1	4.5	4.7	4.1	4.5
500만~1,000만 원 미만	10.0	10.1	10.0	9.3	10.1	10.4	10.2	10.3
1,000만~5,000만 원 미만	27.5	29.8	30.1	32.9	31.4	34.4	35.8	36.1
5,000만~1억 원 미만	6.0	6.5	6.7	7.1	7.3	9.9	10.4	11.3
1억 원 이상	4.4	4.6	5.3	5.1	5.5	6.6	7.4	8.7
평균(만 원)	1,933	2,011	2,110	2,095	2,246	2,883	3,075	3,384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6,639	6,645	6,729	6,708	6,671	6,744	6,824	
없음	19.9	18.6	17.9	17.3	15.0	16.6	15.5	
250만 원 미만	5.4	5.3	4.8	4.7	4.5	2.8	2.8	
250만~500만 원 미만	4.5	3.8	3.1	3.0	2.8	2.6	2.1	
500만~1,000만 원 미만	9.9	9.5	9.2	9.9	8.0	7.9	7.3	
1,000만~5,000만 원 미만	37.7	38.2	39.4	38.4	40.9	38.3	37.7	
5,000만~1억 원 미만	12.7	14.7	14.8	15.1	15.8	17.5	18.7	
1억 원 이상	9.9	9.9	10.8	11.7	13.1	14.3	15.9	
평균(만 원)	3,842	4,018	4,071	4,531	5,042	5,342	5,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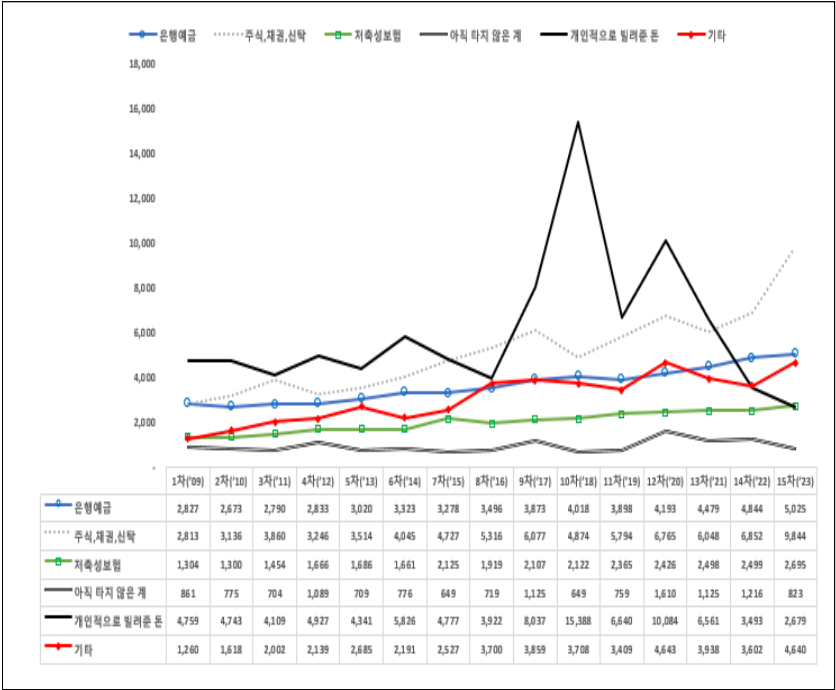
주 :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타났다. 그다음으로 5,000만~1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7%, 1억 원 이상인 가구가 15.9%,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7.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주 :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4차년도에 감소한 다음,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761만 원 상승한 6,077만 원이었으나 10차년도에 다시 1,203만 원 감소한 4,874만 원으로 나타났고 15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2,992만 원 증가한 9,844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은행예금은 1차년도의 2,827만 원에서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한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고 15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181만 원 증가한 5,0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과 은행예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은행예금이 2,827만 원으로 주식/채권/신탁(2,813만 원)보다 14만 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 주식/채권/신탁이 은행예금을 추월하여, 이후 그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15차년도에 4,819만 원 차이가 나고 있다.

저축성보험금은 1차년도 1,304만 원에서 15차년도 2,695만 원으로 나타

났으나 뚜렷한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변동 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15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39.2%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8.0%) 당시보다 8.8%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680	6,394	6,365	6,409	6,420	6,458	6,553	6,610
부채 없음	52.0	56.0	55.7	54.9	54.7	55.1	55.2	56.1
500만 원 미만	4.5	2.3	3.0	2.6	2.3	2.1	2.1	1.9
500만~1,000만 원 미만	3.7	3.6	3.5	3.0	2.8	2.6	2.1	2.2
1,000만~5,000만 원 미만	20.7	18.6	18.2	18.4	17.7	17.5	16.3	15.1
5,000만~1억 원 미만	9.0	8.6	8.1	8.8	9.3	9.2	9.8	9.6
1억 원 이상	10.2	10.8	11.4	12.3	13.3	13.6	14.5	15.1
평균(만 원)	3,315	3,483	3,650	4,073	4,293	4,323	4,508	4,701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전 체	6,663	6,688	6,710	6,696	6,708	6,744	6,824	
부채 없음	57.0	56.6	57.3	58.2	58.5	59.9	60.9	
500만 원 미만	1.7	1.3	1.5	1.0	1.1	1.1	0.8	
500만~1,000만 원 미만	2.1	2.2	1.7	1.7	1.9	1.6	1.5	
1,000만~5,000만 원 미만	13.4	13.0	13.1	12.2	11.9	10.2	9.8	
5,000만~1억 원 미만	9.8	10.2	9.3	9.2	7.8	8.3	7.9	
1억 원 이상	16.1	16.9	17.2	17.8	18.9	18.9	19.1	
평균(만 원)	4,905	5,283	5,234	5,203	5,788	5,691	6,008	

주 : 가구의 부채 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1차년도 3,315만 원에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10차년도 이후 5,000만 원 초반에서 정체를 보인다. 이후 13차년도에는 전년대비 585만 원 증가한 5,78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5차년도는 전년대비 317만 원 증가한 6,008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2.0%였다가 2차년도에는 4.0% 포인트 증가한 56.0%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6차년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15차년도에는 60.9%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15차년도의 부채 잔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19.1%,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묻고

있다. 그리고 16차년도(09통합표본 5차)부터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0세~만 5세 이하 자녀와 만 6세~재수생 자녀로 구분하였고, 0세~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보육 및 양육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0세~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0%였으며, 1명인 경우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 6세~재수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0.0%였으며, 1명인 경우가 54.0%였으나 2명인 경우도 40.3%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10.2%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8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14> 15차(2023)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09통합표본)

(단위 : %)

		0세~만 5세 이하	만 6세~재수생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30.0	80.0	10.2
	없음	70.0	20.0	89.8
자녀 수	1명	76.9	54.0	81.7
	2명	22.0	40.3	18.1
	3명 이상	1.2	5.7	0.2

<표 4-15> 15차(2023)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09통합표본)

(단위 : %)

		0세~만 5세 이하(월평균)	만 6세~재수생 (월평균)	대학생 이상 (연평균)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2.4	23.4	36.8
	약간 부담된다	21.7	47.8	42.9
	보통이다	40.9	23.8	17.1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20.7	4.1	2.7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4.4	1.0	0.6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49.3	85.7	1,192.3(533.8)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39.6	57.5	1,006.5(450.5)

주 : 괄호 안의 값은 연간 정규학교 등록금임.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만 5세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 3,000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 6,000원으로, 만 6세~재수생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5만 7,000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7만 5,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의 경우는 24.1%이고 만 6세~재수생은 71.2%에 달했으며, 특히 만 6세~재수생을 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92만 3,000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당 연평균 1,006만 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교육비 중 정규학교 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533만 8,000원, 자녀당 연평균 450만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36.8%로 나타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대다수의 가구가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KLIPS는 98표본의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취업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98표본이 아닌 2009년 추가표본을 포함한 09통합표본을 1차년도로 정의하며,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23년도 제15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1차년도(2009년)부터 15차년도(2023년)까지 1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 상태

〈표 5-1〉에는 09통합표본 1~15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 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이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09통합표본)

(단위: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09)		14,470	11,360	3,110
2차(10)		13,470	13,149	321
3차(11)		13,133	12,847	286
4차(12)		13,025	12,795	230
5차(13)		12,819	12,613	206
6차(14)		12,089	12,068	21
7차(15)		12,736	12,401	335
8차(16)		12,776	12,576	200
9차(17)		12,916	12,729	187
10차(18)		12,810	12,605	205
11차(19)		12,679	12,502	177
12차(20)		12,500	12,341	159
13차(21)		12,403	12,195	208
14차(22)		12,471	12,256	215
15차(23)	종단 사례 수	12,478	12,293	185
	횡단 사례 수	13,735	13,439	296

주: 1~15차년도 사례 수는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이며, 15차년도는 종단 사례 수와 횡단 사례 수를 같이 제시함. 횡단 사례 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를 나타냄.

여받은 개인 표본 수이다. 09통합표본의 조사 초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원표본 사례 수도 2차년도에 급격히 줄었으며 그 이후로도 개인 원표본 사례 수가 줄었으나 7차년도부터 9차년도에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0차년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종단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15차년도의 경우 1,25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²⁴⁾ 동안

24) 조사일 바로 전 주(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KLIPS에서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

〈표 5-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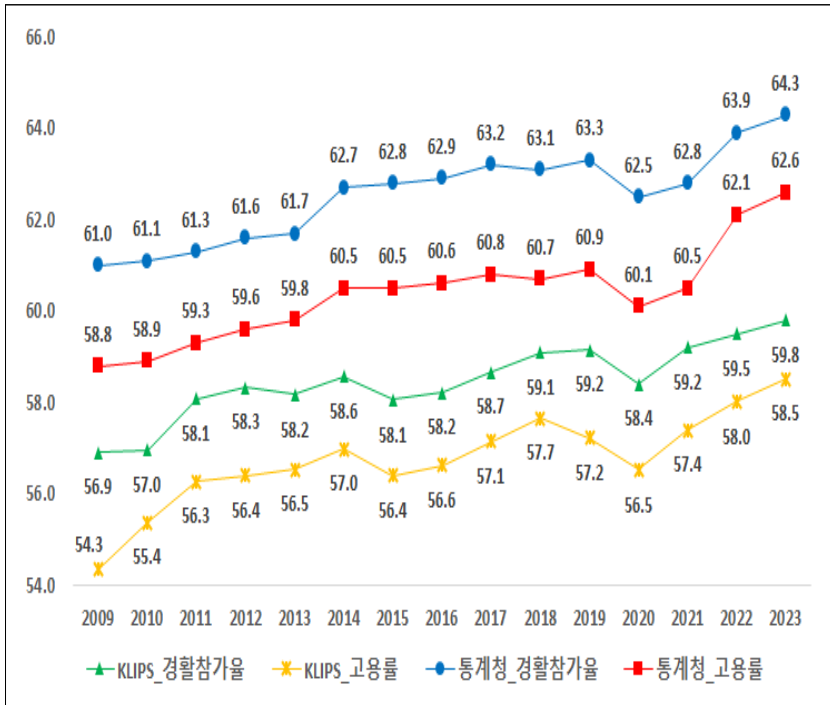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09)	54.3	2.6	43.1
2차(10)	55.4	1.6	43.0
3차(11)	56.3	1.8	41.9
4차(12)	56.4	1.9	41.7
5차(13)	56.5	1.6	41.8
6차(14)	57.0	1.6	41.4
7차(15)	56.4	1.7	41.9
8차(16)	56.6	1.6	41.8
9차(17)	57.1	1.5	41.3
10차(18)	57.7	1.4	40.9
11차(19)	57.2	1.9	40.9
12차(20)	56.5	1.9	41.6
13차(21)	57.4	1.8	40.8
14차(22)	58.0	1.5	40.5
15차(23)	58.5	1.3	40.2

류법을 적용하였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7차년도에 56.4%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8차년도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15차년도에 소폭 증가한 58.5%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에 2.6%에서 2차년도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15차년도에는 1.3%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15차년도 현재 40.2%를 기록했다.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23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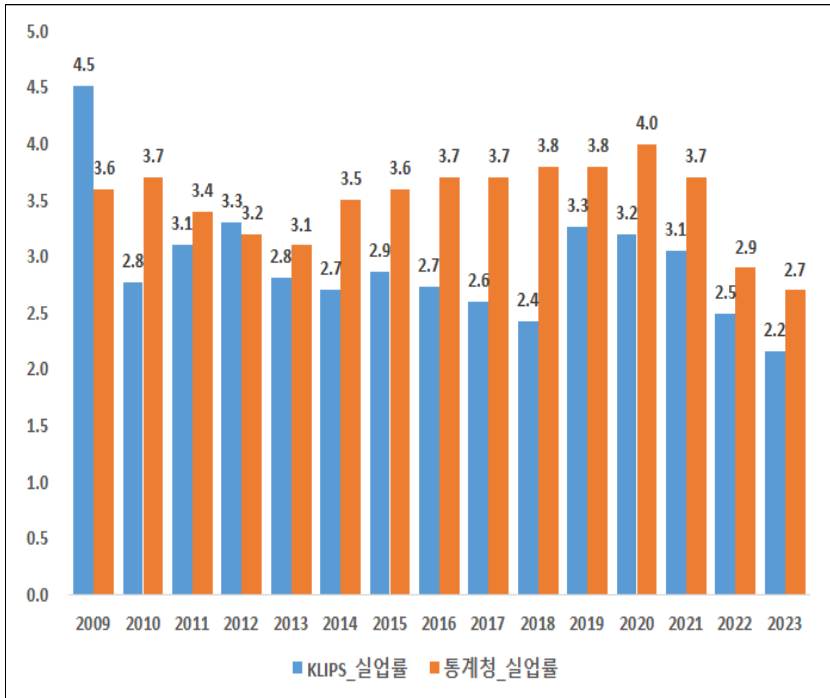
주 :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2)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23년)

(단위 : %)



주 : 1)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1]과 [그림 5-2]는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계청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23년 기준 KLIPS 경제활동참가율은 4.5%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고용률은 4.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09통합표본 1차년도에서 4.5%로 경활의 3.6%보다 0.9%포인트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오히려 경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⁵⁾

2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차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2015), 「노동패널 고용지표의 신뢰성 검토」, 『노동패널자료 연구(I)-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참조.

제2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6.3	18.4	75.3
2010	6.3	18.6	75.1
2011	5.9	19.1	75.0
2012	5.6	19.1	75.3
2013	5.5	18.9	75.6
2014	5.1	18.6	76.3
2015	5.1	18.4	76.5
2016	4.9	18.1	77.0
2017	4.7	17.8	77.5
2018	4.6	17.6	77.9
2019	4.3	16.9	78.8
2020	4.1	16.8	79.0
2021	4.1	16.7	79.1
2022	4.0	16.7	79.3
2023	3.7	16.0	80.3

- 주 :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9차, 2013~2023년은 제10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 3) 1차 산업 :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
3차 산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 5)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7.0	16.5	76.5
2010	6.6	17.1	76.3
2011	6.4	17.0	76.6
2012	6.1	16.8	77.1
2013	6.0	17.1	76.9
2014	5.6	17.3	77.2
2015	5.1	17.6	77.2
2016	4.8	17.4	77.8
2017	4.8	17.2	78.0
2018	5.0	16.9	78.1
2019	5.1	16.4	78.5
2020	5.4	16.3	78.3
2021	5.3	16.1	78.6
2022	5.4	16.1	78.5
2023	5.3	15.7	79.0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9차, 2013~2023년은 제10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업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이 소폭 증가한 추이로 볼 때 KLIPS와 경활조사의 취업자 분포는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사무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감소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은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과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서비스판매직은 22%대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인 2013~2023년의 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23년의 경우 전문관리직은 27.1%, 사무직 17.8%, 서

비스판매직 21.8%, 농림어업직 3.4%, 생산직 29.9%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찰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KLIPS와 경찰조사를 비교해 보면, KLIPS 조사에서 경찰조사보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약간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직과 생산직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1.7	15.4	22.5	5.7	34.7
2010	22.8	14.6	22.1	5.9	34.7
2011	22.7	14.7	22.2	5.5	34.9
2012	23.5	14.7	22.7	5.2	33.9
2013	23.5	15.6	22.3	5.1	33.5
2014	24.7	15.9	22.1	4.6	32.6
2015	24.1	16.0	22.8	4.7	32.3
2016	24.3	16.5	22.7	4.6	32.0
2017	23.8	16.7	22.8	4.5	32.3
2018	24.6	16.8	22.4	4.3	31.9
2019	24.9	17.4	22.3	3.9	31.4
2020	25.0	17.3	22.2	3.9	31.6
2021	25.0	17.5	22.1	3.9	31.5
2022	25.8	18.1	21.7	3.7	30.7
2023	27.1	17.8	21.8	3.4	29.9

주 :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6차, 2013~2023년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 3) 전문관리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포함,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3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1.2	15.3	23.4	6.5	33.6
2010	21.5	15.7	22.5	6.1	34.2
2011	21.4	16.5	22.1	5.9	34.2
2012	23.5	14.7	22.7	5.2	33.9
2013	21.2	16.9	22.6	5.6	33.6
2014	21.4	16.9	22.9	5.2	33.6
2015	21.2	17.0	22.7	4.7	34.4
2016	21.3	17.3	22.8	4.5	34.2
2017	21.5	17.4	22.6	4.5	34.0
2018	21.9	17.8	22.4	4.7	33.3
2019	22.0	17.5	22.7	4.9	32.9
2020	21.8	17.4	22.1	5.1	33.5
2021	21.9	17.4	21.4	5.1	34.1
2022	22.5	17.3	21.2	5.2	33.8
2023	23.4	17.5	21.4	5.2	32.5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6차, 2013~2023년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전문관리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포함,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이제 15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20.3%로 가장 높고 여성은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36.2%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20대(27.4%), 30대(23.5%), 40대(26.2%), 50대(20.5%), 60세 이상(20.1%)).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공공서비스업에서

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 서비스종사자는 여성(18.9%)이 남성(7.5%)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더 많은 데 비해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15차(202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

		농림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증 기및수 도, 원 료재생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 박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 부동산 사업서 비스업	공공서 비스업	기타
성별	남성	3.8	20.3	1.5	11.8	15.6	13.8	13.5	13.4	6.3
	여성	3.5	11.2	0.2	1.6	22.6	4.2	13.2	36.2	7.3
연령	15~29세	0.3	15.4	0.6	1.8	21.8	11.2	14.1	27.4	7.6
	30~39세	1.4	18.5	1.3	5.0	17.6	11.1	15.4	23.5	6.2
	40~49세	0.9	18.6	1.0	8.3	16.6	9.7	12.6	26.2	6.1
	50~59세	2.5	17.2	1.3	10.0	19.7	9.7	12.4	20.5	6.7
	60세 이상	11.9	11.8	0.5	8.9	18.5	7.7	13.1	20.1	7.5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8.4	13.1	0.2	10.1	17.6	6.2	8.0	18.0	8.4
	고졸	3.7	19.4	0.7	9.1	24.4	9.3	12.4	13.0	8.0
	대재/중퇴	0.8	13.4	2.5	7.4	28.8	12.5	10.7	18.6	5.4
	전문대졸	1.3	18.2	0.7	6.7	20.2	10.4	12.7	23.2	6.6
	대졸 이상	1.1	14.7	1.2	5.9	12.6	10.3	16.2	32.3	5.7

주 :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원료재생업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을 포함.

3) 운수 및 통신업 :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을 포함

4)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포함.

5) 공공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

6) 기타 :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7)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연령별로 40대 이하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60세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관리자 및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은 43.8%로 나타났다.

〈표 5-8〉 15차(202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성별	남성	2.1	22.5	16.6	7.5	7.9	3.6	14.6	15.6	9.7
	여성	0.7	28.8	20.1	18.9	11.4	3.1	3.0	3.5	10.6
연령	15~29세	0.1	38.9	21.4	13.2	10.1	0.2	4.6	6.3	5.2
	30~39세	0.3	34.7	28.3	10.7	6.6	0.8	7.8	6.5	4.5
	40~49세	1.2	31.9	22.9	9.6	9.0	0.8	9.1	8.9	6.7
	50~59세	2.3	19.9	15.2	12.9	11.1	2.5	12.0	14.4	9.9
	60세 이상	2.7	8.3	5.3	15.7	10.0	11.3	12.1	13.2	21.4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2	1.5	1.2	17.2	7.0	16.8	15.3	12.3	28.6
	고졸	0.9	8.0	11.4	16.2	13.4	3.4	13.4	18.1	15.2
	대재/중퇴	0.2	14.2	18.4	18.5	14.9	0.8	12.4	9.0	11.7
	전문대졸	1.1	28.8	19.6	11.0	11.0	1.3	10.3	10.8	6.1
	대졸 이상	2.6	43.8	26.7	8.0	5.6	1.1	4.8	4.4	2.9

주 : 1)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2) 군인은 제외하였음.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제3절 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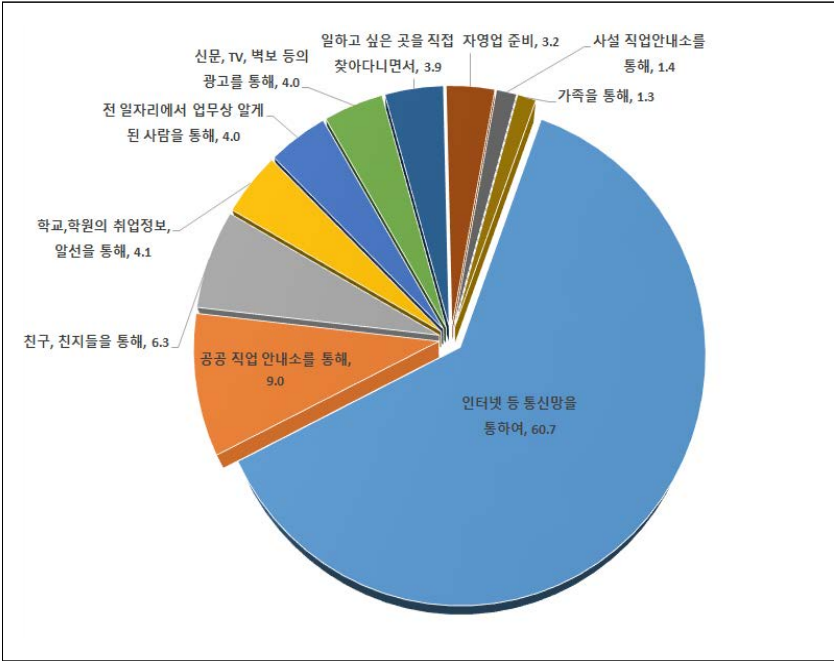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 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구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60.7%를 차지하였

[그림 5-3] 15차(202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09통합표본)

(단위 : %)



주 :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으며, 공공 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은 9.0%를 차지하였다.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6.3%,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⁶⁾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친구·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9〉 15차(2023) 특성별 구직방법(09통합표본)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성별	남성	79.8	19.2	1.0	100.0
	여성	86.8	5.7	7.5	100.0
연령	15~29세	92.2	6.4	1.4	100.0
	30~39세	98.2	0.8	1.0	100.0
	40~49세	60.0	34.2	5.8	100.0
	50~59세	47.7	25.4	26.8	100.0
	60세 이상	51.7	41.2	7.1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33.7	66.3	0.0	100.0
	고졸	68.9	28.5	2.6	100.0
	대재/중퇴	86.5	8.2	5.3	100.0
	전문대졸	93.0	7.1	0.0	100.0
	대졸 이상	88.6	4.9	6.4	100.0

주 :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6)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 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식적 방법은 줄어들고 비공식적 방법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구직방법 보다 공식적 구직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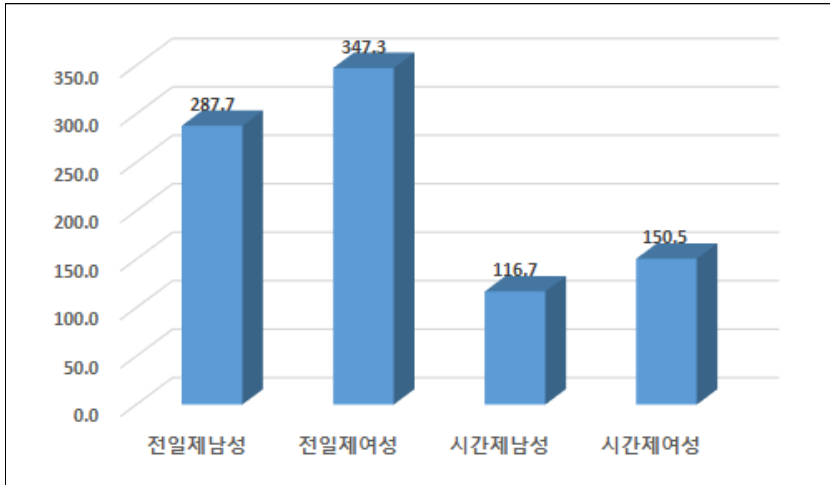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성별·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347만 3,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87만 7,000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경우 남성은 116만 7,000원, 여성은 150만 5,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열 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항목에 대해 평균 2.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음’(2.2점)과 ‘경험 부족’(2.6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15차(2023)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표 5-10〉 15차(2023)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09통합표본)

(단위: 점)

	남 성	여 성	전 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1	2.1	2.1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3.0	2.8	2.9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2	3.2	3.2
4. 경험이 부족하다.	2.6	2.6	2.6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1	2.2	2.2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9	2.9	2.9
7. 나이가 너무 많다.	3.5	3.3	3.4
8. 사업자금에 부족하다.	4.0	3.7	3.7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3.8	3.8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4.7	4.1	4.4

주: 1)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2)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과 퇴직, 산업과 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 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본 장은 09통합표본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표 6-1〉은 1~15차(2009~2023)년도 동안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999명으로,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2009)년도 69.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5차(2023)년도에는 77.4%이다.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5,999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먼저 [그림 6-1]에서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자의 비중이 3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졸자의 비중이 31.1%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에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0대가 22.9%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특히 높았는데(16.5%),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빠름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 30~4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시사한다.

〈표 6-2〉에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34.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이 18.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농림어업은 0.6%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산업별 분포의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남성은 광공업(23.6%), 기타 서비스업(23.6%), 건설업(1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기타 서비스업(48.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9.4%), 광공업(12.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6-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09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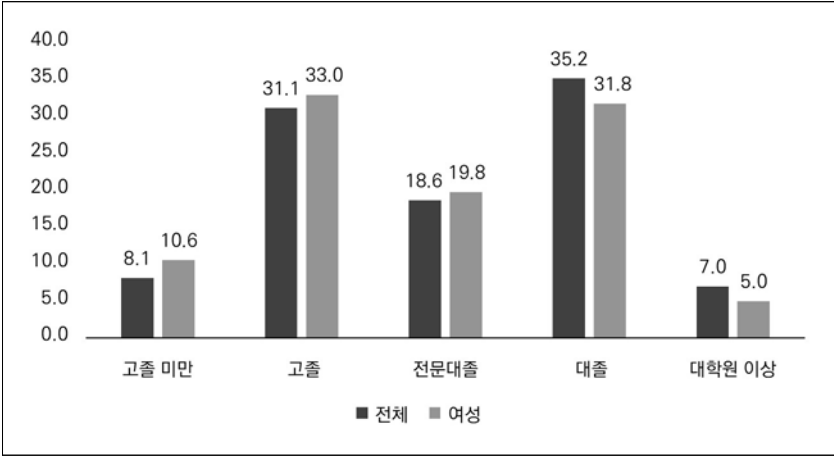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09)	5,189	60.9	39.1	69.9
2차('10)	5,084	59.9	40.1	70.7
3차('11)	5,148	60.0	40.0	72.1
4차('12)	5,210	59.5	40.5	72.6
5차('13)	5,202	59.5	40.5	73.0
6차('14)	5,073	59.6	40.4	73.8
7차('15)	5,342	59.3	40.7	74.2
8차('16)	5,483	58.5	41.5	74.3
9차('17)	5,671	57.1	42.9	74.9
10차('18)	5,739	57.0	43.0	75.3
11차('19)	5,754	56.9	43.1	76.2
12차('20)	5,642	56.9	43.2	76.3
13차('21)	5,686	56.3	43.7	76.4
14차('22)	5,872	56.1	43.9	77.1
15차('23)	5,999	56.2	43.8	77.4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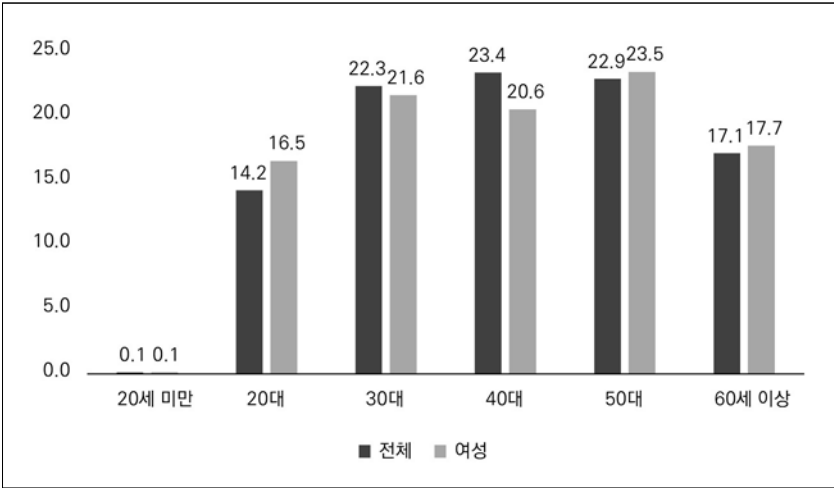
(단위 : %)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문관리직이 29.8%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문관리직(31.4%), 서비스직(26.1%), 사무직(23.7%)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았다.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산업	농림어업	0.6	0.6	0.6
	광공업	18.6	23.6	12.2
	건설업	8.1	13.2	1.5
	전기·가스 및 수도업	0.8	1.2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1	11.7	19.4
	운수통신업	9.1	12.5	4.8
	금융 및 부동산업	6.2	6.1	6.4
	공공서비스업	7.2	7.6	6.6
	기타 서비스업	34.5	23.6	48.3
직종	전문관리직	29.8	28.5	31.4
	사무직	21.9	20.5	23.7
	서비스직	17.5	10.8	26.1
	농림어업직	0.3	0.3	0.2
	생산직	30.6	39.9	18.6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1.1	27.5	35.7
	10~29인	20.1	19.2	21.3
	30~99인	19.1	18.9	19.3
	100~299인	10.2	11.2	8.9
	300~499인	3.3	3.4	3.1
	500인 이상	16.3	19.8	11.8
기업 형태	민간회사	74.1	76.5	71.1
	외국인회사	0.7	0.8	0.6
	공기업	4.7	4.1	5.5
	법인단체	6.1	4.7	7.8
	정부기관	11.9	10.6	13.6
	비소속	1.9	2.5	1.1
	기 타	0.6	0.8	0.3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 함	92.1	90.8	93.9
	2조 2교대제	3.7	4.5	2.6
	3조 3교대제	1.9	1.9	2.0
	기타 교대제	2.3	2.8	1.6
종사상 지위	상용직	77.1	80.1	73.2
	임시직	16.0	11.2	22.2
	일용직	6.9	8.7	4.6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인 미만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0~29인이 20.1%로 두 번째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은 10인 미만(여성 35.7%, 남성 27.5%)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업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고(74.1%), 정부기관이 그 뒤를 이었으며(11.9%), 남녀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7.9%였으며, 남성(9.2%)이 여성(6.1%)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7.1%, 임시·일용직이 22.9%인 반면에, 통계청의 2023년 경황조사에서 조사된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25.9%이다.²⁷⁾ KLIPS와 경황조사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차이는 조사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경황조사에서는 퇴직금 유무 등 여러 기준들을 적용하는 반면에 KLIPS에서는 고용계약 기간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남성의 고용안정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시사하며,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제2절 근로시간

15차(2023)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하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27)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6-3〉은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1차(2009)년도 46.7시간에서 15차(2023)년도 39.5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의 평균근로시간이 여성보다 길었으며, 15차(2023)년도의 남녀 간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3.8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1.2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단위: 시간)

	전 체	남 성	여 성
1차(09)	46.7	48.4	44.0
2차(10)	46.9	48.7	44.2
3차(11)	46.2	48.1	43.3
4차(12)	45.2	47.0	42.5
5차(13)	44.8	46.7	42.0
6차(14)	44.7	46.8	41.5
7차(15)	43.8	45.7	41.0
8차(16)	43.5	45.5	40.7
9차(17)	43.0	45.3	40.0
10차(18)	42.1	44.1	39.4
11차(19)	41.3	43.2	38.8
12차(20)	40.6	42.5	38.1
13차(21)	40.1	42.1	37.7
14차(22)	39.8	41.4	37.6
15차(23)	39.5	41.2	37.4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간이 가장 긴 반면, 19세 미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20대가 39.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30, 40대 핵심연령층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격차는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50대(42.3시간), 여성은 30대(39.9시간)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문대졸과 대졸에서 각각 41.1시간, 40.4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학력에서 남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게 나타났고 특히 고졸 미만에서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6.0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연령별	19세 미만	23.5	28.2	18.6
	20~29세	39.0	39.4	38.5
	30~39세	41.2	42.2	39.9
	40~49세	40.6	42.1	38.3
	50~59세	40.4	42.3	38.0
	60세 이상	35.1	38.1	31.4
학력별	고졸 미만	32.8	36.2	30.2
	고졸	39.3	41.2	37.0
	전문대졸	41.1	42.4	39.6
	대졸	40.4	41.5	38.7
	대학원 이상	39.3	40.2	37.2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상용직	41.5	42.5	40.2
임시직	32.9	37.5	30.0
일용직	31.9	33.7	27.4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산업별	농림어업	35.8	42.3	27.5
	광공업	42.2	42.8	40.7
	건설업	38.4	38.4	39.1
	전기·가스 및 수도업	41.8	42.4	38.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0.2	42.8	38.1
	운수통신업	41.6	41.9	40.5
	금융 및 부동산업	41.3	43.5	38.6
	공공서비스업	37.8	39.9	34.8
	기타 서비스업	37.4	39.5	36.1
직종별	전문관리직	39.9	40.9	38.8
	사무직	40.6	41.5	39.7
	서비스직	37.8	41.5	35.8
	농림어업직	39.5	38.7	41.6
	생산직	39.3	41.1	34.2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39.1	41.0	37.1
	10~29인	39.8	41.7	37.7
	30~99인	40.7	42.4	38.7
	100~299인	41.6	42.8	39.6
	300~499인	40.4	41.6	38.7
	500인 이상	41.2	41.9	39.6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1.5시간으로 임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2.9시간보다 약 8.6시간 길었다. 또한 남녀 모두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참조).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2.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농림어업이 35.8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6.5시간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광공업 및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42.8시간, 여성은 광공업에서 40.7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14.7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40.6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서비스직이 37.8시간으로 가장 짧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생산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6.9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1.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녀 간 차이는 2.3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39.1시간), 남녀 간 차이는 3.9시간이었다.

2. 초과근로시간

여기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비 중
초과근로를 안 함		88.2
초과근로를 함		11.8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6.4
초과급여 지급 안 함		38.8
초과급여 지급함		61.2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5.0
	일정 금액	13.7
	기준 없음	1.3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20.5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임.

을 분석한다.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11.8%가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로가 대단히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85.0%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3.7%는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응답하였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2만 500원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중심으로 임금 지급주기와 산정방식, 수준과 내용, 그리고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

〈표 6-8〉에서 임금근로자의 97.0%가 ‘한 달’을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는 각각 1.7%, 1.1%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95.8%, 여성의 98.4%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12.5%로, 월급제의 비중은 79.4%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75.4%, 84.5%로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봉제의 비중은 남성이 16.0%, 여성이 8.1%로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18.7%)이 여성(12.0%)

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2.8%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3.9%로 가장 낮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 지급주기	한 달	97.0	95.8	98.4
	보름/주	0.3	0.4	0.2
	매일	1.7	2.1	1.1
	수시	1.1	1.7	0.3
	기타	0.0	0.0	0.0
임금 산정방식	연봉계약제	12.5	16.0	8.1
	월급	79.4	75.4	84.5
	주급/격주	0.0	0.0	0.1
	일당	4.3	6.0	2.2
	시간급제	2.1	0.7	3.8
	도급제	0.3	0.5	0.1
	실적급	1.3	1.4	1.2
	기타	0.1	0.1	0.1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별	남성	18.7	81.3
	여성	12.0	88.0
산업	농림어업	15.5	84.5
	광공업	21.8	78.2
	건설업	3.9	96.2
	전기·가스 및 수도업	42.8	57.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3	90.7
	운수통신업	17.3	82.7
	금융 및 부동산업	25.8	74.2
	공공서비스업	27.9	72.1
	기타 서비스업	12.9	87.1

〈표 6-9〉의 계속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직종	전문관리직	19.4	80.6
	사무직	20.6	79.4
	서비스직	11.7	88.3
	농림어업직	2.7	97.3
	생산직	11.2	88.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2	80.8
	임시직	5.2	94.9
	일용직	2.4	97.6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4.2	95.8
	10~29인	5.2	94.8
	30~99인	15.5	84.5
	100~299인	19.0	81.0
	300~499인	25.1	74.9
	500인 이상	39.7	60.3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20.6%가 가장 높은 성과급제를 적용받았으며,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생산직은 11.2%로 낮은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상용직에 비해 성과급제의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39.7%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실시 비율이 낮아져 10~29인 사업장은 5.2%, 10인 미만 사업장은 4.2%만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과 “현재 이 일자리에서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월평균 임금을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6-10〉은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 실질임금이 1차(2009)년도 235만

3,000원에서 15차(2023)년도 281만 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1차(2009)년도 월평균 실질임금 162만 9,000원은 당시 남성(281만 5,000원)의 57.9%에 불과했으며, 15차(2023)년도의 216만 8,000원도 남성(331만 2,000원)의 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보여준다. 연령별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경우 50대가 447만 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40대가 289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19세 이하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 20대가 248만 6,000원,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152만 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9)	197.4(0.011)	235.3	236.2(0.013)	281.5	136.7(0.015)	162.9
2차(10)	204.2(0.010)	236.4	244.4(0.012)	283.0	144.1(0.015)	166.9
3차(11)	214.7(0.011)	238.9	259.4(0.013)	288.7	147.6(0.015)	164.3
4차(12)	223.7(0.010)	243.6	269.2(0.012)	293.2	156.8(0.015)	170.7
5차(13)	232.7(0.011)	250.1	279.9(0.013)	300.9	163.2(0.015)	175.4
6차(14)	237.7(0.011)	252.3	283.9(0.013)	301.4	169.3(0.016)	179.7
7차(15)	244.6(0.011)	257.9	292.0(0.013)	307.8	175.3(0.015)	184.8
8차(16)	249.8(0.011)	260.8	296.9(0.013)	310.0	183.2(0.015)	191.3
9차(17)	256.5(0.010)	262.7	308.2(0.013)	315.7	187.5(0.014)	192.0
10차(18)	266.7(0.010)	269.2	317.8(0.012)	320.7	198.9(0.013)	200.7
11차(19)	274.1(0.009)	275.5	323.2(0.012)	325.0	209.2(0.013)	210.3
12차(20)	281.4(0.009)	281.4	330.6(0.011)	330.6	216.4(0.013)	216.4
13차(21)	289.0(0.009)	281.9	341.4(0.011)	333.1	221.2(0.013)	215.8
14차(22)	304.4(0.009)	282.6	357.7(0.011)	332.1	236.1(0.014)	219.2
15차(23)	313.6(0.009)	281.1	369.6(0.011)	331.2	241.9(0.013)	216.8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100(2020=100)²⁸⁾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131.8	155.4	95.2
	20~29세	236.9	248.6	225.6
	30~39세	315.5	345.2	275.1
	40~49세	384.2	443.6	289.7
	50~59세	357.9	447.3	248.8
	60세 이상	220.3	276.5	152.8
학 력	고졸 미만	175.2	231.7	132.6
	고졸	262.4	312.3	204.7
	전문대졸	313.9	368.2	251.6
	대졸	363.0	408.6	293.4
	대학원 이상	455.2	500.5	354.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만 원, %)

		월평균 임금	
		평균액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351.4	
	임시직	173.5	49.4
	일용직	215.5	61.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455만 2,000원으로 고졸자의 262만 4,000원 보다 57.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5만 2,000원으로 고졸자의 66.8%에 불과했다.

28)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83.906, 2010년 86.373, 2011년 89.850, 2012년 91.815, 2013년 93.010, 2014년 94.196, 2015년 94.861, 2016년 95.783, 2017년 97.645, 2018년 99.086, 2019년 99.466, 2020년 100.00, 2021년 102.50, 2023년 107.72, 2023년 111.59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 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업	농림어업	225.1	318.6	105.7
	광공업	370.2	416.8	254.5
	건설업	334.6	340.6	268.2
	전기·가스 및 수도업	450.5	475.8	32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58.0	320.8	209.2
	운수통신업	352.2	369.3	295.4
	금융부동산업	352.0	388.4	307.7
	공공서비스업	335.7	385.0	263.1
	기타 서비스업	279.2	349.5	235.3
직종	전문관리직	368.6	438.6	287.3
	사무직	358.6	413.3	298.0
	서비스직	231.6	312.8	188.6
	농림어업직	257.8	252.3	273.4
	생산직	275.3	314.2	168.7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232.4	271.2	193.9
	10~29인	281.8	330.1	225.6
	30~99인	309.5	356.6	249.9
	100~299인	350.6	405.9	261.7
	300~499인	380.0	442.5	289.6
	500인 이상	486.3	548.5	351.0
기업형태별	민간회사	309.5	366.3	231.1
	외국인회사	424.2	477.5	337.6
	공기업	328.9	408.2	252.6
	법인단체	338.6	426.6	270.3
	정부기관	329.0	374.8	283.4
	소속이 없음	244.5	276.3	151.2
	기타	230.7	257.4	142.0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51만 4,000원인 데 비해 임시직은 상용직의 49.4%, 일용직은 6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은 산업별과 직종별, 그리고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50만 5,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광공업이 370만 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포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475만 8,000원), 광공업(416만 8,000원)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전기·가스·수도업(320만 3,000원), 금융 및 부동산업(307만 7,000원) 순으로 높았다.

임금수준은 직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임금만 300만 원을 상회하였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486만 3,000원,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임금은 각각 232만 4,000원과 281만 8,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회사가 424만 2,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법인단체가 338만 6,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는 309만 5,000원으로 소속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문항들을 설문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부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기선언적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유무 등을 조사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여부와 취업자의 근로지속성 여부, 향후 근로지속가능기간,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파견 및 용역 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또한 4차(2012)년도부터는 2009년 부가 조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이 설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상술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⁹⁾

1. 비정규직의 규모

〈표 6-14〉는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5.2%였다. 27.5%의 한시적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9.7%의 비전형근로자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전형근로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직	64.8	70.4	57.7
비정규직	35.2	29.7	42.3
한시적 근로자	27.5	24.2	31.8
시간제근로자	12.8	6.3	21.2
비전형근로자	9.7	10.4	8.7
파견근로자	1.0	0.7	1.5
용역근로자	2.4	2.5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	1.3	1.7
가정내근로자	0.4	0.2	0.6
일일근로자	5.5	7.1	3.5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비정규직의 각 고용형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그 비중의 합이 반드시 100이 되지 않음.

29) KLIPS는 5차(2013)년도까지는 별도의 기준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분류해 왔으나, 6차(2014)년도부터는 노사정 합의문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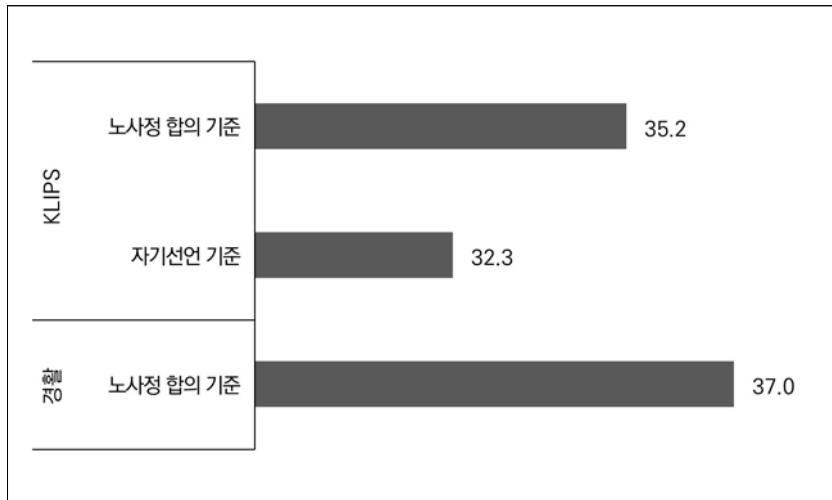
형은 5.5%의 일일근로자였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각각 1.0%, 2.4%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3분의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남성 중 비전형근로자 비중은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자 비중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 일용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6-3]은 KLIPS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KLIPS에서는 여러 조사항목을 이용하여 2002년 노사정 합의문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KLIPS의 2002년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5.2%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7.0%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2.3%로 나타났다.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3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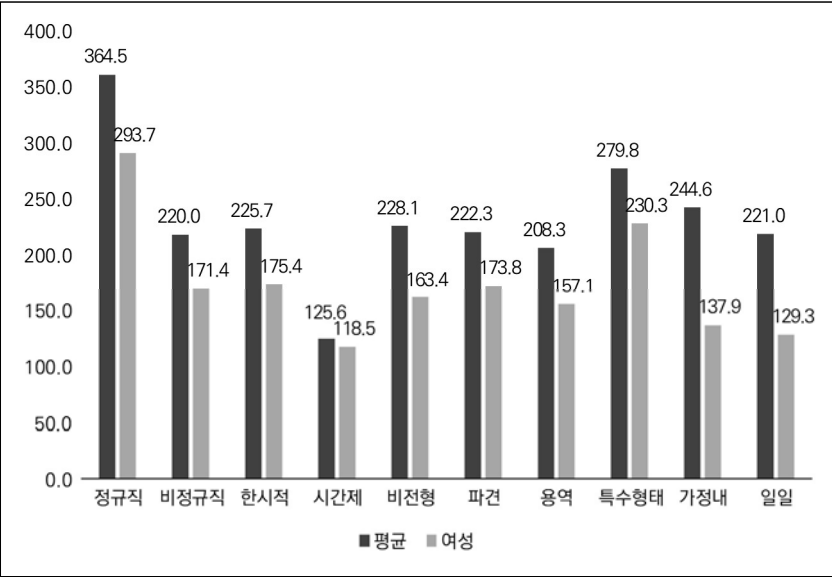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그림 6-4]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의 임금을 고용형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20만 원)은 정규직 근로자(364만 5,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79만 8,000원)도 정규직 근로자의 83.1%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성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성 일일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27만 6,000원)은 전체 일일근로자(212만 4,000원)의 7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만 원)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KLIPS는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의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 본금 및 화폐가치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장에서도 제6장과 마찬가지로 09통합표본이 사용되었다.

1차(2009)년도부터 15차(2023)년도까지 각 조사에서 파악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09통합표본)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09)	2,598	59.5	40.5	30.1
2차(10)	2,466	59.4	40.6	29.3
3차(11)	2,364	60.6	39.4	27.9
4차(12)	2,393	61.4	38.6	27.4
5차(13)	2,354	60.4	39.6	27.0
6차(14)	2,249	61.6	38.4	26.3
7차(15)	2,255	61.5	38.5	25.8
8차(16)	2,251	61.5	38.5	25.7
9차(17)	2,238	61.6	38.4	25.1
10차(18)	2,192	61.3	38.7	24.7
11차(19)	2,086	62.0	38.0	23.8
12차(20)	2,033	62.6	37.4	23.7
13차(21)	2,034	62.2	37.8	23.6
14차(22)	1,992	63.2	36.8	22.9
15차(23)	1,986	61.6	38.4	22.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1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근로자로,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하는 근로자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에서 15차(2023)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24.9%, 자영업자가 60.8%, 무급가족종사자가 14.3%였다.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27.8	52.9	19.3
2차('10)	26.8	54.2	19.0
3차('11)	28.0	53.7	18.3
4차('12)	25.3	56.9	17.8
5차('13)	25.2	56.8	18.0
6차('14)	24.5	57.1	18.4
7차('15)	26.1	56.9	17.0
8차('16)	27.3	55.6	17.1
9차('17)	28.0	54.8	17.2
10차('18)	27.0	55.8	17.2
11차('19)	26.0	57.7	16.4
12차('20)	24.8	59.4	15.9
13차('21)	23.1	61.2	15.7
14차('22)	21.8	63.3	14.9
15차('23)	24.9	60.8	14.3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의 비중은 2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50%대에 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0%대에서 거의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각각 29.4%, 66.4%, 4.2%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각각 17.7%, 51.8%, 3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65.3%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56.3%로 낮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주의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³⁰⁾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성별	남성	29.4	66.4	4.2
	여성	17.7	51.8	30.5
연령	20~29세	25.7	61.6	12.7
	30~39세	28.3	64.3	7.4
	40~49세	34.1	56.3	9.6
	50~59세	27.7	57.1	15.1
	60세 이상	16.6	65.3	18.1
학력	고졸 미만	8.7	68.7	22.6
	고졸	21.9	62.1	16.0
	전문대졸	35.2	52.6	12.2
	대졸	34.5	58.1	7.4
	대학원 이상	43.7	51.3	5.0
산업	농림어업	5.3	63.5	31.2
	광공업	38.3	40.6	21.1
	건설업	23.5	68.9	7.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4.4	48.6	17.1
	운수통신업	13.1	85.4	1.6
	금융 및 부동산업	15.5	78.8	5.7
	기타 서비스업	27.7	64.4	7.9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면, 모든 산업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통신업(85.4%)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제2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30) 2017년 개정 10차 산업표준분류.

주당 평균근로일수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설문문항으로는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묻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가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불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불규칙적인 경우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세분하여 조사되었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된 사항은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와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가 <표 7-4>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 68.3%, 불규칙적인 경우 31.7%였고, 특히 불규칙적이고 계절의 영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 영향 없음	계절 영향 있음	
전 체		68.3	14.6	17.1	5.5
종사상 지위	고용주	86.9	8.0	5.1	5.7
	자영업자	62.1	18.2	19.7	5.5
	무급가족종사자	62.1	11.0	27.0	5.6
산업	농림어업	14.1	7.2	78.7	5.5
	광공업	85.0	13.2	1.9	5.4
	건설업	52.0	25.3	22.7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5.0	9.1	5.9	5.9
	운수통신업	60.3	27.1	12.6	5.3
	금융 및 부동산업	78.7	20.5	0.9	5.3
	기타 서비스업	78.8	17.0	4.3	5.4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향을 받는 경우가 17.1%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86.9%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자영업자는 62.1%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고용주(5.1%)보다 자영업자(19.7%)와 무급가족종사자(27.0%)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85.9%, 건설업 종사자의 48.0%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8.7%, 2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일수는 5.5일이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5.5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5.9일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길었고, 건설업이 5.2일로 가장 짧았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차(2009)년도에 52.0시간이었으나 2~6차(2010~2014)년도 동안 50시간 전후를 유지했고, 7차(2015)년도 이후 감소하여 15차(2023)년도에는 44.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5〉에서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15차(2023)년도에는 고용주의 경우 48.0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42.7시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2.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6〉은 15차(2023)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임금근로자의 49.5%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9.5시간보다 약 4.5시간 더 긴 것이다.

성별에 따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4시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4.6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단위: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52.0(0.008)	55.3(0.013)	50.5(0.012)	51.2(0.019)
2차(10)	50.7(0.008)	54.9(0.014)	49.3(0.011)	48.7(0.018)
3차(11)	50.1(0.008)	53.0(0.015)	49.5(0.012)	47.4(0.019)
4차(12)	50.1(0.008)	53.5(0.014)	49.6(0.011)	47.1(0.020)
5차(13)	49.3(0.008)	52.5(0.014)	48.4(0.012)	47.7(0.020)
6차(14)	50.1(0.009)	53.2(0.016)	48.9(0.012)	49.6(0.021)
7차(15)	48.7(0.008)	51.9(0.015)	47.7(0.011)	47.2(0.022)
8차(16)	48.5(0.008)	51.4(0.013)	47.4(0.012)	47.7(0.019)
9차(17)	48.0(0.008)	51.3(0.013)	47.3(0.011)	44.6(0.022)
10차(18)	47.3(0.008)	50.1(0.013)	46.7(0.012)	44.6(0.020)
11차(19)	46.4(0.009)	49.9(0.014)	45.8(0.012)	43.1(0.024)
12차(20)	46.1(0.009)	49.7(0.014)	45.8(0.011)	41.3(0.024)
13차(21)	45.4(0.009)	48.7(0.013)	44.8(0.012)	42.8(0.023)
14차(22)	45.1(0.009)	47.8(0.016)	44.7(0.012)	42.8(0.023)
15차(23)	44.0(0.010)	48.0(0.016)	42.7(0.013)	42.6(0.025)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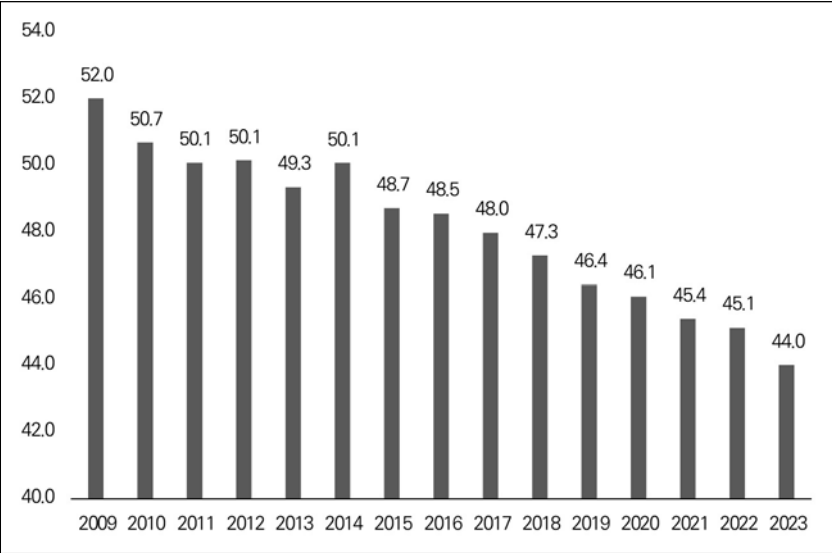
금근로자보다 약 3.9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47.2시간을 일하는 50대였고, 가장 짧은 것은 38.6시간을 일하는 20대였다. 한편 교육수준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46.5시간을 일하는 고졸 미만 이었고, 가장 짧은 것은 36.7시간을 일하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였다.

〈표 7-7〉에서는 15차(2023)년도 기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업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분석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높은 운수통신업은 46.4시간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71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시간)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5.0	18.3	27.1	26.4	20.0	3.1	44.0
성별	남성	3.8	13.4	28.0	29.6	21.6	3.7	45.7
	여성	7.1	26.3	25.7	21.3	17.5	2.1	41.3
연령	20~29세	15.2	17.9	21.3	28.4	17.2	0.0	38.6
	30~39세	14.5	18.0	18.4	22.1	26.2	0.8	41.5
	40~49세	4.0	15.5	32.8	26.7	18.7	2.3	44.3
	50~59세	2.7	12.9	28.6	24.5	26.6	4.7	47.2
	60세 이상	4.5	24.2	25.1	28.7	14.5	3.1	42.4
학력	고졸 미만	5.5	26.8	20.9	26.4	18.4	2.0	42.2
	고졸	3.1	16.0	24.1	27.5	25.8	3.6	46.5
	전문대졸	4.0	13.4	30.3	31.5	17.7	3.1	44.6
	대졸	7.7	15.7	34.3	23.8	15.0	3.6	42.3
	대학원 이상	9.1	31.4	34.7	16.9	7.6	0.2	36.7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8.1	43.2	22.0	14.4	12.2	0.1	36.1
	광공업	3.0	11.2	43.9	28.7	12.8	0.5	43.0
	건설업	1.6	13.4	32.7	45.3	6.0	1.0	4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3	10.7	19.7	30.1	30.9	6.3	50.0
	운수통신업	5.3	9.1	25.6	32.6	23.7	3.7	46.4
	금융 및 부동산업	5.5	12.6	52.8	20.7	7.0	1.4	40.5
	기타 서비스업	8.0	22.4	27.6	22.3	17.6	2.2	41.4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6.3	22.0	23.8	26.5	18.9	2.5	42.7
	1~4인	1.3	9.8	28.9	30.0	24.4	5.7	48.4
	5~9인	4.7	3.3	59.7	14.2	17.4	0.7	43.5
	10인 이상	0.0	7.6	61.8	10.2	20.5	0.0	44.4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한편 종업원 규모가 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8.4시간인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44.4시간으로 약 4.0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제3절 월평균 소득

〈표 7-8〉은 1~15차(2009~2023)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2009)년도 251만 4,000원에서 6차(2014)년도에 310만 4,000원으로 증가했으나 7차(2015)년도에 303만 2,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해 12차(2020)년도에는 353만 8,000원이었다가 13차(2021)년도에 338만 1,000원으로 감소하였다가 15차(2023)년도에 376만 1,000원이었다.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9)	251.4(0.028)	299.6	283.4(0.032)	337.8	177.1(0.049)	211.1
2차(10)	259.9(0.027)	301.0	288.0(0.031)	333.4	193.4(0.050)	223.9
3차(11)	275.0(0.030)	306.1	306.9(0.035)	341.6	195.9(0.046)	218.0
4차(12)	283.9(0.030)	309.2	315.6(0.034)	343.8	202.9(0.048)	221.0
5차(13)	300.8(0.028)	323.4	340.1(0.032)	365.7	207.9(0.047)	223.5
6차(14)	310.4(0.028)	329.5	349.2(0.032)	370.7	213.9(0.051)	227.1
7차(15)	303.2(0.026)	319.6	341.8(0.029)	360.3	210.6(0.044)	222.0
8차(16)	321.0(0.028)	335.1	363.7(0.032)	379.7	222.4(0.041)	232.2
9차(17)	334.0(0.033)	342.1	372.8(0.039)	381.8	240.8(0.046)	246.6
10차(18)	339.0(0.025)	342.1	381.8(0.028)	385.3	238.5(0.045)	240.7
11차(19)	355.0(0.037)	356.9	400.9(0.044)	403.0	242.3(0.046)	243.6
12차(20)	353.8(0.043)	353.8	395.9(0.052)	395.9	251.2(0.044)	251.2
13차(21)	338.1(0.032)	329.9	381.8(0.037)	372.5	232.4(0.052)	226.8
14차(22)	353.4(0.027)	328.1	397.5(0.031)	369.0	244.7(0.042)	227.1
15차(23)	376.1(0.025)	337.1	423.2(0.030)	379.2	271.4(0.043)	243.2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100).³¹⁾

4)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월평균 소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남녀 간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271만 4,000원으로 남성의 423만 2,000원에 비하면 64.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연령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40대가 449만 8,000원으로 가장

31)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83.906, 2010년 86.373, 2011년 89.850, 2012년 91.815, 2013년 93.010, 2014년 94.196, 2015년 94.861, 2016년 95.783, 2017년 97.645, 2018년 99.086, 2019년 99.466, 2020년 100.00, 2021년 102.50, 2023년 107.72, 2023년 111.59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 체		2.8	9.6	14.0	19.0	54.7	376.1
연령	20~29세	2.4	12.7	17.2	29.0	38.8	326.6
	30~39세	1.9	5.7	15.0	19.3	58.2	394.0
	40~49세	3.5	4.2	9.6	18.2	64.6	449.8
	50~59세	1.9	2.7	11.1	16.5	67.9	432.7
	60세 이상	3.3	19.3	18.4	20.6	38.4	283.9
학력	고졸 미만	1.7	25.3	23.9	20.8	28.3	221.1
	고졸	2.4	6.6	13.1	18.8	59.2	386.4
	전문대졸	5.1	5.2	9.5	15.0	65.3	440.1
	대졸	3.0	5.7	11.5	20.4	59.5	426.6
	대학원 이상	1.9	9.9	9.7	16.1	62.4	435.7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대가 67.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학력의 월평균 소득은 440만 1,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미만 학력과 그 이상 학력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미만 학력의 월평균 소득은 221만 1,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8.8%에 불과했다. 또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다른 학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다른 학력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에는 15차(2023)년도 기준 사업체 특성과 종업원 규모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로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광공업 종사자가 544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종사자가

460만 7,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월평균 소득은 197만 4,000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임금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산업	농림어업	4.5	39.3	16.3	15.7	24.1	197.4
	광공업	1.6	2.2	6.0	18.6	71.7	544.9
	건설업	1.7	4.4	3.6	15.7	74.6	460.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	7.6	12.3	19.2	59.0	394.5
	운수통신업	1.5	1.1	15.9	18.3	63.2	383.0
	금융 및 부동산업	7.9	4.2	12.9	31.8	43.2	342.1
	기타 서비스업	3.1	7.8	18.7	18.7	51.6	365.3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4	13.3	18.1	22.3	44.0	289.4
	1~4인	3.6	0.9	4.6	13.2	77.6	536.0
	5~9인	4.1	0.0	2.4	1.8	91.6	755.2
	10인 이상	0.0	0.0	0.5	1.6	97.9	887.2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적자 아님	적자임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7.8	2.2	33.2	21.0	10.9	34.9	496.6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적자액은 적자를 보고 있는 응답자 중 적자액(4,507만 원)을 포함하여 계
산함.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4인 사업장의 비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536만 원인 반면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887만 2,000원이었다.

〈표 7-11〉은 15차(2023)년도에 조사된 적자액 규모이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2.2%로 낮은 비중을 보였고, 월평균 적자액은 496만 6,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제4절 사업체의 창업

KLIPS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 사업체의 창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5.9%로, 창업한 경우 89.5%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자영업자보다 창업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한 응답자가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아보자. 〈표 7-13〉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5.5%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의 비중이 76.2%,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비중이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 본인, 가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업	89.5	95.7	86.7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5.9	4.3	6.7
기타	4.5	0.0	6.6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족 또는 친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고용주보다 14.3%포인트 높은 90.6%로 나타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15.1%포인트 낮은 6.4%로 나타났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09통합표본, 2023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85.5	76.2	90.6
동업자	2.3	2.0	2.5
은행 등의 용자	11.8	21.5	6.4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0.2	0.3	0.1
사채업자	0.0	0.0	0.0
정부의 보조	0.3	0.0	0.4
기타	0.0	0.0	0.0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 8 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것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장점이다.³²⁾ 노동시장 분석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KLIPS의 18통합표본 3~6차(2020~2023년도)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분석표본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18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2023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3.4명이며, 반면 실업으로

32)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 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 분석에 사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8-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4차('21)→5차('22)	5차('22)→6차('23)
취업	취업	93.4	93.9
	실업	0.8	0.9
	비경제활동	5.8	5.2
실업	취업	51.5	42.7
	실업	13.4	16.2
	비경제활동	35.1	41.1
비경제활동	취업	12.7	11.0
	실업	1.5	1.5
	비경제활동	85.8	87.5

주 : 18통합표본 4→5차 계산에는 4차 종단면 가중치를,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옮겨간 사람 수는 0.8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는 5.8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0.8%이며 취업지속확률은 93.4%이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 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8-2〉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2022 → 2023년도의 경우 95.9%인데 여성의 경우는 91.2%이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경우 7.7%로 남성 3.4%의 두 배를 웃돈다.

이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8-3〉은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이행률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의 취

〈표 8-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4차('21)→5차('22)	5차('22)→6차('23)
남성	취업	취업	95.5	95.9
		실업	0.7	0.7
		비경제활동	3.8	3.4
	실업	취업	51.0	45.9
		실업	13.3	20.0
		비경제활동	35.7	34.1
	비경제활동	취업	14.6	13.3
		실업	2.2	2.3
		비경제활동	83.2	84.5
여성	취업	취업	90.6	91.2
		실업	0.9	1.1
		비경제활동	8.5	7.7
	실업	취업	52.1	39.3
		실업	13.6	12.4
		비경제활동	34.3	48.3
	비경제활동	취업	11.7	9.9
		실업	1.2	1.0
		비경제활동	87.2	89.1

주 : 18통합표본 4→5차 계산에는 4차 종단면 가중치를,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업지속 가능성이 2022 → 2023년도 기준 90.8%로 가장 낮다. 반면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40대 96.6%, 50대 95.8%로 높다. 2021 → 2022년도와 비교할 때,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취업상태 지속 확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확률은 86.4%에서 90.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20대, 30대는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확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22 → 2023년도의 경우 20대는 73.5%인 반면, 30대 84.1%, 40대 84.2%,

50대 87.3%,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4.6%이다. 청년의 비경제활동 지속 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 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업자가 취업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자의 표본 수가 적어서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3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4차('21)→5차('22)	5차('22)→6차('23)
20대	취업	취업	86.4	90.8
		실업	2.1	2.3
		비경제활동	11.6	6.9
	실업	취업	45.6	44.1
		실업	20.5	20.6
		비경제활동	33.9	35.3
	비경제활동	취업	24.4	21.3
		실업	4.8	5.3
		비경제활동	70.8	73.5
30대	취업	취업	95.8	94.2
		실업	0.5	1.4
		비경제활동	3.7	4.3
	실업	취업	60.9	37.3
		실업	10.6	23.9
		비경제활동	28.6	38.9
	비경제활동	취업	19.6	14.0
		실업	1.6	2.0
		비경제활동	78.8	84.1
40대	취업	취업	96.4	96.6
		실업	0.8	0.6
		비경제활동	2.9	2.9

〈표 8-3〉의 계속

	이전상태	이후상태	4차('21)→5차('22)	5차('22)→6차('23)
40대	실업	취업	48.9	38.6
		실업	4.2	11.9
		비경제활동	46.9	49.5
	비경제활동	취업	13.0	15.0
		실업	1.4	0.8
		비경제활동	85.6	84.2
50대	취업	취업	95.1	95.8
		실업	0.6	0.5
		비경제활동	4.3	3.7
	실업	취업	70.2	54.1
		실업	8.2	4.2
		비경제활동	21.7	41.7
	비경제활동	취업	12.4	11.9
		실업	0.8	0.9
		비경제활동	86.8	87.3
60대	취업	취업	89.8	90.3
		실업	0.6	0.4
		비경제활동	9.6	9.3
	실업	취업	36.1	36.5
		실업	7.3	6.8
		비경제활동	56.6	56.7
	비경제활동	취업	5.5	5.2
		실업	0.3	0.2
		비경제활동	94.2	94.6

주 : 18통합표본 4→5차 계산에는 4차 종단면 가중치를,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4〉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학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지속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2022 → 2023년도 기준 100명 가운데 91.6명이지만,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3.4명, 대졸 이상의 경우 95.5명으로 높아진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2022 → 2023년도 기준 중졸 이하에서 94.9%, 고졸에서 89.0%, 전문대졸의 경우 78.5%, 그리고 대졸 이상의 경우 82.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에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이행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4.9%에 불과하나, 고졸의 경우 10.1%로 높아지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도 각각 18.7%, 16.3%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4차(21)→5차(22)	5차(22)→6차(23)
중졸 이하	취업	취업	89.8	91.6
		실업	0.9	0.2
		비경제활동	9.3	8.2
	실업	취업	38.5	25.3
		실업	1.8	8.3
		비경제활동	59.7	66.4
고졸	취업	취업	4.7	4.9
		실업	0.4	0.2
		비경제활동	94.9	94.9
	실업	취업	93.7	93.4
		실업	0.9	1.0
		비경제활동	5.4	5.6
	고졸	취업	43.6	51.7
		실업	10.1	5.8
		비경제활동	46.3	42.5

〈표 8-4〉의 계속

	이전상태	이후상태	4차('21)→5차('22)	5차('22)→6차('23)
고졸	비경제활동	취업	11.5	10.1
		실업	1.0	0.9
		비경제활동	87.5	89.0
전문대졸	취업	취업	93.3	94.0
		실업	1.2	1.2
		비경제활동	5.6	4.8
	실업	취업	58.7	51.0
		실업	18.6	9.1
		비경제활동	22.7	39.9
	비경제활동	취업	21.9	18.7
		실업	1.7	2.8
		비경제활동	76.4	78.5
대졸 이상	취업	취업	95.5	95.5
		실업	0.5	0.8
		비경제활동	4.0	3.7
	실업	취업	57.0	33.1
		실업	16.7	26.7
		비경제활동	26.3	40.2
	비경제활동	취업	20.2	16.3
		실업	1.3	0.7
		비경제활동	78.5	82.9

주 : 18통합표본 4→5차 계산에는 4차 종단면 가중치를,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제 9 장

26차 건강 부가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본 장에서는 개인의 건강 관련 활동 및 상태, 영향, 구체적으로 건강 투자(신체활동), 건강 상태, 피로 및 수면, 의료 이용과 비용, 근무 환경,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기본조사 외에 시의성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거나 기본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부가적인 질문을 실시해 왔다. 예를 들면 청년층(3차, 9차, 19차 조사), 중고령자 및 장년층(6차, 18차 조사) 등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 근로시간과 여가(7차 조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조사), 고용형태(10차, 21차 조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그밖에 교육(11차 조사),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조사), 삶의 인식(18차 조사), 의사결정(20차 조사), 비임금근로(22차 조사), 코로나19(23~25차 조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 26차 조사에서는 4차(건강과 은퇴)에 이어 다시 한 번 건강을 부가조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개인의 건강은 고용과 소득, 근로행태,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현대와 같은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26차 「건강」 부가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은 「한국노동패널 1~26차 통합설문지」³³⁾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2절 분석 결과³⁴⁾

1. 건강 투자(신체 활동)

개인의 건강 투자와 관련하여,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의 신체활동에 대해 강도별로 고강도와 중강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9-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은 돈을 받는 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 학교 생활/교육, 집안일, 농업, 어업, 목축업, 구직과 같이 현재 하고 있는 것(예: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 수업 등)이며, ‘고강도 활동’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을, ‘중강도 활동’은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인의 일이 최소 10분 이상의 고강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응답은 5% 미만(4.3%)인 데 반해, 최소 10분 이상의 중강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응답은 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관련된 고강도 신체활동³⁵⁾은, 평소 일주일 동안 평균 4.2일 하고 있으며, 시간으로는 일평균 2.0시간, 주당 평균 8.6시간 하고 있었다. 일과 관련된 중강도 신체활동³⁶⁾의 경우도 고강도 활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평소

33)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다운로드 가능.

34) 본 장에서는 25차 코로나19 부가조사 분석에서와 같이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가 거의 없어, 가중치 누락(미부여)으로 인한 문제 회피와 가독성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코드북과 동일 수치)를 제시하였다.

35) 본 조사에서 일과 관련된 고강도 신체활동은 예를 들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일(약 20kg 이상), 땅파기,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을 말한다.

36) 본 조사에서 일과 관련된 중강도 신체활동은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일하는 중에),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 육아(목욕시키기, 아이 안아주기) 등을 말한다.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5.0일 중강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간으로 보면 일 평균 1.7시간, 주당 평균 8.7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일 하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중강도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고강도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5배 정도 높았지만 활동 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신체활동 중, 일과 장소 이동 시의 신체활동을 제외한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9-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평소 최소 10분 이상의 고강도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6.1%인 데 반해, 최소 10분 이상 중강도의 해당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5.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의 스포츠·운동·여가 활동³⁷⁾은, 평소 일주일 동안 평균 3.2일 하고 있으며, 시간으로는 일평균 1.2시간, 주당 평균 3.9시간 하고 있었다. 중강도 활동³⁸⁾의 경우도 고강도 활동과 유사하게, 평소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3.7일 중강도의 스포츠·운동·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간으로 보면 일평균 1.0시간, 주당 평균 3.7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일 하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운동 및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고강도인 비율은 낮고 활동 시간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³⁹⁾은 일평균 6.4시간으로 일이나 여가(운동 포함)를 위한 신체활동 시간보다 3~6배 많은 경향을 보였다(표 9-2 참조). 거의 절반(48.2%)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하루에 5~8시간 동안 앉거나 누워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시간을 넘는 비율도 9% 정도였다.

37) 예: 달리기, 줄넘기, 등산, 동구시합, 수영, 배드민턴 등

38) 예: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조깅), 웨이트 트레이닝(근력 운동), 골프,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등

39) ① '자는 시간'은 제외되지만, '낮잠' 시간은 앉아서 하는 활동에 포함, ②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 시에 앉아 있는 시간'은 앉아서 하는 활동에 포함되지만, 대중교통의 경우 평상시 대부분을 서서 이용한다면 이는 제외, ③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도 앉아서 하는 활동에 포함, ④ 자전거 혹은 승마 등과 같이 앉아서 하는 스포츠, 운동은 제외

〈표 9-1〉 일 관련 고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a266101-a266106)

(단위: 명, %)

		고강도 신체활동		중강도 신체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015	4.3	4,753	20.3
주당 일수	1일	47	4.6	79	1.66
	2일	136	13.4	296	6.23
	3일	180	17.7	635	13.36
	4일	102	10.1	276	5.81
	5일	342	33.7	1,690	35.56
	6일	153	15.1	802	16.87
	7일	55	5.4	975	20.51
	합 계	1,015	100.0	4,753	100.0
아니오		22,349	95.7	18,611	79.7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주당 평균 일수		4.2		5.0	
일당 평균 시간		2.0		1.7	
주당 평균 시간		8.6		8.7	

주: 주당 평균 시간=(주당 일수×일당 시간)의 평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26차 조사(2023년도) 학술대회용 원자료.

〈표 9-2〉 평소 하루 중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a266107)

(단위: 명, %)

	빈도	비율
1~2시간	2,244	9.6
3~4시간	4,648	19.9
5~6시간	6,240	26.7
7~8시간	5,024	21.5
9~10시간	3,133	13.4
11~12시간	960	4.1
13~14시간	624	2.7
15시간 이상	491	2.1
전 체	23,364	100.0
평균 시간	6.4	

〈표 9-3〉 평소 10분 이상 고강도 및 중강도 운동·여가 활동(a266111-a266116)

(단위: 명, %)

		고강도 운동·여가 활동		중강도 운동·여가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432	6.1	3,588	15.4
주당 일수	1일	246	17.2	268	7.5
	2일	301	21.0	543	15.1
	3일	341	23.8	1,079	30.1
	4일	108	7.5	296	8.3
	5일	323	22.6	972	27.1
	6일	73	5.1	249	6.9
	7일	40	2.8	181	5.0
	합 계	1,432	100.0	3,588	100.0
아니오		21,932	93.9	19,776	84.6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주당 평균 일수		3.2		3.7	
일당 평균 시간		1.2		1.0	
주당 평균 시간		3.9		3.7	

주: 주당 평균 시간=(주당 일수×일당 시간)의 평균

2. 건강 상태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우선 과거나 현재에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 이력과 치료 정보는 〈표 9-4〉에 제시되어 있다. 진단받은 적이 있는 질병으로는 고혈압(저혈압)이 22%로 가장 많았으며,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13.2%, 고지혈증 10.6%, 당뇨병 9.9%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병의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질병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치료 중”인 경우가 10~20% 내외로 대부분 진단 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 심혈관계 질환 등의 중증질환이나 공황, 수면장애 등의 심리·정신과적 질병의 진단율은 2~2.5% 내외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완치되었거나 치료 중인 반면, 정신건강 관련 질병은 진단 후 치료받지 않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표 9-4〉 과거 및 현재 질병력(a266201-a266209)

(단위: 명, %)

	암 (위암, 간암, 폐암, 기관지암 등)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당뇨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지만 완치되었다	244	1.0	94	0.4	49	0.2
있어서 치료 중이다	335	1.4	2,627	11.2	2,200	9.4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12	0.1	372	1.6	59	0.3
없다	22,773	97.5	20,271	86.8	21,056	90.1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23,364	100.0
	고혈압(저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지만 완치되었다	120	0.5	20	0.1	16	0.1
있어서 치료 중이다	4,910	21.0	503	2.2	539	2.3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113	0.5	11	0.1	19	0.1
없다	18,221	78.0	22,830	97.7	22,790	97.5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23,364	100.0
	고지혈증		우울, 불안 (공황 등)		수면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지만 완치되었다	51	0.2	13	0.1	4	0.0
있어서 치료 중이다	2,364	10.1	321	1.4	324	1.4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75	0.3	158	0.7	290	1.2
없다	20,874	89.3	22,872	97.9	22,746	97.4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23,364	100.0

조사되었다. 특히 수면장애의 경우에는 진단받은 사람들의 절반가량(46%)이 미치료 상태였다.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지난 2주간 일상생활 중의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표 9-5 참조), 스트레스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4.1점, 슬프거나 우울한 수준은 평균 2.9점이고, 5점 이상인 비율이 각각 42.4%, 19.1%(6점 이상 22.2%, 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표 9-5〉 지난 2주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a266222-a266223)
(단위: 명, %)

	스트레스 수준		슬프거나 우울한 수준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매우 낮음)	1,555	6.7	6,101	26.1
2	2,929	12.5	4,996	21.4
3	5,253	22.5	4,695	20.1
4	3,724	15.9	3,113	13.3
5	4,713	20.2	2,016	8.6
6	2,760	11.8	1,429	6.1
7	1,727	7.4	673	2.9
8	543	2.3	254	1.1
9	118	0.5	67	0.3
10(매우 높음)	42	0.2	20	0.1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평 균	4.1		2.9	

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상담·진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2%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표 9-6〉에는 신체발달상황(키, 몸무게) 조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도 정보가 담겨 있다. 신체발달상황 및 비만도 등은 남녀 간, 성장단계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성별 및 연령대별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 결과부터 살펴보면, 예상한 대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키와 몸무게가 여성에 비해 더 높고 BMI 평균과 비만(BMI 25 이상) 비중도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남성이 더 높았다. 남성 응답자 전체 평균 키와 몸무게, BMI는 각각 172cm, 70.8kg, 23.9이고, 여성은 158.7cm, 56.8kg, 22.6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0대가 빠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0~84세 대상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⁴⁰⁾ 평균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대별 결과는 성

40) 사이즈코리아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차수별 측정치 비교(<https://sizekorea.kr/human-info/compare-meas-year>) 참고. 8차 조사 기준, 20~84세 남성 평균

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키는 20대, 몸무게와 BMI, 비만 비중은 30대를 정점으로 그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키는 남성과 같이 2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몸무게는 50대까지, BMI와

〈표 9-6〉 성별 연령대별 평균 키, 몸무게 및 BMI(a266219-a266220)

(단위 : cm, kg, %)

		키	몸무게	BMI	
				평균	비만 비중
남성	15~19세	172.7	66.9	22.3	15.0
	20~29세	175.2	72.2	23.5	24.2
	30~39세	175.0	75.7	24.7	37.2
	40~49세	174.2	74.2	24.4	35.1
	50~59세	172.3	71.9	24.2	31.1
	60~69세	169.9	68.9	23.9	26.6
	70~79세	168.1	66.5	23.5	21.9
	80세 이상	167.0	64.0	23.0	18.4
	전 체	172.0	70.8	23.9	28.2
여성	15~19세	162.3	54.4	20.6	5.9
	20~29세	162.4	55.3	20.9	6.9
	30~39세	161.8	57.2	21.9	12.1
	40~49세	161.2	57.5	22.1	13.3
	50~59세	159.1	57.9	22.9	19.4
	60~69세	157.1	57.8	23.4	23.4
	70~79세	155.2	57.1	23.7	28.3
	80세 이상	153.3	54.0	22.9	23.9
	전 체	158.7	56.8	22.6	18.1
전 체		165.1	63.5	23.2	22.9

주 : 1) BMI는 다음의 산식을 활용하여 산출함. BMI=체중(kg)/신장(m)²

2) BMI가 18.5 미만은 저체중, 18.5 이상 23 미만은 정상, 23 이상 25 미만은 과체중, 25 이상 이상은 비만으로 판정됨.

키, 몸무게, BMI는 각각 170.7cm, 72.5kg, 24.9이고, 여성은 157.6cm, 57.3kg, 23.1임.

비만 비중은 70대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3. 피로 및 수면

개인의 건강과 연관성이 깊은 피로 및 수면 관련 조사결과는 <표 9-7>~<표 9-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피로 및 휴식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9-7 참조)부터 살펴보면, 0~10점 척도로 측정한 평소 피로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수준은 평균 2.9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휴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또한 평균 3.3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평소에 피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편(0~3점)이라는 응답(63.3%)이 있는 편(6~10점)이라는 응답(11.5%)보다 5.5배 많으며, 휴식이 더 필요하지 않은 편(0~3점)이라는 응답(54%) 또한 필요한 편(6~10점)이라는 응답(15.5%)보다 약 3.5배 많았다. 평소 피로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수준과 휴식

<표 9-7> 평소 피로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및 휴식 필요성(a266301-a266302)
(단위: 명, %)

		일상생활 지장		휴식 필요성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지장 없음/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	0	3,648	15.6	3,598	15.4
	1	3,549	15.2	2,707	11.6
	2	4,205	18.0	3,334	14.3
	3	3,387	14.5	2,956	12.7
	4	1,795	7.7	1,800	7.7
	5	4,093	17.5	5,337	22.8
	6	1,426	6.1	1,687	7.2
	7	859	3.7	1,323	5.7
	8	304	1.3	485	2.1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음 /매우 그러함	9	73	0.3	80	0.3
	10	25	0.1	57	0.2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평 균		2.9		3.3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점수별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을 보면 피로도
에 따라 휴식 필요성이 달라진다(연동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면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
시간이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61.5%)이 6~7시간(6시간 포함) 수면을 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8 참조). 또한 <표 9-9>를 보면, 절반 정도의 응답
자가 지난 1년간 수면 관련 문제(잠들기 어려움, 자는 동안 자주 깬,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함)를 겪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수준으로 수면 관련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도

<표 9-8>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수면시간(a266303-a266304)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5시간 이하	1,039	4.4
5시간 초과 6시간 이하	4,063	17.4
6시간 초과 7시간 이하	10,565	45.2
7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688	28.6
8시간 초과 9시간 이하	674	2.9
9시간 초과	335	1.4
전 체	23,364	100.0
평균 시간	7.0	

<표 9-9> 지난 1년간 수면 관련 문제(a266305-a266307)

(단위: 명, %)

	잠들기 어려움		자는 동안 자주 깬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일	476	2.0	790	3.4	257	1.1
한 주에 여러 번	1,396	6.0	1,957	8.4	1,105	4.7
한 달에 여러 번	2,248	9.6	2,767	11.8	3,113	13.3
드물게	6,941	29.7	6,539	28.0	7,930	33.9
전혀 없음	12,303	52.7	11,311	48.4	10,959	46.9
전 체	23,364	100.0	23,364	100.0	23,364	100.0

20% 내외로 상당 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앞선 질병력 결과 (표 9-4 참조)에서 수면장애로 진단받은 경우(2.6%)에도 절반 정도는 치료 받지 않는 상태였던 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4. 의료 이용과 비용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대해서는 4차 부가조사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10>~<표 9-13>에 정리되어 있다. 시간에 따른 비교를 위해 26차 결과와 함께 4차 결과를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표 9-10>을 보면, 전반적으로 입원 경험률은 그리 높지 않은 가운데,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6차 기준 5.4%로 4차(7.5%)보다 2%포인트 정도 적은 반면, 평균 입원 일수는 26차에서 23.2일로 4차(21.9일)보다 1일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사유로는 4차와 26차

<표 9-10>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및 기간(4차: a041321, a041326, 26차: a266401-a266402)

(단위: 명, %)

		4차		26차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예		830	7.5	1,259	5.4
입원 기간	1~3일	158	19.4	237	18.8
	4~7일	223	27.4	366	29.1
	8~14일	117	14.4	227	18.0
	15~30일	217	26.7	282	22.4
	31~90일	64	7.8	100	8.0
	91~180일	23	2.8	25	2.0
	181~365일	11	1.4	22	1.8
	합 계	813	100.0	1,259	100.0
	평균 일수	21.9		23.2	
아니오		10,205	92.5	22,105	94.6
전 체		11,035	100.0	23,364	100.0

주: 4차의 경우 '예' 응답자 수의 총합과 입원기간의 응답자 수의 총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모름/무응답의 결측치로 인한 것임.

모두 ‘지병 또는 질병’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사고’, ‘출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차에서 26차로 최근으로 올수록 1위 사유인 ‘지병 또는 질병’의 비중은 30%포인트 가까이 대폭 상승하고 ‘사고’(2위), ‘출산’(3위), ‘성형, 정형 또는 교정’ 등의 사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9-11〉 지난 1년간 입원 이유(4차: a041327, 26차: a266403)

(단위: 명, %)

	4차		26차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지병 또는 질병으로	405	48.8	971	77.1
사고로	199	24.0	193	15.3
출산을 위해	139	16.8	57	4.5
건강 검진을 위해	6	0.7	11	0.9
요양 또는 휴식을 위해	7	0.8	19	1.5
성형, 정형 또는 교정을 위해	18	2.2	8	0.6
기타	56	6.8	0	0.0
전 체	830	100.0	1,259	100.0

〈표 9-12〉 정기 건강검진 여부 및 주기(4차: a041331-a041332, 26차: a266404-a266405)

(단위: 명, %, 개월)

		4차		26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받고 있다		2,275	20.7	16,745	71.7
주기	1년 이하	1,778	79.1	5,813	34.7
	1년 초과 2년 이하	453	20.2	10,864	64.9
	2년 초과	16	0.7	68	0.4
	합 계	2,247	100.0	16,745	100.0
	평균(개월)	13.4		19.7	
받지 않는다		8,744	79.4	6,619	28.3
전 체		11,019	100.0	23,364	100.0

주: 4차의 경우 건강검진 주기에 대한 응답 중 모름 및 무응답(-1)이 28건으로 정기 건강검진 여부에 ‘받고 있다’로 응답한 숫자와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정기 건강검진 여부 및 주기 관련 조사결과(표 9-12 참조)를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관찰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26차 기준 71.7%로 20여 년 전인 4차(20.7%) 대비 3.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평균 검진 주기 또한 26차에서 약 20개월로 4차(13.4개월)보다 6개월 이상 길어졌다. 4차에서는 정기 건강검진 주기가 1년 이하인 경우가 80%에 육박하는 반면, 26차에서는 1년 이하인 경우는 약 35%로 급감하고 ‘1년 초과~2년 이하’가 65%로 대폭 상승했다.

의료기관 이용 관련 결과(표 9-13 참조) 또한 지난 20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차에서는 50% 미만(45.2%)이었던 진료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⁴¹⁾ 비율이 26차에서는 약 67%까지 높아졌다. 진료 횟수는 4차에서는 ‘1~2회’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6차에서는

〈표 9-13〉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4차: a041341-a041342, 26차: a266406-a266407)

(단위: 명, %)

		4차		26차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예		4,987	45.2	15,612	66.8
횟수	1~2회	1,726	35.1	2,501	16.1
	3~5회	1,285	26.1	4,920	31.6
	6~10회	738	15.0	4,472	28.8
	11~15회	553	11.2	2,421	15.6
	16~20회	205	4.2	572	3.7
	21~30회	187	3.8	401	2.6
	30회 이상	226	4.6	263	1.7
	합 계	4,920	100.0	15,550	100.0
	평 균	9.6		8.4	
아니오		6,048	54.8	7,752	33.2
전 체		11,035	100.0	23,364	100.0

주 : 의료기관 이용 여부에 예로 응답자 수의 총합과 이용 횟수의 응답자 수의 총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모름/무응답(-1)으로 인한 것임.

41) 일반적인 건강진단과 임신 관련 진료, 약국 이용 제외.

‘1~2회’는 16%로 크게 낮아지고 ‘3~5회’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5회의 비중(76%)이 4차(52.3%) 대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편 진료 횟수 평균으로는 4차가 9.6회로 26차(8.4회)보다 1회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회 이상’ 진료받은 비율이 4차에서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병의원 치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과 시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근무 환경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일자리까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14>~<표 9-19>에 정리되어 있다. 일자리가 하나뿐인 응답자가 13,08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두 개 이상인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네 번째 일자리는 응답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 <표 9-14>를 보면, 평소 하루 출퇴근 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은 첫 번째 일자리의 경우 평균 47분으로 두 번째(32분)와 세 번째(39분) 일자리에 비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구간별로는 모든 일자리에서 ‘30분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시간 이하(30분 이하+30분 초과 1시간 이하)인 경우가 80~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모든 일자리에서 자가용(승용차)인 경우가 45% 내외로 가장 많았다(표 9-15 참조). 한편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자가용에 이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2순위였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일자리에서는 첫 번째 일자리에서 3순위였던 ‘도보’가 2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평균(48.4분)이 두 번째(35.6분)와 세 번째(45.6분) 일자리에서보다 더 길었다.

다음으로 야간, 주말 근무 등 근무시간 형태와 관련하여 <표 9-16>을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모든 일자리에서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서 ‘일요일 근무’, ‘저녁 근무’ 순으로 나타나, 주말 근무(토요일 근무+일요일 근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일자리에서 주말 근무가 있다는 응답이 64.4%로 첫 번째 일자리의 경우(54.9%)보다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한 달 평균 3번 정도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저녁 근무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도, 하는 경우(약 10%)에는 월평균 14번

〈표 9-14〉 평소 하루 출퇴근 시간(a266501, a266601, a266701)

(단위: 명, %)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0분 이하	5,827	44.5	186	66.9	36	52.9
30분 초과 1시간 이하	4,866	37.2	73	26.3	25	36.8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045	15.6	17	6.1	7	10.3
2시간 초과	342	2.6	2	0.7	0	0.0
전 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평균 시간(분)	46.8		32.0		38.5	

주: 〈표 9-14〉~〈표 9-19〉에서 네 번째 일자리는 응답자 수 1명으로 표에 제시하지 않음.

〈표 9-15〉 평소 출퇴근 교통수단(a266502-a266504, a266602-a266604, a266702-a266704)

(단위: 명, %)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3,648	27.0	32	11.2	8	11.4
자가용(승용차)[직접 운전]	5,950	44.0	120	42.0	28	40.0
자가용(승용차)[동승]	417	3.1	4	1.4	2	2.9
자전거, 킥보드(전동 킥보드 포함)	155	1.1	16	5.6	3	4.3
오토바이	133	1.0	22	7.7	3	4.3
도보	2,738	20.3	88	30.8	25	35.7
기타	174	1.3	1	0.3	0	0.0
통근버스	305	2.3	3	1.0	1	1.4
전 체	13,520	100.0	286	100.0	70	100.0
평균 직접 운전 시간(분)	48.4		35.6		45.6	

주: 직접 운전 시간은 자가용 이용 시 동승하는 경우는 제외.

〈표 9-16〉 월간 야간/주말/장시간근무 유무 및 평균 일수(a266511-a266521, a266611-a266621, a266711-a266721)

(단위: 명, %, 일)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밤 근무	있음	952	7.3	20	7.2	3	4.4
	없음	12,128	92.7	258	92.8	65	95.6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평균	11.4					
저녁 근무	있음	2,287	17.5	41	14.8	8	11.8
	없음	10,793	82.5	237	85.3	60	88.2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평균	13.3		13.7			
일요일 근무	있음	2,405	18.4	68	24.5	10	14.7
	없음	10,675	81.6	210	75.5	58	85.3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평균	2.7		2.7			
토요일 근무	있음	4,772	36.5	111	39.9	16	23.5
	없음	8,308	63.5	167	60.1	52	76.5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평균	3.1		3.0			
장시간 근무 (하루 10시간 이상)	있음	1,282	9.8	19	6.8	3	4.4
	없음	11,798	90.2	259	93.2	65	95.6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평균	14.1					
퇴근한 날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 미만인 경우 (지난 한 달 기준)	있음	260	2.0	8	2.9	0	0.0
	없음	12,820	98.0	270	97.1	68	100.0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주: 1) 두 번째 일자리 일부 문항과 세 번째 일자리의 경우 각 근무양식의 총 빈도수가 30도 안 되어 평균 산출이 부적절한 면이 있어 제시하지 않음.

2) 밤 근무란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의미함.

3) 저녁 근무란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의미함.

4)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특례 업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5) 연속휴식시간에 대해서는 횟수 조사가 되지 않아 평균값을 제시하지 않음.

정도, 즉 한 달에 거의 반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장시간 근무가 여전히 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속휴식 시간- 퇴근한 날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시간- 이 부여/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2~3%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의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 조사 결과는 <표 9-17>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근무시간의 규칙성이 첫 번째 일자리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일자리의 경우에는 ‘매일 동일한 근무시간의 길이’, ‘매주 같은 근무일수’, ‘매주 같은 근무시간대’, ‘정해진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내외인 반면,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60%대, 세 번째 일자리에서는 7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매주 근무일수가 같은 경우(82.1%)가 가장 많고,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매주 근무시간대가 같은 경우(66.6%)가 가장 많았으나, 세 번째 일자리에서는 네 가지 형태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교대근무를 하는 비율은 모든 일자리에서 그리 높지 않은 가운데, 하는 경우에

<표 9-17> 근무시간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a266522-a266525, a266622-a266625, a266722-a266725)

(단위: 명, %)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일 근무시간의 길이가 같다	예	10,209	78.1	171	61.5	48	70.6
	아니오	2,871	22.0	107	38.5	20	29.4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매주 근무 일수가 같다	예	10,742	82.1	178	64.03	48	70.6
	아니오	2,338	17.9	100	35.97	20	29.4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매주 근무시간대가 같다	예	10,329	79.0	185	66.6	47	69.1
	아니오	2,751	21.0	93	33.5	21	30.9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예	10,368	79.3	167	60.1	48	70.6
	아니오	2,712	20.7	111	39.9	20	29.4
	전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는 교대/순환(오전, 오후, 야간 등 시간대가 변경 가능한 경우) 형식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18 참조).

〈표 9-18〉 교대근무(a266526-a266527, a266626-a266627, a266726-a266727)

(단위: 명, %)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760	5.8	9	3.2	5	7.4
형식	평일 분할 교대	82	10.8	0	0.0	0	0.0
	영구 교대	140	18.4	2	22.2	1	20.0
	교대/순환	527	69.3	5	55.6	3	60.0
	기타	11	1.4	2	22.2	1	20.0
	합 계	760	100.0	9	100.0	5	100.0
아니오		12,320	94.2	269	96.8	63	92.6
전 체		13,080	100.0	278	100.0	68	100.0

〈표 9-19〉 유연근무제도 유무 및 사용(a266529-a266532, a266629-a266632, a266729-a266732)

(단위: 명, %)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735	7.6	8	4.4	3	4.5
지난 1년간 이용 형태	재택근무제	153	19.3	5	50.0	2	66.7
	시차출퇴근제	76	9.6	3	30.0	0	0.0
	선택근무제	20	2.5	0	0.0	0	0.0
	원격근무제	11	1.4	0	0.0	0	0.0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3	1.6	0	0.0	0	0.0
	탄력적 근무제	31	3.9	0	0.0	1	33.3
	기타 (재량근무 등)	15	1.9	1	10.0	0	0.0
	지난 1년간 이용한 적 없음	474	59.8	1	10.0	0	0.0
	합 계	793	100.0	10	100.0	3	100.0
아니오		8,888	92.4	171	94.5	63	95.5
전 체		9,681	100.0	181	100.0	66	100.0

주: 지난 1년간 유연근무 이용 형태는 복수응답으로 유연근무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수와 지난 1년간 이용 형태의 총합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연근무제도 또한 다니는 직장에 도입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표 9-19 참조). 첫 번째 일자리 기준으로 유연근무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4.4% 수준이었다. 또한 유연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지난 1년간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첫 번째 일자리 기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유연근무제 형태로는 재택근무제(19.3%)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시차출퇴근제(9.6%), 탄력적 근무제(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개인의 건강 문제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9-20>~<표 9-2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표 9-20>을 보면, 지난 7일간 건

<표 9-20>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빠진 시간(a266901)

(단위 : 명, %)

		빈도	비중
예		237	1.8
일을 빠진 시간	1~2시간	64	27.0
	3~4시간	39	16.5
	5~6시간	29	12.2
	7~8시간	27	11.4
	9~10시간	18	7.6
	11~20시간	22	9.3
	21~40시간	30	12.7
	41시간 이상	8	3.4
	합 계	237	100.0
평균 시간		11.0	
아니오		12,830	98.2
전 체		13,067	100.0

주 :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일을 빠진 적이 없어 빠진 시간을 0시간으로 응답한 경우 (12,830명, 98.2%)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13,067명) 평균은 0.2시간임.

강 문제로 인해 일을 빠진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 미만(1.8%)으로 적었으며, 이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빠진 시간(건강 문제로 결근했거나, 늦게 출근했거나, 일찍 퇴근하여 일을 빠진 시간 포함)은 평균 11시간 수준이었다.⁴²⁾ 구간별로 보면 1~2시간(27%)이 가장 많았으나 11시간 이상인 경우도 4분의 1(25.4%)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일을 빠진 적이 없어 빠진 시간을 0시간으로 응답한 경우(12,830명, 98.2%)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13,067명) 평균은 0.2시간이 된다.

한편, 지난 7일간 일하는 중 건강 문제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면, 10점 만점(0(전혀 영향 없음)~10(전혀 일할 수 없음))에 평균 1.9점으로 영향이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21 참조).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영향이 많은 편(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7%로 적었다.

〈표 9-21〉 지난 7일간 일하는 중 건강 문제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a266904)

(단위: 명, %)

		빈도	비중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0	4,464	34.1
	1	2,392	18.3
	2	2,108	16.1
	3	1,419	10.9
	4	753	5.8
보통	5	1,340	10.2
	6	373	2.9
	7	174	1.3
	8	38	0.3
	9	6	0.1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음	10	13	0.1
전 체		13,080	100.0
평 균		1.9	

42)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일을 빠진 적이 없어 0시간으로 응답한 경우(12,830명, 98.2%)는 제외한 평균임.

〈표 9-22〉 업무에 지장을 주는 증상(a266906~a266920)

(단위: 명, %)

		빈도	비중
호흡기 관련 질환(호흡기계 증상, 천식, 감기, 독감)		173	1.9
심장질환		78	0.8
소화기 관련 질환(장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설사 또는 변비, 식도염)		158	1.7
간질환		42	0.5
혈관 관련 질환	고지혈증	451	4.9
	고혈압	797	8.7
	당뇨	398	4.3
	합 계	1,646	17.9
근골격계 관련 질환	상지, 하지 관절의 통증·장애	1,168	12.7
	허리 통증	1,643	17.9
	목·어깨의 통증	1,416	15.4
	골다공증	78	0.8
합 계		4,305	46.9
치과적 문제		113	1.2
안구건조증, 녹내장 등 안과 질환		185	2.0
청력 문제		86	0.9
두통 및 빈혈		302	3.3
피부질환/가려움		50	0.5
암		57	0.6
정신 관련 질환(우울, 불안, 불면증)		240	2.6
수면 부족 및 피로감	수면 부족	290	3.2
	피로감	999	10.9
	합계	1,289	14.0
기타(기타, 갱년기 증상, 불임 치료, 숙취, 소변 관련 증상, 알려지성 질환)		459	5.0
전 체		9,183	100.0

업무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목·어깨 통증(15.4%), 상지, 하지 관절의 통증·장애(12.7%), 피로감(10.9%), 고혈압(8.7%), 고지혈증(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및 혈관 관련 질환이 주요한 증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6차 「건강」 부가조사에 포함된 건강 투자 및 상태, 피로 및 수면, 의료 이용과 비용, 근무 환경,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와 건강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 투자(신체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일 하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중강도 활동을 하는 사람(20.3%)이 고강도 활동을 하는 사람(4.3%)보다 5배 정도 많았지만 활동 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주당 평균 활동 시간 기준, 중강도의 경우 8.7시간, 고강도의 경우 8.6시간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를 운동 및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일 하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강도인 비율은 낮고 활동 시간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고강도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6.1%인 데 반해 중강도는 2.5배 수준인 15.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시간은 고강도의 경우 3.9시간, 중강도는 3.7시간으로 유사하였다. 한편,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6.4시간으로 일이나 여가(운동 포함)를 위한 신체활동 시간(일 1.7~2.0시간, 여가 1.0~1.2시간)보다 3~6배 많은 경향을 보였다.

건강 상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병의 진단율(고혈압(저혈압) 22%,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13.2%, 고지혈증 10.6%, 당뇨병 9.9%)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질병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진단 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황, 수면장애 등의 심리·정신과적 질병의 진단율은 2.5% 내외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진단 후 치료받지 않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지난 2주간 일상생활 중의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점 이상 비율: 스트레스 22.2%, 우울 10.5%). 그러나 지난 1년간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상담·진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2%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편, 신체발달상황(키, 몸무게), BMI(체질량지수) 및 비만도 등은 남녀 간, 성장단계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 차이부터 살펴보면, 키, 몸무게, BMI 평균과 비만(BMI 25 이상) 비중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남성이 더 높다.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비만인의 비중은 남성 28.2%, 여성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몸무게와 BMI, 비만 비중이 30대를 정점으로 그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몸무게는 50대까지, BMI와 비만 비중은 70대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평소 피로 및 휴식 필요성은 10점 만점에 3점 내외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으며, 피로도에 따라 휴식 필요성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이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61.5%)이 6~7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내외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수면 관련 문제를 겪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수준으로 수면 관련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도 20% 내외로 적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입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 평균 입원 일수는 23.2일로 나타났다. 입원 사유로는 ‘지병 또는 질병’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사고’, ‘출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1위 사유인 ‘지병 또는 질병’의 비중은 30%포인트 가까이 대폭 상승하고 2·3위 사유인 ‘사고’ 및 ‘출산’, ‘성형, 정형 또는 교정’ 등의 사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26차 기준 71.7%로 20여 년 전인 4차(20.7%) 대비 3.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평균 검진 주기 또한 26차에서 약 20개월로 4차(13.4개월)보다 6개월 이상 길어졌다. 의료기관 이용도 지난 20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4차에서는 50% 미만(45.2%)이었던 진료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26차에서는 약 67%까지 높아졌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병의원 치료나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나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과 시간 문제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 관련 결과에서 보면, 평소 하루 출퇴근 시간은 첫 번째 일자리의 경우 평균 47분으로 두 번째(32분)와 세 번째(39분) 일자리에 비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모든 일자리에서 자가용(승용차)인 경우가 45% 내외로 가장 많았으며,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자가용에 이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2순위였으나, 두세 번째 일자리에서는 첫 번째 일자리에서 3순위였던 '도보'가 2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 외 근무시간 형태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모든 일자리에서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서 '일요일 근무', '저녁 근무' 순으로 나타나, 주말 근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말 근무는 한 달 평균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저녁 근무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도, 하는 경우(약 10%)에는 월평균 14번 정도, 즉 한 달에 거의 반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장시간 근무가 여전히 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첫 번째 일자리의 경우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비율이 80% 내외로 두세 번째 일자리에 비해 높았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연근무제도는 다니는 직장에 도입된 경우가 8% 미만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첫 번째 일자리 기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유연근무제 형태로는 재택근무제(19.3%)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시차출퇴근제(9.6%), 탄력적근무제(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빠진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 미만(1.8%), 일하는 중 건강 문제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10점 만점에 2점 미만(1.9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빠진 적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건강상 일을 빠진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면 11시간 수준이었다. 업무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목·어깨 통증(15.4%), 상지, 하지 관절의 통증·장애(12.7%), 피로감(10.9%), 고혈압(8.7%), 고지혈증(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및 혈관 관련 질환이 주요한 증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개인의 건강 투자/관리 및 상태와 건강 문제가 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나 효과성 분석 등과 같은 심층적인 연구로 이어진다면, 향후 효율적인 건강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執筆陣

- 이경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정현상(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권익성(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 | |
|------------|--|
| ▪ 발행연월일 | 2024년 12월 26일 인쇄
2024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4 정가 7,000원

ISBN 979-11-260-0743-1



한국노동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